독립국가연합(CIS)

1991년 12월 8일 슬라브 3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연합체 결성 및 구소련의 해체를 선언, 이어 12월 21일 구소련 15개 공화국중 발틱 3국과 몰도바를 제외한 구소련 11개국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창설하였고, 1993년 몰도바가 CIS에 추가로 가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은 관세동맹을 창설하였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997년 4월 양국통합조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12월 25일 연방체 형태의 국가통합에 합의하였다.

국 명		인구	수 도	면 적	GDP('98)		1인당 GDP('97)
	, ,	만명	•	천km²	\$억	증감	US\$
	러시아	14,710	모스크바	17,075	6,058	-4.6	4,231
서	우크라이나	5,060	키예프	603	1,085	-1.7	2,147
부	벨라루스	1,022	민스크	207	421	8.3	4,162
	몰도바	430	키쉬뇨브	34	59	-8.6	1,624
중	카자흐스탄	1,560	아스타나	2,725	428	-2.5	2,616
앙	우즈벡키스탄	2,430	타쉬켄트	447	483	1.0	2,013
아	투르크메니스탄	470	아쉬하바드	491	49	-1.0	1,159
시	타직스탄	610	두산베	143	41	5.3	685
아	키르기즈스탄	470	비쉬케크	200	74	1.8	1,597
남	아제르바이잔	760	바쿠	87	83	5.8	1,088
1	아르메니아	380	예레반	30	18	6.0	2,407
부	그루지야	535	트빌리시	69	14	2.9	1,313

(자료원: EIU, CIS 통계위원회)

주) 1. 타직스탄의 GDP는 1997년 기준.

러시아(Russia)

수 도: 모스크바(860만명)

면 적: 17,075 천㎢

인구밀도: 8.6명/km²

화폐단위: 루블(Rouble), 24.57루블=\$1(1999.6.6)

접경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 미국,

일본

주요하천: 레나江(4,400 km), 이르티쉬江(4,248 km),

에니세이江(4,102 km)

주요호수: 바이칼湖(31.5천 ㎢), 라도쉬스코예湖(18.1천 ㎢)

평균기온: 1월 -2.5 ~ -45℃, 7월 1 ~ 24.5℃

시 차: KST-6시간(여름에는-5시간)

1. 개관

러시아는 유럽과 북태평양 사이의 아시아 북쪽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은 17,075km에 달하여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으나, 세계와 연결되는 주요 바다와의 관계는 그리 흡족하지 못하다. 넓은 국토면 적에도 불구하고 농장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부족한 편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면적의 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쪽의 칼리닌그라드에서 동쪽의 베링해역까지 11시간의 시간대가 있다.

러시아내 자연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우랄산맥 서쪽의 넓은 평원지대, 광대한 침엽수림 그리고 시베리아의 툰드라, 납쪽 국경지대로의산악지대가 분포해 있다. 기후는 스텝지역으로부터 유럽쪽의 다습한대륙성 기후까지 다양하다. 국토의 2/5는 동토지대이며, 겨울에는흑해연안의 선선한 기후에서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까지 있고, 여름에는 스텝의 따뜻한 기후에서 북극쪽의 선선한 기후까지 공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고학력 전무인력과 다양한 산업기반을 갖추고있으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가격의 자유화, 국방비 지출삭감, 중앙집중화된 배급시스템의 제거, 사유화증서를 사용한 사유화의 완결, 민간 금융기관들으설립, 대외무역의 자유화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금융불안과 엄청난 인플레를 겪었다. 산업체들의 제한된 구조조정은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업체들은 시장경제환경에대한 적응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체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한 구소련 당 시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편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7년에 개혁추진이래 최초로 0.4%의 GDP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에 이룩한 성과는 물거품이 되었고, 외채상환과 재정적자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친 대통령은 1996년 7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1998년 들어 지지 도가 급락한 상태이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의회 선거가, 2000년에 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관된 개혁정책의 추진 이 매우 어려운 정국으로써, 금년은 러시아 개혁정책의 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637.2	626.0	617.8	635.1	605.8
GDP 성장	%	-12.7	-4.2	-3.5	0.8	-4.6
인플레률	%	307.4	197.4	47.6	14.6	84.4
인 구	백만명	147.97	148.14	147.74	147.30	147.1
수 출	\$십억	67.8	82.7	90.5	88.7	87.6
수 입	\$십억	50.0	61.9	67.4	71.4	73.5
외환보유고	\$백만	4.0	14.4	11.3	13.0	12.2
환 율	Rb/\$1	2.191	4.559	5.121	5.785	20.6

(자료원: EIU)

1998년 중반이후 러시아는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러시아 시장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급락하였으며, 환율은 급등하고 현재에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러시아 부채의 1/3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국채 매입을 중단하였고, 국채 수익률 급등을 가져왔으며,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1997년 중반이후 세계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외환 수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정부는 초긴축 재정정책을 취하면서루블화 가치방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인플레는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루블화는 중앙은행의 가치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1998년초 대비 3배 이상 상승하여 20루블/\$1을 넘어섰다. 1997년은 러시아는 1989년 이후 최초로 0.4%의 GDP 성장을 기록했으나,이러한 경기회복세는 1998년 들어 반전되었으며 1999년에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예산안의 이행여부인데, 특히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외환위기(90일간의 한시적인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IMF는 226억불의 구제금융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1998년에 46억불이 제공되었다.

이와같은 경제상황하에서 정부는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7월 정부는 긴급조치안을 수립하였는데, 조세체제를 대폭 단순화하고 일부 첨단기술상품의 수입에는 VAT를 면제해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편은 주민들의 세금부담 가중을 우려한 하원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두마는 조세기본법 개정안을 일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상태이나 언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ILO 기준 실업율은 1998년 5월말 기준 9.3%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는 수개월씩 체불상태를 맞고 있는 근로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써 실제 주민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율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모스크바의 실업율이 가장 낮고 이바노보와 같은 경기침체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체불임금은 1998년 6월 1일 현재 110억불에 달하며,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주민들의 월평균 임금은 1998년 5월 현재 174불이며, 이는 1997년 수준의 89.7%에 불과하다.

개방초기의 하이퍼 인플레는 현재 상당히 진정되었다. 1993년 839%를 넘었던 하이퍼인플레는 1997년 15% 수준으로 완전히 진정되었으나, 1998년 8월 금융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연간 인플레는 80%대로 상승했고, 1999년 들어서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수년간의 수출증가를 기록했으나 1997년부터 수출은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세계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수출물량은 증가하였으나외환획득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악화되어 1998년 이후에는 적자로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7년 외국인 투자는 122억불로 전년대비 배로 증가했으며, 1998년에는 118억불로 소폭 감소했다. 총외국인 투자(누계기준으로 336억불)에서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하다. 미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남아있다. 한편 1998년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가 러시아의 외환금융위기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부채는 1,235억불에 달한다. 비록 파리클럽과 런던클럽과 부채 상환일정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상환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부 부채의 경우 디폴트된 사례¹⁾도 있다. 특히 1999-2000년에 부채상환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1999.4.27}일 대외경제은행 코스틴 총재가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외환위기 이후 만기가 도래한 외채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0억불에 달하며, 금년중 만기 도래하는 175억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이다.

1997년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1.9%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비철금속, 기계류, 통신 서비스,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 광산물 그리고심지어 임산물의 생산까지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과 철도운송은 1997년 하반기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다. 반면 전력, 건설자재, 섬유와 신발은 여전히 상당한 생산감소를 겪고 있다. 농산물 생산 감소는 1997년에와서 막을 내리고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1998년 산업생산은 5.2%의 감소를 기록함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당초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증가하는 소비지출 증가는 러시아 경제회복의 엔진으로 등장했다. 국가통계위원회 자료에따르면 1997년 4/4분기중 소매유통액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2.4%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998년들어 상당히 둔화되었고 경제는 침체기로 다시 돌아섰다. 철도운송 물량도 다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소비수요는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아있다.

사유화에관한 정부 자료는 매우 혼란스럽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전체 GDP의 75%를 민간부문이 점유하고 있으며, 단지 41% 정도의 기업만이 국가소유(완전 혹은 부분적으로)로 남아있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은 사유화 되었으나, 채산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세, 임금 등의 체불이 보편화된 현상이다. 기업 지분의 49%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민간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경제실상을 제대로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연방 및 지방정부들은 많은 기업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민간 주주들 조차도 株權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는 사례가많다.

모스크바와 상트 뻬쩨르부르그가 특히 소비재 분야를 포한한 경제 산업중심지이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권은 크게 극동지역, 동부시베 리아, 서부시베리아, 우랄지역, 북서지역, 중앙흑토지대, 남부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스크바의 경우 상품의 초과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방의 경우 이러한 경쟁은 비교적 치열하지 못한편이다.

1999년 12월에는 총선이, 2000년 7월에는 대선이 예정되어있어 향후 1-2년은 러시아 정치의 격변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875	860	847	834	826
원유	백만톤	318	307	301	306	303
천연가스	십억m³	607	595	601	571	564
석탄	백만톤	272	263	257	245	232
선철	백만톤	36.5	39.8	37.1	37.3	•••
공작기계	천대	4.9	4.6	3.5	3.4	•••
화학비료	천톤	8,266	9,639	9,076	9,546	9,346
직물	백만m²	2,197	1,774	1,431	1,565	1,395
PC	천대	82.1	62.3	118	132	94.1
냉장고	천대	2,662	1,789	1,064	1,186	1,043
세탁기	천대	2,122	1,294	762	800	852
승용차	천대	798	835	868	986	836
곡물	백만톤	81.3	63.4	69.3	88.6	47.8
육류	천톤	6,803	5,796	5,336	4,858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러시아에 파급영향을 미치면서

1998년 8월에는 국채에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었다. 증시에 있던 외국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1998년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18억불에 머물렀다. (총 투자누계는 336억불)

외국투자에 대한 개방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 과제중의 하나지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법률체계, 부패와 과중한 조세부담을 투자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자국인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1997년부터 국채시장에대한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전체 국채의 1/3을 점유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제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대한 제한도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예를들어 1998년에 항공산업체에대한 외국인 지분을 25%로 제한하였으며, 가스프롬사에대한 외국인 지분은 9%로 제한되었다. 또한 보험회사에 있어 외국인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으며, 전력업체인 UES의경우 외국인 지분참여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외국인이 보유한 UES의 주식은 25%를 넘어서고 있어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계은행이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발급한 라이센스가 있어야한다. 또한 전체 은행자본금에서 외국계은행들의 총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계은행들의 비중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1997년 5월

중앙은행은 외국계은행의 최소자본금을 1천만 ecu(약 1,150백만불)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체 고용원의 75% 이상, 이사회의 50%이상을 자국인으로 고용토록 하였다.

정부의 사전승인 사항

현재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상호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산업부문에따라 재무부, 지방정부 혹은 각종 중앙정부 부처에 등록해야는데, 기존 러시아 기업의 자산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거나, 방위산업에대한 투자, 천연자원 개발부문에 투자, 5천만 루블 이상규모의 투자, 외국인 지분이 50% 상회하는 합작기업 설립, 건설이 중단된 건축물의 인수 등에 있어서는 러연 정부의 사전 숭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1억 루블 이상의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업의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사전 조사를 받아야한다.

금융, 광업 및 통신사업 등과 같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문의 경우, 라이센스 발급절차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도 한 다. 지난 수년간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일부 지방에서는 부동산 소유에대한 상당한 제약과 같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사유화에 대한 참여

사유화에대한 외국인 참여는 분야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전략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 참여가 극히제한적이다. 1995년 주식보증융자 형태의 사유화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석유, 가스 및 귀금속 부문에대한 외국인 투자참여는 금지된적이 있다. 그러나 석유업체에대한 외국인 사유화 참여 제한은 1997년 철폐되었다. 또한 1997년 스뱌즈인베스트 통신회사의 사유화 제1단계에는 외국인이 참여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장애요인

고율의 변화가 심한 조세, 범죄 그리고 부정부패, 취약한 금융부문, 아직 발전중에 있는 법률체계 그리고 혼란스러운 절차들은 외국인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문제들이다. 관료주의는 외국인 투자자 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있고, 관리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입찰 등에 참여할 경우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이 필수적이 다.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

변화된 러시아 석유산업부문의 소유권 체제는 새로운 협력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향후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는 700억불의 투자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자원의 개발에는 생산물분배법²⁾에 해당되어야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세 및 투자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농업부문 개혁 필요

농업부문은 자본이 부족하고 투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한다. 러시아 정부는 식량안보와 국내 생산에대한 통제권 상실을 우려하여 농업부문에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토지의 사유화를 포함한 농업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전/송금

러시아는 IMF 8조국에 가입하여 모든 경상거래에 대한 제한을 철

^{2).} 자원개발관련 외국인 투자자와 러시아 정부간의 관계를 규정토록 하는 법으로서, 러시아 하원에서 대상사업으로 통과되어야 생산물 분배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발생한다.

폐했다.외환은 모스크바은행간외환거래소(MICEX)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나, 98년 8월 외환위기 이후 외환부족으로 거래규모가축소되고 제한적이 되었다.

1998년 1월 1일 중앙은행은 화계개혁을 단행하여, 끝이 0 3자리를 없앴다. 즉 구1,000루블이 신1루블로 바뀌었다. 당초 중앙은행은 루블화의 대비1달러대비 환율을 2,000년까지 6.0-6.3루블로 안정화시킬 계획이었으나, 99년 5월 현재 이미 25루블/\$1대에 접근한상태이다.

루블화가 러시아내에서는 유일한 법화로써 외국인은 수권은행에 경상거래용 구좌(T구좌)와 투자용 구좌(I구좌)를 개설할 수 있고, 자국인은 경화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거래는 루블화로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화의 인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즉 외화를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출장여비 등의 이유를 밝혀야한다.

국유화/보상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따르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유화가 금지되며, 이러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되어있다. 외국인 투자업체에대한 국유화 위험은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지방정부의 간섭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

러시아 법령의 잦은 개폐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뿐만아니라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데에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 법원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에 굴복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상사중재원을 이용하는 것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러시아 파트너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러시아 상공회의소에는 국제상사중재법원이설치되어 있다.

투자자 의무사항/인센티브

러시아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의서 체결이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 기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국업체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조세감면, 세금납부 절차의 단순화 등과 일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8년 1월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2억5천만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하였고, 1억불 이상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 감면해주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정부는 이와같은 조세혜택의 부여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산권 보장

1993년 대통령령으로 모든 러시아인들은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포함해 각종 재산을 소유, 상속, 저당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업체들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대통령령은 토지의 소유 및 매매권을 인정하였으나, 국가두마(하원)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토지의 개인소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법령들을 제정.발효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복제 등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의 투명성

러시아 법률시스템은 수많은 법령들의 혼합체이다. 상거래관련 새로운 법령들이 계속 정비되는 과정에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러한 러시아 법령을 숙지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 지방정부 관계 자들과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회사의 등록에는 관료주의로 장시간이 소요되기 일쑤이고, 부정부패는 만연 되어 있는 실정이다.

금융시장

1998년 러시아는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현재에는 은행부문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고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약 1천5백개에 달했던 상업은행중 400여개가 문을 닫았고, 금년말까지는 300-400개 은행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4년 연방채권시장위원회(FCSM)이 설립되어 중앙은행과 더불어 증권시장을 관장하고 있다. 러시아 증권시장은 여전히 발전도상에 있는데, 모스크바주식거래소가 설치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현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법령들이 정비과정에 있다.

범죄와 부정부패

조직범죄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의해야할 요인중의 하나이다. 구소련의 붕괴이후 조직범죄는 소위 '마피아'라 불리우며 더욱 극성을부리고 있다. 이는 불행하게도 법령정비와 개혁정책이 범죄를 못따라 잡는데 기인한다. 많은 러시아 기업들은 소위 '보호세'를 이들범죄집단에게 납부하고 있다.

노동시장

러시아 노동시장은 지역간 유동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부족한 주 거시설과 거주허가 획득의 어려움으로 지역간 이동은 제한되어 있 으며, 이에따라 지역별로 임금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업간 및 지역내 이동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체불된 임금은 1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기에 월급을 지급할수 있을 경우 근로자 관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내 노조는 러시아연방독립노조(FITUR)가 주도하고 있는데, 구소련 노조의 자산을 그대로 상속받아 활동하고 있어 영향력이 크며, 여타 노조의 생성은 노조회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그리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합작기업 설립

상당수 외국업체들은 완제품 판매 또는 생산목적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합작기업 성공사례는 음료, 아이스크림, 담배 및 엘리베이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러시아 스타일 비용구조를 감당하기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이는 러시아인들이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에대한 높은 조세부담과 불확실한 법률환경은 외국 업체들의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이다. 현재 라이센스 계약으로 러시아내에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석유 및 가스분야에대한 많은 외국투자들은 부품의 70% 이상을 러시아산을 쓰도록 강제받고 있다. 사할린 1, 2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 평균관세는 14%가 되었다. 1998년 7월부터 3%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9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언제 철폐될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관세율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수입관세 이외에 수입업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다. 소비세는 주류, 담배,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데 세율은 20%에서 570%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20%이며 식품류의경우 10%의 부가가치세3)를 납부해야하며, 세액산출 기준금액에는관세와 소비세가 포함된다.

관세 산출

관세는 경화 또는 루불화로 납부할 수 있다. 관세는 CIF 기준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세관 수수료는 상품가격의 0.15% 이다. 세관규정에 따르면 통관절차는 1개월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하며, 통관이 거부되었을 때는 원산지로 반송해야한다.

수입 라이센스

수입 라이센스는 에틸 알코올, 보드카, 무기류, 보안장비, 폭발물, 군수용품 및 암호설비,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 독극물, 마약류, 귀금속 및 보석 등을 포함한 많은 품목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수입 라이센스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발급한다. 스포츠용 무기류와 보안설비는 내무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3).} 러시아 정부령 제787호 및 788호(1998.7.17)는 10% 부가가치세 적용 대 상품목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빵, 우유, 어린이 식품, 다이어트 식 품 등 식품류와 어린이용 침대, 유모차, 공책, 종이 귀저기 등 어린이 용품들이 포함된다.

수출 관리

1995년 3월 대통령령 제245호로 석유, 가스, 비철금속, 비료, 셀룰로스, 곡물, 어류와 전력과 같은 품목이 포함되는 "전략수출원자재" 및 "특별수출업체" 제도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석유와 가스의 경우연료에너지부가 수출 파이프라인 통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은 수출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무기류, 군수용품, 이중용도기술은 수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한다. 여전히 전략수출원자재를수출할 때는 대외경제무역부에 등록해야한다.

1998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석유, 가스와 일부 비철금속에 대해 수출세를 재도입했다.

무역서류작성

수입업체는 러시아 세관화물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신고서는 54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와 안전증명서(Certificates of Conformity)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외환관리제도에따라 수출입시 "패스포트"를 수권은행에서 받아야하는데 이는 수출입시 상품 혹은 외환이 실제 제대로 거래되었는지를 은행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한 제도이다.

임시 수입

러시아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업체는 무관세로 필요한 물품을 임시 수입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 99.4.1일부로 이러한 무 관세 혜택이 철폐되었다

표준규격

많은 물품들은 러시아 국가표준화위원회(Gosstandart)로부터 안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한다. 그런데 러시아 공업규격(GOST)은 서방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규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식품류는 농업부에서, 의료장비와 의약품은 보건부에서, 통신설비는 국가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야한다. 안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매 선적품마다 사본을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소비업자는 수입품에대한 증명서들을 구비하고 있어야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1만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라벨링

식료품에대한 라벨링(러시아어 표기) 의무화 이후 1998.7.1일부로 비식료품에 대해서도 라벨링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선적전에 이 라벨링 규정에 적합한지 필히 검사해야할 것이다.

자유경제지대/보세창고

러시아에는 10여개의 자유경제지대가 지정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는 자유경제지대는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와 칼리닌그라드 자유경제지대 뿐이다. 또한 다수의 보 세창고와 면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공항, 항구, 철도 및 트 럭 터미널 지역이다.

자유무역협정

러시아는 어떠한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즈스탄과 CIS 관세동맹을 창설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식품류, 의약품, 잡화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5. 수출유망품목

러시아의 수입상품구조(`97)를 살펴보면, 기계류와 설비가 전체 수입의 34.8%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식품과 농산물(25.6%), 화학공업제품(14.6%), 금속.귀금속제품(10.0%) 순이다.

러시아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

연 도	1994	1995	1996	199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기계설비 및 수송기계	35.2	33.8	31.8	34.8
광산물	6.5	6.2	6.9	4.9
금속 및 귀금속제품	6.7	8.6	9.7	10.0
화학공업제품	9.8	10.9	14.3	14.6
목재 및 종이제품	1.6	2.4	3.2	3.1
섬유제품	8.0	5.6	4.8	4.9
피혁 및 피혁제품	0.5	0.2	0.2	0.2
식료품 및 농산물	27.7	28.3	25.1	25.6
기타	4.0	4.0	4.0	1.9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석유 및 가스 설비와 서비스

1997-98년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러시아 석유가스 산업체들은 자금부족을 겪고 있으며 장비 구입에 있어 더욱 신중해졌다. 향후 5년 간 러시아 석유산업체는 300억달러의 투자를 필요로하고 있다. 제정된 생산물분배법(PSA)은 외국 투자자의 자원개발 참여를 위한 기초 골격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야심적인 자원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스프롬사 독점체제에 있는 러시아 가스 생산, 가공 및 운송업분야에서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다.

광산 설비 및 서비스

1998년 7월 일본 수출입은행은 세계은행의 석탄분야 구조조정자금의 일환과 보조를 맞추어 러시아 석탄산업에 8억달러 상당의 차관제공에 합의했다. 이 자금중 일부는 러시아 광산 개발과 광산분야실업자 지원용으로 사용되며 정부는 약 1억7천만달러 상당의 새로운 설비를 구매할 계획이다. Almazy Rossii Sakha는 다이어몬드개발 독점업체로써 귀금속 광산의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광업부문에서는 긴 벽 설비, 인도 라인 바께스, 컨베이어 운반기, 노천광 굴삭기 그리고 기타 응용장비들의 시장 전망이 밝다.

통신설비 및 서비스

러시아는 통신회선의 부족, 교환기의 노후화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인 100명당 평균 19개의 회선이 있어 통신망 사정이 열악한 사정이다. 1997년 7월 정부는 Svyazinvest사 주식의 25%를 매각했으며 추가로 25% 주식의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현지 전화망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불안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992년 1천회선에 불과하던 국제회선은 1996년 12천 회선으로 증가했고, 1997년 9,200 킬로미터의 무선전송라인과 6,400 킬로미터의 케이블 라인이 설치되었으며, 15개의 디지탈교환소(55천 회선)와 20만 이동통신망이 개설되었다.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러시아 지방들은 식품의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어, 중소형, 중저가 식품 가공기계와 포장설비 수요가 많다. 반면 대기업들의 경우 다기 능, 하이테크 설비를 필요로한다. 밀링, 정제, 추출 그리고 통조림, 저온 보관 및 운송설비, 아동식품, 낙농품, 냉동식품, 소프트 드링크 와 맥주 제조설비 시장 전망이 밝다.

의료기기

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40%를 충족시키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정부의 외국산 의료기기 구매는 종종 외국의 융자 또는 개발프로젝트에대한 국제기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건부는 더이상 중앙집권화된 구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병원들이 독자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장 전망이 좋은 품목들로는 진단설비, 레이저 기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계, 연구소용 설비, 치과용 설비, 책상, 정맥극, 지팡이와 휠체어이다.

의약품

의약품 생산 및 분배에있어서의 중앙집권화의 완화 및 국내 의약품 생산 증가에따라 의약품 시장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공급부족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국산은 전체 시장 수요의 35%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1997년 의약품 수입은 16% 증가했다. 주로 독일, 체크, 이태리, 터키, 라트비아, 헝가리, 인도, 슬로베니아 및 스위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미국 Bristol-Myers Squibb와 G.D.Searle 등을 포함한 외국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가장 전망이 밝은 품목들은 심장약, 진통제, 방부재, 염증치료제, 항생제, 비타민, 안정제, 향정신의약품, 중추신경계 자극제, 바이러스 치료약, 항 히스타민, 하제, 흥분제 등이다.

발전 설비

러시아 발전소는 개보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지만 신속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상당한 투자와 설비 현대화 뿐만아니라 발전용량 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전력의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발전분야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Unified Energy Systems(UES)가 독점하다시 피하는 상황이다. 만약 개별 발전소가 생성될 경우 가격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소비자의 지불불능문제에 대응하여 전력 공급을 중단할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발전 설비의 수요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자재

러시아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형 건설사업, 개보수 프로젝트가 추진 되고 있다. 사무실, 은행, 백화점, 레스토랑 및 호텔용 면적은 공급 부족 상태이며 이에따라 건설 및 건설자재에대한 수요가 막대하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서구산 건설 내장재를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 며 이 분야에 시장개척 여지가 많다.

승용차, 트럭 및 버스

러시아 자동차 산업은 유동성 부족, 지불불능 위기, 투자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러시아내에서 판매된 외국차는 13만대에 달했으며,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8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교통수단ㅇ로는 약 35만대의 버스가 있으며, 민간업체의 상업활동이 증가에따라 경트럭, 미니버스 수요가 많다.

1998년말 루블화 가치 급락에 따른 수입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서,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활발한 신모델 개발을 통해 러시아 자국 업체거 서서히 상실했던 자동차 시장을 되찾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러시아 경제내 통신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강화되면서 수입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지적재산권보호 법을 시행함에따라 수입 소프트웨어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야기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각 정부부처, 학교, 연구소 및 유관기관에대한 대규모 판매는 감소하고 있다.

화학공업제품

화학공업분야에서는 구상무역이나 부채 청산 등의 형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화학공업제품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원자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화학품 시장에서는 수입품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이며, 특히 플라스틱, 합성수지 및 섬유류의 수요가 많다.

농산물

러시아는 돼지고기, 소시지 및 육류 찌꺼기를 많이 수입한다. 이는 러시아내 육류의 생산이 감소함에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 인한다. 러시아내 가금류의 생산도 감소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감소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도주와 맥주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맥주와 와인 류는 까다로운 품질 및 위생검사를 거쳐야한다. 또한 소비세 인지를 각 병 단위로 미리 부착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	출	118	601	961	1,415	1,967	1,767	1,113
수	입	74	974	1,229	1,892	1,810	1,534	998

자료워: KOTIS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 %

꼬ㅁ머	199	17	1998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767,932	-10.1	1,113,846	-37.0	
자동차부품	41,367	566.2	89,754	117.0	
특수기능선박류	0	_	76,133	-	
칼라TV	210,376	-54.5	63,368	-69.9	
승용차	208,482	30.4	62,730	-69.9	
브라우스	33,901	326.9	51,178	51.0	
혁제의류	33,993	-16.9	30,295	-10.9	
라면	50,355	42.1	28,544	-43.3	
향신료 및 조미료	41,188	18.9	27,487	-33.3	
기타수산 가공식	31,814	293.2	27,287	-14.2	
여성바지.스커트	28,693	105.7	23,427	-18.4	

자료원: KOTIS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밀가루의 수입이 많으며, 사과 등 과일류도 상당부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분간은 면화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면화는 주로 우즈벡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다.

6. 투자진출 유망분야

투자진출 유망분야는 위의 수출유망품목의 현지 생산 및 자원개발, 군수산업의 민수화 및 사유화 참여, 공동기술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여타 CIS국가와 차이점은 러시아 자체가 1억5천만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투자진출 목적은 내수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 게될 것이다. 유망 프로젝트들에대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외국업체들은 러시아내에 합작기업을 설립해야할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생산물분배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석유 메이저들이 러시아 부품조달율을 맞추도록 돕는 합작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사무소 개설

일부 외국업체들은 러시아내 마케팅 활동을 자사 사무소를 통해 하기도 한다. 러시아법에 따르면, 사무소는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러시아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활동하는 분야에따라, 외국 사무소들은 세금을 부과받는 "상설(permanent) 법인"로 간주된다. 사무소들은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등록은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하는 방식으로 몇가지 잇점이 있는데, 등록기관은 등록된 외국업체 직원의 방문을 위한 초청장을 발급할 수 있고 비즈니스 접촉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러시아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기업은 :

-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처(안전 및 여권 문제 처리)
- 시정부
- 러시아 재무부(대규모 투자 수행시)
- 관할 세무서
- 관련 정부부처 등에 등록해야한다.

4. 수입관리제도

무역장벽

1994년 수입관세가 인상되어 평균 11%가 되었다. 1995년 3월 이관세는 재차 변경되어 최저 세율이 5%, 최고 세율은 30%로 조정되었다. 1996년 러시아 정부는 주류, 닭고기의 수입관세를 인상하

1999년 1월 1일 현재 외국인 투자누계는 335억불이며 이중 직접투자는 133억불이고, 증권투자가 6억3천만불, 기타 투자가 197억불에 달한다. 주요 투자분야는 연료산업이 16.0%를 점유하고 있고,다음으로 식품공업(9.2%), 금융보험(32.5%), 광고회계(10.7%), 유통요식업(4.8%) 순이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투자는 88건에 132백만불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7건에 47백만불, 광업이 1건에 10백만불, 운수업이 1건에 10백만불, 무역업이 27건에 7백만불, 수산업이 6건에 2.4백만불 그리고 기타 24건에 53백만불이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유통 및 판매망

한국에서 유통은 잘 정돈된 유통 채널,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강력한 광고지출을 기대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유통은 산만한 유통망, 불규칙적인 경쟁 그리고 구전광고의 중요성으로 특징지어진다. 러시아에서 판매하기위해서는 성숙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다른 시스템에서 일을 해야한한다. 비록러시아에는 합작기업과 서구형 상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 유통은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 뻬쩨르부르크를 벗어날경우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유통망에 침투하는 것은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패와 직결된다.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위해서 외국 업체들은 상당한 시간 투자와 초기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바 탕으로 임기응변에 능해야한다. 에이전트와 유통업체의 활용/파트너 물색

많은 기업들은 유통업체의 평가 및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시장경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경험이 풍부한 수출업체들과 덜 발달된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직원을 교육하고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돈독히하며, 유연한 전략을 유지해야한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전략은 러시아를 한두번 방문하고는 에이전트 를 정하고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는 위탁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유통의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야한다. 일부 품목(예를들면 의류, 가공식품, 주류 등)의 경우 외국 공급업체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점증하고 있는 러시아 유통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러시아 에이전트들은 외국 공급업체들이 자사제품을 상점의 진열장에 진열시키거나, 세관 및 운송문제 드물게는 광고캠페인 활동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대부분의 최근 설립된 러시아유통업체들은 모스크바 또는 상트 뻬쩨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 국한된 소규모 업체들인 경우가 많다.

지난 2년동안 많은 외국 소비재 제조업체들은 공식 딜러 활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기업들은 주요 대도시에 지사를 두고 에이전트 계약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러시아 영토밖에 제품을 보관하면서 러시아 수입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한다. 이에따라 제조업체들은 제품가격과 유통에있어 좀더큰 통제권을 획득하게되고 반면 잠재적인 세금 또는 통관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불확실한 지역 상업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일부 외국 기업가들은 자사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입업체로써 러시아 세관규정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다. 이 경우 물론 더 높은 비용, 관세부담과 운송비 증가에따른 판매 비용부담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와같은 결정은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강력한 상존효과(strong presence)를 가져오고 물론 많은 투자를 수반하게되지만 결국에는 그 성과를 가져오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랜차이징

러시아내에서 프랜차이징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프랜차이징 유통 망을 설치하고자하는 이전의 시도들은 대부분의 경우 실패했다. 이 는 소유권의 혼란과 프랜차이징 계약상 양측 책임의 불분명 때문이 다. 반면 일부 기업의 경우 상당히 성공적인 경우도 있는데, 프랜차 이징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

주요 대도시들에서는 팩스 전송을 사용한 직접 마케팅은 보편적이 지만 그리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반면 개인대 개인 방식의 직접 마케팅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 Herbalife는 체중감량관련 제품을 직접 마케팅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했고, 최근 Mary Kay화장품사는 직접 마케팅(DM)에 착수하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매 요인/기술

서구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판매 타겟을 주의깊게 선정함으로써 성 공한다. 자본부족과 현금부족은 러시아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양상이 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지불능력에따라 잠재적인 고객들을 차별 화하는 것이 편리하다. 유망한 판매처들은:

- 수출로 경화를 획득하는 러시아 기업
- 서방 차관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개발 프로젝트4)
- 국내 현금동원력이 우수한 러시아 기업체들

-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방정부
- 러시아 연방정부
- 러시아 기업들에의한 주요 현대화 또는 확장계획
- 일반 러시아 소비재 시장
- "노브에 루스끼에(新러시아인)" 시장 등이다.

광고와 판촉활동

TV, 라디오, 인쇄물 및 빌보드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재 및 금융시장에서 전형적인 형태이다.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광고 회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의 광고업관련 법규들은 그리잘 정비되어있지 않으며, 러시아에서는 광고지출이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외 기업들은 종종 비즈니스 전문 일간지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매체가 가장 보편적이다: 젤로보이 류지(월간), 이즈베스지야(일간지), 코메르산트(일간지), 젤로보이 미르(일간), 에코노미차 이 지즈니(주간지), 비즈니스 MN(주간), 모스크바 타임즈(일간), 모스크바 트리뷴(일간), 모스크바 비즈니스 가이드(월간 비즈니스 디렉터리), 젤로보이 페쩨르부르크(일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한국 업체들은 바이어와 유통업체를 효과적으로 물색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소비재 공급업체들은 종종 전시장에서 상당한 즉석 판매성과를 이루기도 한다.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국영기업들은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전

^{4).} EBRD가 1998년중 9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이에는 피아트-가즈 자동차 합작회사(102.9백만불), 톨마쵸브 공항 현대화(8.6백만불), 체르노고르네프트-2(68.6백만불), 덴 노르스케 은행(4.5백만불), 네브스키49(12.4백만불), SBS-Agro은행(25.7백만불), 아스토리아 호텔 건설(12.9백만불), 페름테크 유전개발(21.4백만불), 신전화회사(14.6백만불) 등이다.

시장을 방문하여 자기 지방 또는 기업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가격정책

가격구조는 종종 비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다. 모스크바와 상트 뻬쩨르부르크의 인구 1천명당 소매장 수는 바르샤바 나 부다페스트와 비슷하다. 한편 가격단합과 조직화된 범죄집단에의한 독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 시장들은 소매점 대체수단의 부족, 가격경쟁의 부재로 특징지 워진다. 반면 모스크바와 상트 뻬쩨르부르크시의 경우 일부 수입상 품의 경우에는 다수 수입품과 자국산 브랜드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상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특성을 잘 알고 있고, 가격경쟁 이 치열하다. 그런데 같은 상품이 옴스크나 톰스크와 같은 지방도시 에서는 전혀 다른 시장양상을 보여준다.

고객서비스

애스터 서비스와 고객서비스는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중의 하나이다.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현재에도 애프터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 소비자들 은 필요이상의 물품을 사서 고장이 났을 때 부품으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한국기업들은 주요 지방도시에대한 A/S를 제공함으 로써 러시아 국내제조업체들에비하여 우위를 점유해야할 것이다.

정부조달시장 진출

러시아 정부는 정부 조달부문의 물품구매시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런지 아직까지는 판 단하기 이르지만, 이전에 외국기업들에게 막혀있던 또다른 시장이 개방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한국 제품의 좋은 구매자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러시아 보건부는 병원 및 연구소에 보급할 각종 의약품과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이상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러시아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정비해왔다. 상표권,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법률이 1992년 채택되었고 1993년 지적재산권법이 효력을 발생했다. 러시아는 지적재산권 보장을위한 국제협약에도 가입했으나 집행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 테이프, 음반, 의류 상표 등의 도용은 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외국기업들은 상표 침해로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변호사들의 보고에따르면 러시아내에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러시아법원과 법률가들의 경험부족으로 매우 어렵다.

현지 변호사 이용

러시아 의회는 상행위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법을 통과시켰으나 많은 상거래관련 법규는 수천개의 대통령령 및 각종 정부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정부령과 법률은 상호 내용이 상충되기도 하고 그 정의가 극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러시아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들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러시아 국가코드는 7번이고, 모스크바 도시코드는 095번, 상트 뻬 쩨르부르크는 812번, 마가단은 413번, 블라디보스톡은 4232번이 다.

가. 유용한 연락처

러시아 소재 한국기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주소: 14 Spiridonovka St., Moscow, Russia(우편번호: 119121)

전화: 956-1474, 203-3850 팩스: 956-2434, 0692

E-MAIL: koemrf@dol.ru 또는 koremrl@dol.rf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주소: 123610, Moscow Krasnopresnenskaya NAB.12 Hotel

Mezhdunarodnaya-2, Room747

전화: 258-1627, 1631, 1633 팩스: 258-1634

E-MAIL: kotramow@cityline.ru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주소: Rm 426-428, 45-A, Aleutskaya Str. Vladivostok, 690009 Russia

전화: (4232)26-58-97/26-50-19 팩스: (4232)26-49-79

E-MAIL: ktcvvo@online.vladivostok.ru

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관

주소: 5th Floor, 45-a Aleutskaia St., Vladivostok, Russia 전화: (4232) 22-7729, 7765, 7822 팩스: (4232) 22-9471

E-mail: krconsvl@fastmail.vladivostok.ru

한국소재 러시아 기관

주한 러시아 대사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13 (135-280)

전화 : 552-7096 팩스 : 552-7098

주한 러시아 상공회의소

전화: 551-1335 팩스: 558-5608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전화: 797-8704/6 팩스: 797-6404

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전화: (051)441-9904 팩스: 051-464-4404

러시아 어업위원회 서울사무소

전화 : 547-5147/8 팩스 : 515-8550

러시아 정부 부처

무역산업부

주소: 18/1, Ovchinnikovskaya Nab., Moscow 전화: 220-1064; 팩스: 220-1684, 231-9220

재무부

주소: Ulitsa Ilyinka 9, Entrance 1, Moscow

전화: 298-9130; 팩스: 925-0889

연료에너지부

주소: 7, Kitaigorodskiy Proyezd, Moscow 103074

전화: 220-4659 팩스: 975-2045

농업식품부

주소: Orlikov Pereulok, 1/11, Moscow

전화: 207-4243; 팩스: 207-8362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1a, Komsomolskaya Ploshchad, Moscow 107842

전화: 975-1918; 팩스: 975-4823

국가표준화위원회(GOSSTANDART):

주소: 9, Leninskiy Prospekt, Moscow 117049

전화: 236-6208, -4044; 팩스: 236-6231, 237-6032

국가투자공사

주소: 35, Myasnitskaya Ul., Moscow 103685

전화: 925-6796; 팩스: 207-6936

모스크바 시정부

주소: 13 Tverskaya Ulitsa, 103032, Moscow

전화: 229-6360; 팩스: 883-6208

모스크바 등기소

주소: Mokhovaya Ul., 11, Bld. 8-E, Moscow 103009

전화/팩스: 202-2787

연해주 주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주소: 22 Svetlanskaya ulitsa, 690110, Vladivostok 전화: (4232) 22-08-52 팩스: (4232) 22-10-19

하바로브스크 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주소: 56 ul.K.Marksa, Khabarovsk

전화/팩스: (4212) 32-41-21

사할린 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주소: 32 Kommunisticheskiy prospect, "Sakhincenter", office

236 693000 Yuzhno-Sakhalinsk 693000

전화: (4242) 72-74-94, 팩스: (4242) 72-74-93

유관 기관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주소: 6, Ilyinka Ul.Moscow, 103684

전화: 929-0286; -0260; -0261; -0262; -0263

팩스: 929-0356

연해주 상공회의소

주소: 13a Okeanskiy prospekt, Vladivostok 전화: (4232) 26-96-30 팩스: (4232) 22-72-26

하바로브스크 상공회의소

주소: 113, Shevronova Ulitsa, Khabarovsk 680000

전화: (4212) 33-03-11, 33-11-30 팩스: (4212) 33-03-12

나. 여행 안내

비자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하며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장이 있어야한다. 또한 출국하기위해서는 출국비자가 있어야한다.비자는 호텔 또는 초청기관을 통해 등록하여야하며 비자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기 위해서는 초청기관을 통해 비자기간을 연장해야한다. 관광비자의 경우 비자기간 연장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한다.

교통

러시아 항공편은 지체사태가 종종있으므로 경유할 경우, 도착 공항을 사전에 알아보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야한다. 국제선은 주로 모스크바 쉐레메쩨보 2 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트 뻬쩨르부르크는 풀꼬보 2 공항(풀꼬보 1 공항은 국내선)이다. 도시간여행에는 야간 열차(침대칸)를 이용해 볼수도 있으며, 모스크바와상트 뻬쩨르부르크 시내교통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치아

최근 내부부 발표에따르면 범죄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치 안은 불안정한 편이다. 모스크바에서는 특히 절도가 많이 발생하며 외국인은 현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으로 인식되어 있어 범 죄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범죄대상이 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위에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텔 룸에 중요한 물건을 두지 말아야하고 여권과 비자는 항상 휴대해야한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표시가 되어있는 정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텔

모스크바 등 대도시에는 호텔 시설이 많이 있으며, 일급호텔의 요금은 매우 비싼 편이다.

통화

루블화 만이 유일한 법화이다. 중앙은행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일부 외화상점을 제외하고는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낡은 달러는 상점이나 은행에서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깨끗한 달러화를 준비해 두어야한다. 신용카드는 호텔 등지에서 사 용되지만 상점에서는 널리 통용되지는 않는다. 환전소는 호텔 및 시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환전시 여권을 제시해야한다.

공휴일

1월 1-2일 신정 1월 7일 성탄절 여성의 날 노동절 3월 8일 5월 1-2일 5월 9일 승전기념일 6월 12일 독립기념일 11월 7일10월혁명기념일12월 12일제헌절

우크라이나(Ukraine)

수 도: 키예프(260만명) 면 적: 603천 k㎡

면 적: 603천 k㎡ 인구밀도: 83.7명/k㎡ 인 구: 5,009만명

화폐단위: 그리브나(Grivna, 1996.9월 도입) 3.99그리브나 = \$1(1999.6.6)

접경국가: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

바, 벨라루스

주요하천: 드네프르江(자국내 통과길이 981 km)

주요호수: 사숙湖(205km²)

평균기온: 1월 -9.8℃, 7월 19.3℃

시 차: KST-6시간

1. 개관

1917년 12월 30일 설립된 우크라이나는 192년 12월 30일 구소련의 구성원이 되었다가, 고르바쵸브 구소련 대통령 당시의 8월 쿠테타가 실패한 직후인 1991년 8월 24일 독립을 선포했다.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포에서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동시에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1991년 12월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함께 CIS(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를 결성하였다.

603km² 면적의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흑해, 아조프해, 몰도바 그리고 루마니아와, 북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북쪽으로는 벨라루스와,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와 접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기름진 흑토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카르파티안 산맥이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1954년까지 러시아 영토였던 크리마아 반도가 남쪽끝을 이루고 있다. 기후는 온난한 대륙성기후이지만, 크리미아 반도는 지중해성 기후이다. 북서쪽에 가장 높은 산맥들이 위치해 있고 남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겨울에는 흑해 부근의 서늘한 날씨에서 내륙지방에는 추운 날씨로 다양한 기후대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음으로 구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공화국으로써 경제규모면에서 다른 공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옥한 흑토지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은 구소련 전체 생산의 1/4을 점유하고 있는데, 많은 육류, 우유, 곡물과 채소들을 여타 공화국들에 공급해왔다. 또한 다양한 중공업이 발달하여 각종 설비를 여타 공화국들에 공급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왔다.

1992년 초 정부는 가격자유화를 실시했고 사유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확립했으나 의회 등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었으며, 입법지연은 개

혁정책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었다. 느슨한 재정정책은 높은 인플레를 초래했다. 그러나 뒤이은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플레는 상당수준 진정되었지만, 산업생산의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 정부는 경제개혁을 지속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에대한 국가통제를 더욱 축소하고, 외환시장 및 대외교역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 관료사회 및 산업체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7월 52%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쿠츠마 대통령의 집 권이후 라자렌코 총리와의 불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정치는 다소 불안정한 양상 이다.

우크라이나는 1개의 자치공화국(크리미아자치공화국), 24개의 주와 농촌자치구, 437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이후 타타르인이 크리미아 반도로 이주하면서 독립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정치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있다.

2. 시장환경

우크라이나는 구소련경제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는데, 특히 농업과 방위산업에있어 이러한 경향이 심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발전은 독자적인 경제체제의 형성과 경제개혁 추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경험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독립을 성취한 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공화국 중 경제개발 전망이 가장 밝은 나라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우크

라이나의 광대한 농산자원, 항구와 조선 설비, 기계공업, 운송망 그리고 양호한 투자환경 창조를 가능케할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개혁을 추진할 의지가미약했다. 1993년 연간 인플레는 10,000%에 달했고 사유화는 정지되었으며, 실질임금은 급락했고 산업생산은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했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132.9	120.0	110.0	108.4	108.5
GDP 성장	%	-22.9	-12.2	-10.0	-3.2	-1.7
인플레률	%	891	377	80	16	11
인 구	백만명	51.9	51.6	51.1	50.7	50.6
수 출	\$백만	13,894	14,244	15,547	15,418	13,141
수 입	\$백만	16,469	16,946	19,843	19,623	14,857
외환보유고	\$백만	651	1,051	1,960	2,341	1,020
환 율	HRN/\$1	0.33	1.47	1.83	1.86	2.45

자료워: EIU

1994년 7월 쿠츠마 대통령 취임이후 정부는 경제개혁 추진에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1994년 IMF의 체제전환차관 제공을 가져왔고 1995-1997년간 대기차관 합의에 이르게되었다. 1998년 9월 우크라이나는 22억불의 3개년 확대기금 (Entended Fund Facility)을 IMF로부터 확보했다. World Bank의자금지원으로 금융, 사유화, 농업 및 에너지분야의 개혁이 추진되고있다. 우크라이나는 IMF 차관이후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 차관의 효율적인 운영은 재정적자 관리, 조세개혁 및 기타 기업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에 있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산업생산은 1997년 바닥권에 도달한 징후를 보여주었다. 1996년 10% 생산감소를 겪은이후 1997년 중반부터 회복기미를 보여주었으며 1997년 연간으로는 3.2% 감소에 그쳤다. 1998년에는 0.2% 수준의 생산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7% 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GDP와 산업생산에는 소위 지하경제라고 불리우는 경제부문에서의 생산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경제는 실질 GDP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츠마 정부의 최대 경제성과는 1993년의 하이퍼 인플레를 1998년에는 10% 수준으로 진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 들어외환위기 등이 고조되면서 불안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그리부나화는 1996년 9월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달러화 대비 환율을 2.5-3.5그리브나로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5월 현재 이미4 그리브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는 조세개혁, 규제축소, 사유화, 긴축정책과 대외개방확대 등 구조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사정이 다소 호전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인의 구매력 증가를 가져오고 우크라이나인의 가처분 소 득으로 내구성 소비재 구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발, 의류,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대한 수요는 1998년 증가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식품, 캔디 및 기타 낙농품 등 비내구성 제품에대한 수요도 매우 높은 상태이다.

농업과 식품가공 및 포장분야는 향후 1-2년중 상당한 성장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⁵⁾되는데, 이와관련된 설비와 서비스에대한 수요가

^{5).} 최근 John Deere와 Case Corporation이 우크라이나에 3억불 규모의 콤바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농업부문에 있어 빠른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잠재력은 향후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사유화의 진전 상황에 크게 의존하 고 있다.

에너지 분야 또한 상당한 투자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부문은 구조조정과 사유화가 진전된다면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부문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물분 배법의 통과에 크게 의존된다고 볼 수 있다.

하이테크 산업, 통신,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적인 초고속정보망 시스템을 구축 하여 자국업체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신흥시장의 특징중의 하나인 다차(주말농장) 건설과 아파트 개보수 붐이 일어나면서 품질좋은 건설자재, 중고 건설장비 및 건설 마감재 의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공공지출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보조금 지출이 상당한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12월 통과된 199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GDP의 33%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유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반면 대기업의 사유화 진전은 더딘 편이다. 관련 법규가 애매모호하고,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지방정부나 기업책임자의 및 의회의 저항을 극복하고자하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도없었으며, 복잡한 사유화를 촉진할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이러한 사유화는 우크라이나 시장경제 형성에 있어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199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유화가 시작된후 1997년까지 45천개의 소기업, 7.850개의 대기업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외환보유고는 90년대 중반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나 재정적자의 누적과 외국차관 도입의 어려움으로 1998년 상반기에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외부채는 110억불에 달하는데 특히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이 공급한 석유 및 가스대금이 주요 부채이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194	181	177	172
석유	백만톤	4.1	4.1	4.1	3.9
천연가스	십억cbm	18.2	18.4	18.1	17.9
석탄	백만톤	83.6		58.5	59.4
조강	백만톤	22.3	22.3	25.6	20.7
공작기계	천대	6.0	2.6	2.2	2.0
승용차	천대	58.7	12.0	7.1	32.7
화학비료	백만톤	2.2	2.3	2.4	1.9
냉장고	천대	562	431	381	340
곡물	백만톤	•••	24.5	35.4	26.5
육류	천톤	•••	•••	1,853	1,670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건설된 것이다. 경기 침체, 투자 급감 및 낮은 요금체제 등으로 사회 인프라는 왜곡된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수십년간 통신, 에너지, 운송 그리고 도로 인프라 건설에는 400억불의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 라이나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 EBRD 및 기타 국제 금융기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최근들어 보리스폴 국 제공항 현대화를 포함한 장거리 전화, 오데사 석유 터미널 건설, 비 프데니-브로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추진 되고 있다. 향후 세계은행 프로그램은 에너지, 통신과 운송 및 공공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게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 민간부문 의 역할 증대 및 핵안전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다.

3. 투자환경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가지 외국인 투자누계는 약 28억불에 불과하여 러동구권 국가중 가장저조한 편에 속한다. 특히 러시아의 외환위기 여파 및 구조적 요인들로 금융시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그리브나화의 평가절하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성

1996년 우크라이나는 향후 5년간 농업, 에너지, 통신, 인프라 및 화학공업분야를 중심으로 4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 표했으나,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파트너와 합의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방정부차 원의 장애, 조세문제, 법률의 잦은 개폐 및 불투명성 등이 주요 원 인들이다. 또한 부정부패도 주요한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1996년 4월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자국업체와의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었고, 1997년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FIAC)를 구성하여 쿠추 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견해를 듣는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자산기금이 1992년 창설되어 본격적인 사유화가 시작되었는데,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994년 대통령령으로 사유화증서를 사용한 사유화가 시작되었다. 사유화에있어 외국인 참여에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략기업의 경우 국가가 26-51%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사유화를 통해 2억7천만불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유화 결과는 7천5백만불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1998년 6월 현재 전체 기업의 3/4가사유화되었는데, 사유화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62%, 고용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소유권 보장

우크라이나 헌법(1996.2.28일 제정)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개인소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법은 소유권의 행사에대한 알기쉬운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토지의 사유화를 통한 개인 농의 출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35,900개의 개인농장이 등장하여, 전체 토지의 2%를 점유하고 있다.

법률환경

1991년 독립이후 우크라이나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서두르며, 상업관련 각종 법률을 정비해왔다. 기업, 증권, 외국인투자, 사유화, 토지법, 파산법 등 각종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매우 혁신적이고, 상호 충돌되기도하며 심지어는 사문화되기도 한다.

자유경제지대

크라스노페레코프스크 지방에는 수바쉬 자유경제지대가 설치되었고, 18개 프로젝트, 1천만불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결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어 실업자문제, 체불임금문제 등이 거의 해소되었다. 수바쉬 자유경제지대는 심페로폴, 키예프, 모스크바 및 스칸디나비아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1998년 6월 대통령령으로 도네츠크와 슬라부투크에

추가로 자유경제지대가 설치되었고, 아조프에도 자유경제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자유경제지대별로 특혜는 차이를 보이지만, 도네츠크와 아조프 자유경제지대의 경우 자유경제지대내로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어떠한 라이센스나 쿼타제한도 없다. 또한 수출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반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며, 이윤세는 20%이다.(정상 이윤세는 30% 임).

조세

조세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주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47.5%)를 포함한 각종 조세는 지나치게 고율이고, 조세를 징수하는 절차도 대단히 복잡하고 서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20%)를 납부해야한다. 국세청과 조세경찰은 종종이유없이 세무감사를 하기도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만들고, 사전 노티스 기간이 거의 없이 세율은 자주 변경되기도 한다.

투자자 의무사항/인센티브

투자자의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나, 1996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시 이전에 주어졌던 조세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외국인 투 자자를 내국인과 등등하게 대우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 는 과실송금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에대한 최소투자금액 등과 같은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합작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전에는 20%)이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간주된다. 또한 5만불에서 50만불까지의 현금출자 의 무사항도 철폐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의 일부로 반입되는 기계설비류는 관세를 면제받는다.

법규의 투명성

우크라이나의 표준규격 및 인증제도는 내외국 물품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된다. 외국 수입물품의 경우 최소한 원산지의 품질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는데, 우크라이나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원산지의 규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법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국내 기업활동에대한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외국인 투자가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중의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각종 증명서제도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112개에 달하던 라이센스를 42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제도는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지하경제가 번창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각종 증명서 발급기관들은 독립영리단체로써 증명서 발급비의 80%를 기관들이 이용하고 20%만 국고로 귀속된다. 가격 체계가 있지만 실제 집행시에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하급기관은 상 부기관의 허가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많은 제품들의 경 우 여러개의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종종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기관별로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기업에대한 차별이 없지만, 현지 외국투자기업들은 사실상 외국기업에대한 차별을 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중반까지 많은 법규가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규가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행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공무원사회에서 널리 퍼져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체들은 불평을 토로하곤 한다. 특히 각종 인허가 기관에서 심하며, 일부 공 무원들은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부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 다.

노동시장

우크라이나는 잘 교육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 공식실업율은 2.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ILO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는 공장인력을 삭감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인력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근로자들은 구소련 사회주의 관념을 갖고 있어, 창조성과 도전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한편 1998년 5월 현재 월평균 급여는 80불 수준이며 임금 체불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융시장

우크라이나 금융부문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다. 그러나 여타 경제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전해 있고, 정부의 경제개혁 중점 부문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1998년 6월 현재 227개의 은행이 있고 은행 총자산은 120억불에 달한다. 9개 대형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3개 은행은 우크라우인나방크, 프롬인베스트방크 그리고 저축은행이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우크라이나 은행들은 1998년 1월 1일부로 국제 회계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잘 발전된 전자지불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고 관련 규정들은 상당히 자유로우며, 외국 은행의 진출에대한 쿼타제한 등은 없다. 외국계 은행들의 시장진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부터 프랑스의 Credit Lyonnais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했고, 도이 치방크, 드렛데네르방크, 코머르스방크, 시티은행 등이 진출해 있다. 100% 외국인 소유 은행들은 6개 진출해 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금융시장을 신속하계 세계시장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 및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우크라이나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어, 경제개혁을 왜곡시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1996년 7월 국채주식시장위원회(SSSMC)가 설치되었고, 모든 주식의 제2차 거래는 전국가적인 전자거래시스템(PFT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주식거래소를 포함한 증권시장이 존재하지만 거래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현찰경제로 남아있으나, 일부 은행들은 신용카드(마스타,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용사회로의 이전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전/송금

외국인투자법은 과실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1996년 9월에 도입된 자국화폐 그리브나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러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다소 불안정한 상태이며, IMF의 차관제공이 이루어지면 급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철수할 경우 기업 청산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전에는 과실송금이 1년에 1회만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수시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국유화/보상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기업의 국유

화는 금지된다. 국유화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분쟁해결

지난 수년간 외국인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 고위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나, 그리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할 경우, 사업이 이윤을 획득하고 잘 되어나 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파트너는 외국인 투자자를 가능한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몰아내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협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사업에 있어 신용이 있는 파트너선정이 매우 중요함을 유의해야한다.

합작기업 설립/라이센싱

우크라이나 기업과 서방 파트너간의 합작기업 설립은 우크라이나에서 유행하고 있는 비지니스 유형중의 하나이다. 반면 제품, 기술, 기술자료 그리고 서비스에대한 라이센싱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널리 퍼져있지 않다. 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저작권 침해에대한 징계 법률을 통과시키고 국제 협약에 가입할 뜻을 확고히 나타냈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은 우크라이나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대한 제재장치는 현재로써는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벌금 수준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무소 설치

우크라이나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즉 대표 사무소, 100% 외국인 소유 회사 그리고 합작기업(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 그것이다. 회사의 필요 및 우크라이나 시장에대한 장기적인 전략에따라 위 세가지 유형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투자자들은 사업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상주사무소로 등록해야한다.

현지법인(자회사 및 합작)은 우크라이나내에서 우크라이나 화폐로 거래해야하며, 52%의 사회보장세(고용주세)를 납부해야한다. 대표 사무소는 외화를 사용해도 되며(고용인의 월급 지급은 현지화로 해야함) 37%의 고용주세를 부담해야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고용주세를 32%로 낮추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다.

등록을 위해서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우크라이나어로 번 역하여 자국 소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한다

- 등록신청서
-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 은행 추천서(기업이 좋은 명성과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 위임장(파견 직원이 전권을 갖고 모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증서)
- 지사 개설 결의서(이사회의 지사 또는 법인 설립 결의 의사록)
- 회사정관(합작기업은 설립합의서 추가)

외국인 투자실적

199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759백만불로 전년대비 42.9% 증가했고, 1998년말 현재 투자누계는 27억 8천만불에 달한다.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식품산업, 유통업, 금융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과 건설부문이다.

4. 수입관리제도

무역장벽

부가가치세(20%), 관세(5~200%) 그리고 소비세(10~300%)가 주요 장벽이다. 부가가치세는 통상 통관시 납부한다. 많은 농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품목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수입관세는 유사 품목이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에 크게 달려있는데,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관세가 높다. 주류, 자동차, 보석류, 타 이어와 담배 등을 포함한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 비세 산정기준 가격은 상품가격+수입관세+통관수속비용이 기준이 된다.

소비세는 종량세인 경우가 많은데 제품 수량 단위당 ECU로 부과되며, 납부당일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환전하여 그리브나화로 납부한다. 우크라이나는 1998.1.1일부로 5년 이상 경과한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세 산정

우크라이나의 관세산정은 세계기준에 부합되고 있는데, 관세기준 금액에는 판매가격, 운송비, 보험료, 창고료와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수입 라이센스

1996년 각료회의는 수입 라이센스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대상품목 들로는 농화학제품, 의약품, 수의약품, 화장품과 위생용품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발급하는데 해당품목

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계약서와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사본은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기초서류이다.

수출 관리

수출관리는 우크라이나 수출정책분석조정국에서 관장하며, 대외경제 무역부 또한 수출상품의 가격책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7월 15일자 각료회의 결정으로 아래품목들은 수출 검사대상 품목으로 포함되었다. 수출검사는 예비단계, 기초검사, 반복검사와 보충검사로 이루어진다.

- 군수용품과 이중용도 용품
-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품

1998년 6월 5일자 각료회의 결정으로 일부품목은 1998년중 수출입 쿼타 및 라이센스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쿼타와 라이센스는 대외경제무역부가 발급하며 대상품목은 매년 갱신된다. 대상품목은

- 철강류와 비철금속 스크랩
- 마그네슘
- 강팎
- 호박. 귀금속광
- 다이아몬드
- 은, 금
- 백금 등 (이상은 국고에서 직접 수출될 경우 라이센스를 필요치 않음)
- 직물
- 명
- 면직의류
- 직물
- 의류

- 아마

무역서류작성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때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특히 세관원의 불친절, 잦은 규정의 변경 등으로 곤란을 겪기 쉽다.

투자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로 반입되는 물품들은 제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판매될 때는 제세를 소급 납부해야한다.

모든 수출입 상품은 세관 및 국경검사를 받는다. 현재 70여개의 세관초소가 있으며 초소별로 담당지역이 정해져 있다. 관세의 납부는 국경통과시 해도 되고 최종 물품 도착지 세관에서 납부해도 되는데, 통상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류와 담배는 세바스토폴, 마리우폴 그리고 이리췌브스크 항구에서만 세관수속이 가능하다.

세관수속시 수입업체/운송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준비해 야한다.

- 서명된 계약서
- 화물신고서
- 수입 라이센스(필요시)
- 무기류, 폭발물 등의 경우 내무부의 승인서
- 약품 등의 경우 보건부의 승인서

임시 반입

진출 외국지상사는 자사용품 또는 전시용품으로 일시 반입할수 있는데, 임시 반입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경화한 임시 반입 물품은 재반출 되거나,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보세창고로 이송하거나, 세관의 통제하에 폐기 처분해야한다.

임시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서,관련 부처의 승인서(필요시)와 기타 통관서류를 준비해야한다.

1997년 우크라이나는 자동차의 임시 반입을 1개 기업/1인당 1대로 제한하며, 임시 반입기간도 3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라벨링과 표시 요구사항

우크라이나는 식품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라벨링 표기에대한 강제조항은 없다. 식품류의 경우 원산지, 제조업체, 성분, 유효기간 등을 우크라이나어로 명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일 경우 위험표기를 해야한다.

수입금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무기류, 마약과 의약품 및 일부 통신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표준규격

1994년 우크라이나는 일부 품목에대해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서는 우크라이나 인증서가 발급하는 외국인증서 수용증명과 우 크라이나 기관이 해당 상품에대해 발급하는 안전증명서 2종류로 구 분된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 신청서
- 안전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 표준 규격
- 시험결과 소견서
-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control)
- 원산지증명서

우크라이나 내에는 93개의 검사인증소가 있는데, 각각의 인증소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은 제한되어 있다. 예를들어 TV와 VCR은 리보브 전자연구센터만이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고, 무선통신설비는 세바스토폴 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996년 7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는 ISO-9000 시리즈를 채택했다.

5. 수출유망품목

우크라이나의 수입품목구조(`97)를 보면 연료 및 석유제품이 45.6%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천연가스(29.1%), 기계류 (11.4%), 화학공업제품(7.3%), 식품 및 농산물(5.1%) 순이다.

농화학제품

지난 수년간 우크라이나에는 살충제 및 기타 농화학 제품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졌다. 현지 농화학제품 생산은 연간 수요의 20%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1998년에는 현지 원재료를 사용한 살충제는 수요의 15% 가량을 충족시켰고 2000년에는 25% 정도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화학제품 제조업체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정부의 비합리적인 조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종자, 제초제, 살충제의 단순 수출 뿐만아니라 합작생산 기회도 많은 편이다.

농업기계류

현재 농기계류에대한 수요는 막대하나 국내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진출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단순히 농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높은 수입관세 및 운송비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수반되며 우크라이나내에 조립생산 형태의 투자도 바람직하다.

1998년 초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361천대의 트랙터, 72천대의 곡물수확 콤바인, 37,900대의 작물 수확기가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내 농기계의 60% 이상이 내구년한이 지난 상태로써 새로운 기계류에대한 수요는 막대하다. 그러나 실제 수요와 기계류를 구매할 수있는 구매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시장규모는 4억3천만불 수준이다.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찰흑, 석회암, 석고, 장식용 석재 그리고 유리 등 풍부한 건설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화 획득원중의 하나이다. 반면 건설자재 제조설비의 40% 이상이 구식으로 교체해야할 형편이기도 하다.

건설부문의 시스템은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 이전에는 건설부가 모든 건설관련 자재 생산, 유통 및 건설 자체를 관장했으나 구소련의 붕괴이후 많은 협회와 비정부 기관들이 생성되었고 이들 단체들은 건설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또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의 80% 이상이 사유화되었으며 주식회사들은 건설자재의 생산, 리노베이션,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정리 등 을 활발히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건설부문에는 75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중 6,400여개 업체는 건설업에, 60여개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연구소에 나머지 1,100여 업체는 건설자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건설자재는 총 공사비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시멘트, 페인트, 벽돌 및 여타 건설자재 제품가격이 배로 상승했으며 이에따라 건설비도 200% 상승했다. 1997년중 우크라이나 건설업체는 총 60억달러를 투자하여 6백만 sq.m의 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건설자재 산업의 생산은 12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건설업체의 42%가 1997년중 적자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내 건설자재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 창문 및 문
- 내구성 있고, 에너지 효율적인 플라스틱 파이프
- 혀대적인 벽지
- 에너지 효율적이며 내구성 있는 절연물질
- 조명 시스템
- 타일, 바닥 타일
- 현대적인 바닥 장식재
- 천장재
- 문 작동기구
- 악세사리
- 자동 화재/도난 경보기
- 신속한 조립생산용 블록 시스템

컴퓨터와 주변기기

컴퓨터 시장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며 시장경제원 칙에 가장 가깝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하다. 전반적인 우크라 이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생산 및 수출기회는 막대하다. 전체 컴퓨터 시장의 $10\sim15\%$ 정도만이 개발된 상태로써 시장 확대 여지가 그 많큼 많은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의 구매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펜티엄 프로세서가 가장 인기가 좋으며, 미국, 서구 및 외국 주요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는 이미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현지에서는 수입 부품을 사용한 조립생산이 활발하며 전체 700여개 기업들이 PC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66개 업체는 조립생산 등 PC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용 PC수요는 제한적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광범위한 소비자를 접촉할 수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

행과 통신부문에 컴퓨터 수요가 많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종의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약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용중인 모든 컴퓨터의 98%에는 윈도우즈 프로그램과 워드프로세서 및 스프레드쉬트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소프트 웨어들은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 및 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중인 모든 소프트웨어의 5~15%만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금융, 통계, 경영 그리고 제조관련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어를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시 된다.

의약품

구소련 당시에는 필요한 의약품의 80%가 현지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는 의약품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원료의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새로운 공장건설, 기계설비의 도입 및 사유화의 촉진을 통해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의약품 산업은 우크라이나 화학공업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현지 의약품 생산은 전체 수요의 50% 가량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고가 의약품 수요는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등에서의 값싼 의약품 수요가 많다.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서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는 상당히 성가신 과정의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은 약 6억불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전 시스템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발전 시스템의 개혁과 상업화를 추진해왔다. 방대한 발전부문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부문의 다원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1995년 7월 에너지부는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 측면에서 수개의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다. 4개 주식회사는 화력발전, 수력 및 원자력설비를 운영하고, 에너지 생산 등에 종사하고 있다.

27개 전력 운송회사들에대한 사유화가 1997년 12월 시작되었는데, 각 회사의 주식 15~40%를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투자 희망자의 관심 부족으로 이 부문의 사유화 과정은 더디게 이 루어지고 있다.

수출 전망이 가장 밝은 부문은

- 전동기, 휴대용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 전력 및 전압 변환기, 절연체, 발전기
- 보일러
- 각종의 밸브, 초고열 장비, 파이프, 펌프 메터기, 터빈 등

식품가공 및 포장 설비

우크라이나의 식품가공 및 포장산업은 원시적이며, 매우 낙후되어있어 관련 기계의 수출 및 투자가 매우 유망하다. 막대한 농업부문 잠 재력을 자본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식품 가공 및 포장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 투자가와의 합작기업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식품 가공 및 포장산업이 육성되면 구소련 공화국들 과 중부유럽 및 흑해지역으로의 중요한 수출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식품의 보관기관이 짧아 수출이 활성하되어 있지 못하다.

향후 수년간 특히 다음과 같은 부문의 시장 전망이 밝다.

- 고부가가치 가공설비
-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
- 중소형 규모의 생산 설비
- 보관기관을 오래토록 할 수 있는 포장 기계
- 낙농기계, 어린이 식품 제조설비, 파스타와 빵 제조설비, 양조설비, 소프트 음료의 제조설비, 과일 및 채소 가공설비, 식물성 기름 정제 및 가공설비, 캔디 제조설비 등

의료기기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후 우크라이나 의료부문은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원자재와 부품을 값싼 가격에 구매할 수 업게 되었는데 현재 자국산은전체 의료기기 수요의 20~22% 가량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용중인 의료기기는 노후화가 심한데, 예를들면 5천개의 X-레이 기기중80%가 사용기한을 초과한 상태이다. 의료기관들은 자금난을 겪고있어 새로운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민간 부문이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215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1,300여종의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자국 생산 의료기기의 성능은 어느정도 만족할만하지만, 디자인, 포장,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

주요 의료장비 고객은 지방정부와 종합병원들인데, 후자는 각종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가장 전망이 밝은 분야는 치과의료기기, 연구소 설비, 소독장비, 분석 시스템과 1회용 용품들이다. 또한 중고 의료기기 잠재시장도 큰 상태이며, 가장 적합한 시장진출방법은 합작기업의 설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통신

이동통신은 우크라이나 통신부문중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부문이다. 우크라이나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외국 파트너와 합작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 파트너는 장비 또는 기술을 제공 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7년 9월 이래 우크라이나에는 5개 사업자와 6개 셀룰라 통신망이 있으며 가입자수는 6만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중인 통신 스탠다드는 NMT-450, DCS-1800, D-AMPS, GSM-900이다. GSM-900은 우크라이나 64개 공항의 900 MHz 주파수와 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Ukrtelecom(우크라이나 국영 전화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Ukrtelecom은 각 이동 통신회사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Ukrainian Mobile Communication(UMC)는 1993년 최초 이동통 신망을 구축하고 3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NMT-450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Nokia와 Damm-Cellular System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Golden Telecom은 DCS-1800 방식을 사용하며 키예프 지역과 간선도로, 주요 공항을 연결하며 1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Motorola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Telesystems of Ukraine는 CDMA 방식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Qualcomm Corporation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Ukrainian Wave

는 TDM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Hughes Network Systems의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Digital Cellular Communications Company는 D-AMPS(IS-136) 방식을 사용하여 도네츠크, 키예프, 하리꼬브,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와 크리미아 반도에 서비스 하고 있으며, Ericsson의 설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Kiev Star는 GSM-900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ricsson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Ukrainian Radio System은 GSM-900 방식을 사용하여 1996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안 및 시큐러티 설비

범죄의 증가,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하여 보안관련 설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총기류의 매매는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가정용 및 자동차용의 다양한 보안관련 설비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경보기, 가정용 도난경보기, 최신기술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 TV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민간 은행들은 금고, 금속 차단기, 페이저, 화재 경보기,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때로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고가의 효과적인 보안장비를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 생산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유망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유망하다. 우크라이나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농산물

수입 농산물은 높은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부과받는다.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이 풍부하지만 닭고기, 칠면조고기, 돼지고기 소시지의 경우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古千号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180,250	72.7	197,096	9.3	
승용차	78,245	229.1	88,496	13.1	
공중통신용교환기	12,036	471.0	26,051	116.4	
텔레비젼부분품	2,868	*	11,817	312.1	
칼라TV	31,581	-14.0	8,745	-72.3	
천연색 음극선관	2,327	*	8,508	265.5	
자동차부품	857	-17.1	5,637	557.8	
폴리에스텔직물	3,303	82.0	4,675	41.5	
기타 합성수지	458	_	4,028	779.6	
냉장고	5,813	316.1	2,888	-50.3	
기타 회전기기	4,263	132.2	2,541	-40.4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수 출	4.6	•••		21	104	180	197
수 입	6.8			150	109	120	168

자료원: KOTIS

6. 투자유망분야

상기 수출유망 품목의 생산과 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이 유망하고, 관광, 스포츠 및 오락부문도 유망하다.

1998년말 누계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는 7,055건, 27억8천만불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식품공업이 전체 투자의 21%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유통업(15.8%), 건설 및 금속가공(12.7%), 금융 (7.1%), 화학(4.4%) 순이다.

1999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총투자는 8건에 1억 9천 9백만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대우의 자동차 생산 JV설립)이 1건에 1억 5천만불, 무역업이 4건에 758만불, 기타가 3 건에 412만불이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유통 및 판매 채널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상당한 유통기회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의 상업 인프라는 부분적으로 발전하였지만 1991년 독립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고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신흥시장의특징인 예기치 못한 무수한 장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 당시에는, 서구에서와 같은 유통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조업체, 중개업체 및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있었다. 계획경제시스템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방향을 지정해주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는 공급과 유통망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고 많은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은 기초 생필 품의 부족과 텅빈 진열장을 경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민간 기업활 동의 시작과 시장 지향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의 생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광할한 국토와 인구의 산만한 분포(우크라이나 최대 3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로 인하여 살아 있는, 믿을만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pple, Rank Xerox 그리고 Procter 등과 같이 주요 외국업체들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강력한 판매 및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으며 잠재적인 시장점유 확대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반면, 중소업체들은 화물운송 포워더들을 활용해 자사제품을 분배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경우, 가장 저렴하고 믿을만한 운송수단은 선박이다. 우크라이나에는 오뎃사, 일리체브스크 그리고 마리우폴과 같은 18개의 항구가 있다. 우크라이나로의 컨테이너 운송은 1994년과 1995년간 배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하는 물량에 대응하여 항만설비의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SeaLand(미국) 및 Maersk(덴마크)와 같은 저명한 선박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화물운송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며 또한 비싼 운송방법은 도로운송(트럭)이다. Ukrtrans(우크라이나)와 Corstjens(네델란드) 사는 우크라이나 거주 외국업체 및 외교관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도로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요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열악한 도로사정과 안전문제 때문에 트럭운송요금은 무게 보다는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성향이 있다. 때문에 미국 텍사스주 크기만한 우크라이나는 운송비가 상당히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신용할만한 파트너가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효율적인 유통 및 판매 채널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의 국영, 반국영 및 민간

기업들은 전국적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는 Ukrimpex, Trade House 등이 포함된다.

에이전트와 유통업체의 이용;파트너의 물색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 기업에대한 입수가능한 정보의 질과 양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유통업체를 선정하기위한 기본 데이터와 신용관계 정보가 부족하다. 한국기업들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주의깊게 조사해야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하다.

취급 품목의 일치성: 많은 우크라이나 업체들은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유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더많이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일수록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셀룰라폰 등과 같이 특정 상품에 전문화된 기업들은에이전트 또는 유통협력 업체 관계를 설정하기에 더 좋은 후보자가될 것이다.

작은 규모로 100% 선불형태로 시작: 우크라이나 에이전트/유통업체들은 종종 단기간내에 다량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다.

지역 안배: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유통 중심지이지만 유일한 도시는 아니다. 리보브, 오뎃사, 자포리쥐에,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하리꼬브와 같은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유통능력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를 찾아라

일반적으로 외국시장에서, 현지 파트너 또는 사무소는 본국에서 간과하기 쉬운 가치있는 현지 시장정보를 포착.제공할 수 있다. 현지 사무소는 비즈니스정보망의 발달이 아직 덜 이루어진 특히 신흥시장에서 매우 유용하다. 물론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바에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유능한 파트너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또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국가가 여전히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선 주파수 배정부터 건설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성가신 관료사회는 해 당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정부와 강력한 유대관 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를 선정할 경우 관료사회의 많은 방해 또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된다.

프래차이징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프랜차이징 비즈니스를 찾아볼 수 없다.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

직접 마케팅은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이다. 우크라이나내에서 직접 마케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는 거의 모든 거래가 현찰거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마케팅 활동 자료들을 상세하게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해야한다.

현재 자동판매기, 우편주문, 체인점 및 직접 소매(direct retailing) 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제품을 판매하는 가장 보편적인 관행은 큰 백화점, 키오스크와 재래시장을 통하는 것이다.

자본재 판매는 주로 유통업체의 창고, 전시회 및 박람회 그리고 카다로그(가격표 포함)의 최종소비자에대한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이루어진다. 자본재 시장은 대부분의 경우 외국 공급업자의 신용제공에 많이 의존하며, 때로는 바터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임대차 또는 합작기업의 자본금 납부 형태도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기법증의 하나이다.

마케팅시 고려사항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에 앞서,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상반된 두가지 견해가 우크라이나 소비자의 뇌리에 박혀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은 서방 수입상품에대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여주 고 있는데 이는 수년간에 걸친 상품 부족현상과 서방 제품의 매력 적인 포장 및 광고에 기인한다. 두 번째로, 반대로 우크라이나 소비 자들은 자국산 제품이 좀더 믿을만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친숙해 져 있는 상표, 외국 언어를 몰라도 된다는 점 그리고 수입 상품중에 는 원산지의 위조와 저급제품이 많이 썩여 있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상표에 친숙해져 있지 않은 일반 우크라이나 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광고활동이 필요하다. 특정 제품에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우크라이나어 표기 설명서와 품질보증과 A/S로 확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은 아시아 또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생산된 서구 브랜드 제품들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한국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요인중의 하나는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의 정확한 선택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파 트너와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원한다면 사업 초기단계부터 우크라 이나 파트너로 하여금 가능한한 많이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미리 조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비지니스는 고이윤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점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우크라이나 파트너가 다수의 간접비용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상업적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발전과정에 있는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서방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매정책을 적용하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진출전략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이다.

유럽 지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높은 유럽시장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사를 통해 영업하는 것은 종종 불필요한 중간단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내에 사무소를 두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소규모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직원훈련을위한 대규모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신용제공 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기업들의 파이낸싱 능력은 현지의 높은 이 자율, 은행들의 단기자금 대부 선호 등으로 매우 제한받고 있다.

광고 및 판촉활동

구소련 당시 초기기 방문자들은 단순한 "광고"에 매우 놀라기도 했다. 상점들은 단지 "우유", "빵",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표지만으로 구분되었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경쟁이 없었고 심지어 시장은 공급자 중심이었고, 광고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다.

이 결과는 한국 기업들의 광고를 통한 시장진입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500여개의 광고업체들이 있으나 일부만이 서구 기업들이 익숙해져있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TV광고는 현재 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신문광고도 상당히 선호되고 있는데,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중 절반가량이 광고로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상업방송은 아직 태아기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눈에띄는 프로그램과 디스크 제키 등과같은 광고주를 끌수 있는 상업적 요인들을 빠르게 인지해나가고 있다.

초기 소비자 교육, 상대적으로 새로운 서구형 광고방식의 전개 등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천성적으로 조심스러운데, 소비자를 연속적으로 타격하는 현혹적인 광고들에대해 회의적이다. 한편 "구전효과" 광고와 특정 제품 혹은 서비스에대한 강력한 인지도를 획득하는 것은 개발도상 시장에 있어 핵심사항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경쟁적인 가격과 품질보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996년 7월 3일 의회는 신광고법을 제정하였다. 이에따르면 저작권, 상표권 기준을 설정하였고, 인쇄물 혹은 전자 매체를 통한 모든 종류의 광고에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법은 소방장비, 의약품 및 설비, 금융 서비스, 주류 및 담배제품의 광고에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주류와 담배의 경우 TV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었고, 인쇄물의 경우 제1면과 마지막면에는 광고를 개재할 수 없게 되었다.

가격정책

현재 높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로 인해 수입상품의 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서구 제품의 공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표 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재에대한 국가지 정 가격관리는 없는 상태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소비재시장은 터키, 중국, 중동 및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반입되는 저급품이 범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인들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고품질 제품을 구매코자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 다.

가격을 결정할 때 한국 공급업체는 우크라이나의 평균 월급여는 87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과 상거래에 종사하면서 고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일부 서구업체들은 자사제품을 우크라이나 유통업체나 딜러를 통하는 것보다 자사 전문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가격을 결정할 때, 한국업체들은 최종 소비자의 지역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해야한다. 수입상품 수요는 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크며, 45세 이하와 45세 이상 계층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연령별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 화장품, 캔디, 보석, 가정용품과 전자제품의 구매에서 나타난다. 한편 수입품 수요는 교육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고학력층일수록 수요가 더 크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의류, 신발과 전자제품에서 특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가정용품, 자동차, 어린이 용품, 화장용품에 있어서는 수요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수입상품에대한 수요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수요가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자동차, 의약품, 가정용품, 의류, 신발과조제식품들이다. 의류는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반면, 가정용품과 전자제품은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조제식품과 의약품은 서구 우크라이나, 화장용품은 동부 우크라이나, 어린이 용품은 중부 및 서부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정부조달시장 진출

정부의 대형 구매사업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 경우 두가지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첫째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규모 구매를 하기위한 재원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우크라이나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기위한 다양한 World Bank와 EBRD6)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망하다. 둘째로, 우크라이나 관료사회의 "의사결정 포인트"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힘겨운 과제이다.

^{6).} EBRD는 1998년 3개의 프로젝트를 숭인했는데, 이는 중소은행지원(75.7 백만불), 자포리쥐야 수자원 개발(25.7백만불) 및 라디슨 호텔건설 (13.6백만불)이다.

World Bank, EBRD와 같은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부처가 사용할 물품 및 서비스 구매입찰을 조직하고 있다. 입찰대행기관이 서방업체일 경우 구매 관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최종시한이 공표되며, 입찰조건이 명확해지며 때로는 서방 참관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보호

우크라이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정비해왔다. 1993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발명특허권, 신안모델권, 산업 디자인, 종묘와육모 등과 관련된 법령을 효력발생 시켰고, 상표권, 저작권, 정보와공정 경쟁에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는 파리협약 및 마드리드 협약의 참가국이며 지적재산권 협력조약, 만국 저작권 협약 그리고 베르네 도서예술품 보호협약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가입한 모든 국제 협약은 국내 법률의 일부를 구성하며, 자국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다.

우크라이나는 상업비밀의 침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은 불공정 경쟁을 수반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3개 기관이 있다. 이는 국가저작권 청(문학 및 예술품), 국가특허청(산업 재산권) 그리고 반독점위원회이다. 현행 지적재산권 법령의 집행은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90%는 불법 복제품이다.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변호사 활용

한국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과정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취약한 상업환경과 법률 인프라를 고려할 때 특히 투자를 앞두고는 믿을만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야하며, 변화가 극심한 법규를 예의 주시해야한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우크라이나의 국가코드는 380번이고, 키예프 도시코드는 44번, 하리코프는 572번, 르보프는 32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우크라이나 소재 한국기관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주소: 43, Volodymyrska St.. 252034, Kiev, Ukraine

전화: 246-3759/61 팩스: 246-3757

E-mail: rokemb@gu.kiev.ua

KOTRA 키예프 무역관(대사관 상무관실)

주소: 43, Vladimirska St., Kiev, Ukraine

전화: 246-5528, 3759, 3760 팩스: 246-3757, 5528

E-MAIL: kotraiev@gu.kiev.ua

한국소재 우크라이나 기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137-072)

전화: 578-6910 팩스: 578-5514

주요 정부 부처

대외경제관계부

주소: Lviska Square, 8 Kyiv, Ukraine 254655

전화: 226-2733 팩스: 212-4409

경제부

주소: 12/2 vul. M. Grushevskogo Kyiv, Ukraine 252008

전화: 226-2315 팩스: 226-3181

재무부

주소: 12/2 vul. M. Grushevskogo Kyiv, Ukraine 252008

전화: 226-2044 팩스: 283-3243

기계.방위산업.민수화부

주소: vul. Pushkinskaya, 6 Kyiv, Ukraine 252034

전화: 229-0390 팩스: 291-5153

환경보호핵안전부

주소: vul. Khreschatyk, 5 Kyiv, Ukraine 252001

전화: 226-2428 팩스: 229-8383

산업부

주소: vul. Maryny Raskovoi, 15 Kyiv, Ukraine 252167

전화: 226-2623 팩스: 227-4104

중앙은행

Institutska Street, 9 Kyiv, Ukraine 전화: 293-5973 팩스: 293-1698

국가자산기금

주소: 18/9 Kutuzov Street Kyiv, Ukraine 252133

전화: 295-1274 팩스: 296-6984

국가재건개발청

주소: 19A Bohdana Khmelnytskoho vul. Kyiv, Ukraine

252030

전화: 224-7175 팩스: 224-7312

국가표준화위워회

주소: vul. Lypska, 10 Kyiv, Ukraine 252021

전화: 226-2971 팩스: 226-2970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Polytechnicheskiy per., 4-A Kyiv, Ukraine 252055

전화: 446-9241 팩스: 446-5186

유관 기관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주소: vul. Velyka Zhytomyrska Kyiv-25, Ukraine 254655

전화: 212-2911 팩스: 212-3353

나. 여행 안내

비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초청장이 있어야한다. 비자기간은 초청장에 명기되어 있는 체류기간에 좌우되며, 1996.2.1일부로 공항 및 국경에서의 비자발급은 금지되었다. 비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외무부를 접촉해야한다. 입국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거주지 경찰국에 여권(비자)을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에는 출국 및 비자기간 연장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국인이 호텔에 체류할 경우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며, 3일 미만 체류 외국인은 여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호텔

키예프시에는 서구형 호텔이 상당수 존재하며 호텔 요금은 천차만 별이다. 따라서 도착전에 호텔 요금 등은 체크하여야한다. 한편 아파트를 1일,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도 있다. 우크라이나 표준전압은 220 볼트이며, 코드는 길쭉한 2가닥으로 우리나라와 다르다.

통신

지난 수년간 통신망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국제전화와 무선통 신분야가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호텔이나 공항에서 국제전화 가 가능하다.

치안

우크라이나의 치안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외국인이 범죄의 대상이되는 경향이 많은데 범죄자들은 서구 레스토랑, 주점 근처 또는 아파트 근처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 외국 방문객은 지나친 현찰소지를 피하고, 신분증 등 서류의 분실에 대비하여 복사본을 준비해두어야한다.

환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현찰결제 경제시스템이다.신용카드는 호텔이나 서구 레스토랑에서 일부 취급되기 시작한 상태이다. 현금지출에 대 비하여 5불, 10불, 20불의 소액권을 준비해 두어야하며 지폐의 보 관상태가 좋은 것이어야한다. 환전소는 호텔 및 서구형 슈퍼마켓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환전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피하는 것이 좋다.

물품의 임시통관

전시용 샘플의 임시통관이 가능하며 세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반출되어야한다. 임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세관신고서, 해당부처의 허가증(필요시) 및 세관신고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타 서류이다. 임시통관 수속비용은 1개 세관신고서당 30불이다. 수량이 많아 신고서 1페이지를 추가할 경우 추가하는 페이지당 15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임시통관된 제품은 수입관세, 부가가치세(20%) 및 소비세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수 없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1월 7일 성탄절

3월 8일 여성의 날

4월 20일 부활절(슬라브 정교)

5월 1-2일 노동절

5월 9일 승전기념일

6월 7일 삼위일체신 축일(슬라브 정교)

6월 28일 제헌절 8월 24-25일 독립기념일

11월 7일 10월혁명 기념일

벨라루스(Belarus)

수 도: 민스크

(170만명)

면 적: 207천 k㎡ 인구밀도: 49.2명/k㎡ 인 구: 1,023만명화폐단위: 벨라루스 루블 (1993.7월 도입)

252,000BRI =\$1

(1999.6.6)

접경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주요하천: 드네프르江 (자국내 통과길이 700

km)

주요호수: 나로흐浩(79.6 km²) 평균기온: 1월 -9℃ 7월 17℃

시 차: KST-6시간

1. 개관

207천㎢ 면적의 벨라루스는 유럽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로 둘러싸여 있다. 기후 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성기후의 중간지대로써 추운 겨울과 서늘하 지만 습기가 많은 여름을 보이고 있으며, 대채로 평탄한 지형이다.

1991년 7월 최고소비에트(의회)는 독립을 선포했으며, 이어 1991년 8월 25일 독립주권국가로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함께 1991년 12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결성했다.

벨라루스는 석유와 가스의 생산이 극히 미미하여 대부분을 드루쥐바 석유 파이프라인과 북쪽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연료 공급에 의지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벨라루스는 구소련 공화국중 상대적으로 발달된 국가로써 현대적 건물과 강한 농업분야를 갖고 있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CIS 국가들 보다 늦게 개혁에 착수했으며, 사유화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 다. 아직까지 국가주문과 분배 시스템은 상당부문 남아 있다. 1994 년 정부는 국가보조금 축소를 위한 초긴축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인 플레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지만, 큰 폭의 산업생산 감소를 겪었다.

1994년 7월 당선된 알렉산더 루카쉔코 대통령은 모스크바와의 관계 복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연방체 형태의 단일국가 구성을 추진 중이다. 1996년 4월 연방체 형성에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국영기업 민영화 등 의욕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는 벨로루스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의회권한 축소로 인한 의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정치가 다소 불안한 실정이다.

구소련 당시의 산업분업체제가 와해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시장을 상실하여 수요처를 잃었으나, 러시아와 관세동맹 창설 및 단일국가 창설로 나아가면서 막대한 러시아 시장을 중심으로한 구소련시장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급격한 생산감소를 겪었으나, 1996년 이후 성장세로 반전되어 10%대에 근접하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39.2	36.1	37.9	42.5	42.1
GDP 성장	%	-12.6	-10.1	2.6	10.0	8.3
인플레률	%	2,221	709	53	64	70
인 구	백만명	10.31	10.28	10.25	10.22	10.22
수 출	\$백만	2,510	4,689	5,790	7,383	7,016
수 입	\$백만	3,066	5,466	6,939	8,718	8,509
외환보유고	\$백만	101.0	377.0	469.2	393.7	696.2
환 율	BRb/\$1	2.12	2.53	2.61	4.53	4,767

자료원: EIU

91년 구소련 공화국들의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GDP의 2.2%에 해당하는 16억루블의 흑자예산을 기록했으나, 92년 들어서는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은 적자로 반전되었고,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국가보조금 축소,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의 세법도입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벨라루스 경제의 중추는 공화국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공업 분야로 기계제작과 철강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다음 세계 3위의 트랙터 생산국으로 구소련시절에 벨라루스는 대형 화물차와 오토바이 생산의 20%를 점유하여 주요한 운송차량 생산지였다.

벨라루스의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31.4	24.9	23.7	26.1	23.5
경유	천톤	3,053	3,465	3,170	3,115	3,318
화학비료	천톤	2,981	3,349	3,381	3,873	4,140
화학섬유	천톤	217	210	181	199	196
공작기계	천대	15.7	4.6	4.5	4.8	5.3
칼라 TV	천대	347	175	221	351	374
냉장고	천대	742	746	754	795	802
직물	백만m²	56.2	111.4	102.6	108.4	114.5
곡물	천톤	6,095	5,502	5,792	6,420	4,830
육류	천톤	1,138	995	937	941	990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농업은 CIS 여타 공화국에 비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노동인구의 19%가 종사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구소련 붕괴후 여타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생산감소를 겪었으나, '96년들어 농업생산의 효율화와 비료사용 증가로 곡물생산이 증가하였다.

광물자원의 경우 70% 이상을 구소련 공화국들 특히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연료에너지 가격인상에 따라 외환부족 등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3. 투자환경

벨라루스는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취약하고 정부의 경제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투자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따라 서 투자자들은 벨라루스내 비즈니스 기회를 물색하기 이전에 잠재 적인 위험 요인들을 완전히 숙지해야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벨라루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외환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벨라루스 정부에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 1997년 11월 대통령 령에따르면, 정부가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소위 골든주) 또한 이윤창출 실패 등광범위한 요인들에 근거하여 기업활동의 폐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특별한 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찰에 있어 자국업체의 제시 가격이 경쟁 외국업체보다 15% 이상 비싸더라도 자국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기 쉽다. 외국 투자업체에 대한 특별한 감시체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 보험 및 증권거래소 등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은 50% 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조세제도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무역 및 투자에 적용되는 세금이 상당부분 유사한 면이 있다. 부가가치세, 이윤세, 소비세 및 개인소득세는 벨라루스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인데, 상당수 품목들의 수입관세는 20% 인상되어 러시아와 동등하게 되었다.

벨라루스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는 20여 종류의 세금을 내야한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20%), 소비세(10-75%), 기업 이윤세(30%), 에너지세(10-20%), 재산세(1%) 및 사회보장세(40.85) 등이 있다.

사유화/국유화

사유화에 있어 외국 투자자에대한 특별한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식료품점, 신발수리소, 카페 등과 같은 소규모 자산의 사유화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관심을 갖는 외국 투자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투자업체를 국유화한 사례는 몇건 있는데, 그 명분은 회사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액면가격 기준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외국투자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화

벨라루스에는 달러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식환율과의 격차는 3배에 달한다. 벨라루스 루블을 달러화로 환전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암시장에서 환전하거나 인근국가(러시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등)로 현지화를 갖고 나가서 환전해 오기도 한다. 그러나 1998년 6월 정부령에 따라 벨라루스 루블화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었고, 모든 외환거래는 공식환율을 통해 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분쟁해결

벨라루스에는 상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입법부의 독립성이 극히 취약한 상태로써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국세청은 투자자의 은행자금을 동결시킬 수도 있다.

벨라루스는 뉴욕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재상사중재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상사중재원의 결정을 수락할지는 여 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투자 인센티브/저해요인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은 조세,관세상의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벨라루스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획득한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시점에서 3년간 조세가 면제된다. 또한 `극히 중요한' 물품을생산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추가로 3년간 조세를 50% 감면받을 수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법령의 잦은 개폐, 자의적인 해석 및 법령간의 상호 불일치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일례로 벨라루스 정부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3월 대부분의 식료품과 소비재에 대해 가격통제를 실시하였는데 가격 인상을 월 2% 이내로 제한한 적이 있다. 또한 통관문제는 가장 골치아픈 문제거리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비자, 노동허가 등에 있어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는 자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대한 공식적인 차별은 없으나, 실제 세무사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벨라루스는 각종 지적재산권 보호 협약에 가입해 있지만 실제로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디오, 오디오, 인쇄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대한 불법 복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금융시장

벨라루스는 여전히 현찰경제이다. 현대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증권투자 등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현지의 높은 이자율(연간 35% 정도)로 인해 현지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어려우며, 은행시스템은 취약한 상태이다.

부정부패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각종 법규를 정비했지만,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은 아닌 것으로 투자자들은 밝히고 있다. 뇌물을 수수할 경우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뇌물제공 문제로 입건된 외국인 투자자는 없다.

노동시장

벨라루스는 숙련되고, 잘 교육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서방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노동법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큰 장애요인은 아니다. 국영업체들은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인원 축소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자유경제지대

1996년 4월 대통령령으로 폴란드 접경 브레스트 지역이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후 민스크와 고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자유경제지대내에서는 조세법규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투자환경이 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한 이윤을 획득한투자자는 없는 형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한 이윤을 획득하게될 경우 정부가 그대로 놓아둘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4. 수입관리제도

모든 수출입 거래는 계약서가 체결된 후에 시작된다. 1997년 10월 28일 벨라루스 정부는 모든 수입 계약서를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 하도록하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계약 등록제도는 정부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모든 수출 활동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예를들어 자기가 경작한 농 산물을 수출코자하는 농부는 지방 행정부에 승인을 신청해야하는데, 자기가 경작한 농산물임을 입증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품목의 경우 국가의 독점수입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시민의 보건권한에 관하여"라는 령에 따라모든 의약품의 수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국가독점체제가 성립되었다.현재 식품류의 수출입에대한 국가독점체제 도입문제가 검토중에 있다.

수입계약은 대외경제관계부 무역국에 등록된다. 수입업체는 최저월 급여의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 계약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서류 제출후 10일 이내에

등록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15일까지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환의 송금 이전에 이 거래 계약이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등록증명은 세관수속에서도 필요하다.

1995년 2월 8일자 대통령령 "대외무역관련 법규 위반의 처벌 강화 및 수출입 규정에 관하여"에 의해, 수출시 선적후 60일 이내에 외환이 송금되어와야하며, 수입시에는 60일 이상의 선불이 금지되었다. 또한 모든 수출업체는 획득 외환의 30%를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서 금액의 20%에서 10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수입관세

벨라루스의 수입관세는 0%에서 30%까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를 부과하여 언더벨류에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고 있다. 품목분류는 HS 코드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수출확대 가능품목)에대한 수입관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명	수입관세
인스턴트 커피 음료수 폴리에스테르직물 남자용 셔츠 여자용 브라우스 보일러 공기조절기	10% 25%, 0.06ecu/liter 30% 30%, 5ecu/kg 30%, 5ecu/kg 15% 20%

VTR	20%
칼라 TV	30%, 80ecu/unit
버스	10%
소형 승용차	30%
덤프 화물차	5%

5. 수출유망품목

벨라루스의 수입품목구조(`98)를 보면 광산물이 전체 수입의 24.8%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계류(24.4%), 화학공업제품 (15.2%), 철강제품(12.6%), 식료품(11.4%) 그리고 섬유제품 (5.9%) 순이다.

벨라루스는 CIS 공화국들중 우리나라와 가장 산업구조가 비슷한 국가이다. 따라서 벨라루스 경제가 호전되면 벨라루스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CIS시장에서 한국상품은 벨라루스 상품과 경쟁을 벌이게 될것으로 보인다.

식품류 및 식품기계

벨라루스는 1998년 작황이 좋지않아 상당량의 곡물(주로 밀)을 수입하게 되었으며, 식료품의 대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들어 통조림의 경우 벨라루스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91년 104개에 달했는데, 1998년에는 단지 16개를 소비했을뿐이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 통조림의 수요는 크게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통조림의 생산은 1991년 대비51% 감소한 상태이다.

벨라루스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

품목명	1995	1996	1997	1998
총계	100.0	100.0	100.0	100.0
기계류 및 수송기계	19.2	18.9	21.5	24.4
광산물	35.7	30.8	27.7	24.8
금속 및 귀금속제품	9.9	11.8	12.7	12.6
화학공업제품	16.2	16.4	16.9	15.2
목재 및 종이제품	1.9	2.2	2.4	3.2
섬유제품	3.0	3.3	3.5	5.9
피혁.모피제품	0.5	0.5	0.5	_
식품류 및 농산물	11.5	13.1	12.9	11.4
기타	2.1	3.0	1.9	2.7

자료원: 日本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주) 1998년 실적은 1-11월 기준

벨라루스 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음료, 주류 등 각종 식품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설비는 주로 수입품을 사용한다고 한다. 일례로 1998년 맥주 생산은 전년대비 8% 증가했고, 당과류 생산은 16% 증가했는데, 이는 신수입 설비를 사용한 공장들에 의한 것이었다.

벨라루스의 설탕원료 수입은 크게 증가(1998년 30만톤)하고 있는데,이는 4개 설탕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설탕 공급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나, 정부가 가격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V 등 가전제품

벨라루스는 TV와 세탁기, 냉장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크게 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TV 등 가전제품의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합작으로 TV 생산확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등 자동차

승용차는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최대 수출품목이다. 벨라루스는 트랙터, 트럭 등 부문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승용차부문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따라서 승용차와 버스 시장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벨라루스는 1999년 3월 개인 사용용도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이전의 수량제한을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혹은 친구가 국외로 나가서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게되었다.

통신설비

벨라루스의 통신망은 여타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되어있어 통신망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날로그형 교환기를 디지털형으로 교환하는 시장은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광섬유통신망으로 인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폴란드와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1998년 시작된 벨라루스-러시아간의 광섬유 통신망은 지난 1999년 4월 15일 개통되기도 했다.

한편 벨라루스는 향후 3년간 75백만불을 투자하여 GSM 방식의 무선전화망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1999년 4월 민스크시에 첫 통신망이 선을 보였는데 이는 벨라루스의 유일한 무선통신회사인 Belsel에 의한 것이다. 통신장비 공급입찰에서는 스위스 에릭슨사가 낙찰자로 선정된바 있다.

화학공업제품(의약품)

벨라루스는 대부분의 석유 및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정유공장이 발달되어 있어 많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998년 석유화학제품은 전체 수출의 22%를 점유했고, 44%가 비CIS 국가로의 수출이었다.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	9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952	-33.6	11,839	-0.9
승용차	1,800	2.7	4,033	124.0
폴리에스텔직물	2,353	33.2	3,196	35.8
냉장고	259	353.4	693	167.5
아크릴단섬유직물	387	13.4	472	22.0
기타종이 및 판지	248	*	430	73.2
기타 계측기	1,410	256.5	412	-70.8
기타의 직물	481	*	407	-15.3
축전지	468	-58.5	334	-28.6
P/C직물	146	*	232	59.3
리드프레임	176	-46.0	225	28.0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한편 의약품 부문에서는 공급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벨라루스 산의 시장점유율은 1998년 말경 2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수요가 많은 아스피린과 같은 품목의 외환부족에따른 원재료 수입감소에따라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 현상은 상당기 간 지속되고, 이 틈새를 수입품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벨라루스는 300여종의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550여종의 의약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벨라루스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4.6	18	12	12	2.6
수 입	6.0	6	10	4	1.8

자료원: KOTIS

6. 투자진출 유망분야

1998년말 누계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EBRD 추정에따르면 3억 5천만불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64%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업(19%), 운송(3%), 통신(2%), 건설(2%), 농업(0.4%) 순이다.

제조업 부문에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큰 것은 벨라루스의 제조업이 구소련 공화국중 가장 잘 발달되어있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전자, 수송기계, 화학공업 등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뿐만아니라 러시아 등 CIS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7.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벨라루스 국가코드는 375번이고, 민스크 도시코드는 172번, 로예브는 2347번, 모길레브는 22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한국주재 벨라루스 기관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주소: 140-20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2 청화아파트

5-1005

전화: (02)798-9004 팩스: (02)798-9360

벨라루스 정부부처

농업식품부

주소: 220031, Minsk Ul. Kirova, 15

전화: 27-3751 팩스: 27-5388

대외경제관계부

주소: 220097, Belarus, Minsk, Kirova Ul., 15

전화: 20-6350 팩스: 27-3924

통신정보기술부

주소: 220050, Minsk Prospekt F. Skoriny, 10

팩스: 26-0848

건설부

주소: 220050, Minsk Ul. K. Marxa, 3

전화: 27-2422

문화부

주소: 220010, Minsk Ul. Sovetskaya, 9

팩스: 20-9125

국방부

주소: 220003, Minsk Ul. Kommunisticheskaya, 1

전화: 33-0352, 27-3671

경제부

주소: 220000, Minsk 10 Sovetskaya St.

팩스: 29-6944

연료에너지부

주소: 220677, Minsk Ul. K. Marxa, 14

팩스: 29-8468

재무부

주소: 220010, Minsk Ul. Sovetskaya, 11

팩스: 29-6640

외무부

주소: 220030, Minsk Ul. Lenina, 19

팩스: 27-4521

임업부

주소: 220039, Minsk Ul. Chkalova, 6

팩스: 24-4183

보건부

주소: 220010, Minsk Ul. Myasnikova, 39 House of

Government

팩스: 29-6297

주택공공서비스부

주소: 220640, Minsk Ul. Bersona, 16

팩스: 20-0297

법무부

주소: 220084, Minsk Ul. Kollektornaya, 10

팩스: 20-9684

천연자원환경부

주소: 220855, Minsk Ul. Kazintsa, 4

팩스: 26-0084

국가자산사유화부

주소: 220010, Minsk Ul. Myasnikova, 39

전화: 76-8178, 20-5260

교통부

주소: 220612, Minsk Ul. Lenina, 17

전화: 27-1642 팩스: 27-1981

산업부

주소: 220033 Minsk Partizansky Prospekt 2/4

전화: 20-6137 팩스: 27-3924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220029, Minsk Kommunisticheskaya ul, 11

전화: 33-2316 팩스: 34-6893

벨라루스 유관기관

벨라루스 상공회의소

주소: 220600, Minsk, Prospekt Masherova, 14

전화: 26-9937 팩스: 26-9860

벨라루스 과학산업협회

주소: 220030, Minsk, Ul. Lenina, 19

전화: 27-5583 팩스: 27-1529

벨라루스 무역협회

주소: 220048 Belarus, Minsk, Kollektornaya Ul., 10

전화: 20-8188 팩스: 20-9470

벨라루스 중앙은행

주소: 220008 Minsk, 20 F. Skorina Ave

팩스: 27-4479, 27-0946, 27-6431 팩스: 27-6431

벨라루스 산업가연맹

주소: 220050, Minsk, Ul. Internatsionalnaya, 13

전화: 27-1483 팩스: 27-1596

나. 여행 안내

비자

벨라루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초청장 또는 호텔 예약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관광비자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비즈니스 비자는 90일까지, 개인초청에의한 비자는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에는 방문하고자하는 도시를 모두 명기해야한다. 개인이 초청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데는 3개월 가까이 수속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것이 못된다. 비자 유효기간(체류기간)은 출입국 앞뒤로 넉넉하게 잡는 것이좋다.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AIDS 증명을 제출해야한다.

통화

벨라루스 루블이 법정 통화이다. 환전은 공항, 환전소, 호텔 또는 은

행에서 가능하다. 일부 상업은행들은 비자, 마스타, 아메리칸 익스프 레스 및 유로카드를 받고 현금을 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일부 슈퍼마켓과 대형 호텔에서만 가능하다.

교통

택시는 24시간 영업하며 1km당 요금은 25센트 수준이다. 버스, 트롤레이 버스 및 무궤도 전차의 경우 1회 승차 요금이 7센트이다. 차표없이 승차한 것이 걸릴 때 벌금은 3불 수준이다. 차표는 정차시 버스 운전수나 "소유즈페차츠" 신문 가판대, 지하철 표판매소 등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은 아침 6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공휴일

신정 1월 1일 1월 7일 성탄절(러시아 정교)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15일 제허절 4월 13일 부활절 4월 20일 부활절(러시아 정교) 4월 23일 라다우니카 5월 1일 노동절 5월 9일 승전기념일 7월 27일 독립기념일 11월 2일 전몰장병기념일 11월 7일 10월혁명 기념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몰도바(Moldova)

수 도: 키쉬뇨브 (70만명, 語義는 '양이

모이는 곳')

면 적: 33.8천 ㎢ 인구밀도: 127.4명/k㎡ 인 구: 365만명 화폐단위: 레이(Lei, 1992년 11월 도입)

11.88레이 = \$1(1999.6.6)

접경국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주요하천:

드니에스테르江 (630

km)

주요호수: 벨레우湖

 (6.26km^2)

평균기온: 1월-7.2℃ 7월 20.3℃

시 차: KST-6시간

1. 개관

몰도바는 구소련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내륙국가이다. 북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서쪽으로는 루마니아와 접하고 있다. 몰도바는 구소련 공화국중 두번째로 작은 국가로서 면적은 33.7천㎢에 불과하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인구의 대부분이 몰도바인(루마니아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 가가우지(터키)족이 소수를 이루고 있다.

몰도바의 역사는 잦은 이민족의 침입과 국경의 변경으로 특징지워진다. 몰도바의 현재 국경은 1947년에 결정되었는데, 당시 구소련이 루마니아로부터 획득한 지역인데, 우크라이나에 귀속되어 있던드니에스테르강 서부지역의 자치공화국과 합쳐져서 몰도바가 형성되었다. 몰도바는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다.

몰도바는 완만한 경사 지대로써 흑해까지 이르는 하운이 잘 발달되어 있다. 비옥한 흑토지대가 국토의 3/4을 점유하고 있어, 구소련 공화국중 농산물 생산이 풍족한 지역중의 하나였다. 몰도바의 완만한 대륙성기후는 따뜻한 여름과 서늘한 겨울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 강수량이 풍족한 편이어서 관개수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여름에 내리는 집중호우는 종종 강의 범람을 가져오기도 했다.

몰도바는 광산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일, 채소, 포도주와 담배를 생산했다. 몰도바는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이후 야기된 에너지 부족은 산업생산 감소를 촉진하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몰도바 정부는 야심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개혁정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화폐를 도입하고, 가격자유화를 단행했으며, 국영기업체에대한 특혜융자를 중단하였 고, 사유화를 실행하였다. 한편 수출통제를 폐지하였고 이자율을 자유화시켰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1994년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농민당이 총 104석중 5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되었으나, 1995년 당지도층간의 불화가 발생, 스네구르 대통령과 루친스취 의회의장이 각각 신당을 민들어 탈당함으로써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에따라 제2당인 몰도바 사회주의자 연합과 연정을 이루고 있다. 의회와 대통령간의 갈등 등 내부적인 진통을 겪었는데, 1996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페트루 루친스취가 당선되어 현 정권을 이끌고 있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7.3	7.3	6.9	7.1	5.9
GDP 성장	%	-30.9	-1.9	-8.0	1.3	-8.6
인플레률	%	486.4	29.9	23.5	11.8	7.7
인 구	백만명	4.35	4.35	4.33	4.31	4.30
수 출	\$백만	619	739	823	890	633
수 입	\$백만	672	809	1,075	1,235	1,024
외환보유고	\$백만	179.9	239.8	313.6	366.0	150.0
환 율	lei/\$1	4.27	4.50	4.61	4.62	5.37

자료원: EIU

1991년 몰도바는 독립을 선언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의 건설을 선택했다. 현재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

한 1단계 작업은 종료한 상태이다. 그 결과 자국화폐는 안정화되었고 인플레와 은행 이자율은 인하되었으며, 국가 재정적자는 축소되었고 공공자산의 대규모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은 확대되고 다양한 농업기업들이 등장했다. 개혁을 촉진하기위한 각종법률정비도 뒤따르고 있다.

경제의 주요 부문들은 농업 및 식품가공(산업생산의 56.5% 점유), 에너지(7.5%), 기계 및 철강산업(13.9%), 경공업(4.8%), 건설자재(4.5%), 축산업(4.5%), 그리고 임업(3.3%)이다. 대부분의 경제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농업, 경공업, 운송및 통신분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이 1%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에너지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소련 붕괴후 에너지 수출국들이 가격을 대폭 인 상하였을 뿐아니라 경화로의 대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에너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대규모 개혁, 기업구조조정과 사유화의 결과 몰도바 경제는 위기상 황을 벗어나 현재는 경제성장을 달성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의 민족분쟁⁷⁾ 해결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이 지역의 분리독립운동을 여하이 진정시키는가하는 것은 정국안정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7).}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선포시 동 지역 분리주의자 들은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무력충돌이 발생한바 있다. 1992년 7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에 의한 평화 유지군 창설과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재통합될 경우 이 지역은 자체 의사결정에 따른다 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3개국간에 체결됨으로써 무력충 돌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다.

몰도바의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8.2	1.2	1.4	1.5	1.2
시멘트	백만톤	0.04	0.05	0.04	0.1	0.1
직물	백만m²	0.5	0.6	0.7	0.6	0.6
TV	천대	106	47.3	31.0	18.9	2.0
세탁기	천대	80.8	49.2	53.6	46.1	43.5
곡물	천톤	1,754	2,668	1,921	3,277	•••
육류	천톤	153	136	131	127	•••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현행 법에따르면 일부 국영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대한 제한은 없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사유화에대한 외국인 참여도 가능하다. 1997년 7월 채택된 토지가격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경매를 통해 비농업용 토지를 임차하거나 구매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몰도바 외국인투자청에따르면, 1997년 1월 현재 등록된 외국기업은 915개이며, 산업별로는 전력가스(54%), 가공산업(25%), 무역유통 (14%), 금융(8.7%), 부동산(4.2%)이다. 주요 투자국은 러시아(55백만불), 미국(15백만불), 독일(14백만불) 순이다.

몰도바의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당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간 투자환경의 악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면제받는다.(43조1항)
- 외국투자는 국익이 관련되지 않는한 국유화 또는 징발될 수 없는

데, 이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한다.(39조2항)

- 각종 세금, 관세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한후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 송금할 권리를 보장받는다.(42조1항)
- 소득세 납부후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권리를 갖는다.(42호5항)

한편 25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5년간 50%의 세금감년 혜택을 받는다.

4. 수입관리제도

모든 수출입 거래는 자국화 또는 경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몰도바의 수입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20% 이하 이다. 수입관세 산정 기준금액에는 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CIF가격을 이용한다. 또한 수입시에는 20%의 부가가치세와 일부 사치품목의 경우 소비세를 납부해야하는데 10-80%에 달한다.

최근 단순화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목에대해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품목들은 선적전에 반드시 인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몰도바 규격인증국(MoldStandart)에서 발급받아야한다. 식품류의 경우 국립검역소(State Sanitary Inspectorate)의 위생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 진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서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면 검토후 몰 도바 규격에 적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도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검사 등 전체 절차를 걸친 후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5. 수출유망품목

몰도바의 수입품목구조(`98)를 보면 광산물과 연료가 전체 수입의 32.9%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계류(18.4%), 화학공업제품(11.8%), 철강제품(6.8%) 그리고 섬유류(5.3%) 순이다.

몰도바의 수입상품구조

품목명	19	96	1997		1998	
급득성	CIS	비CIS	CIS	申CIS	CIS	申CIS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식물제품	4.4	7.0	2.8	7.5	2.9	3.9
유지.식용유	0.1	0.6	0.0	0.8	0.0	0.5
조제식료품.음료	3.5	14.1	3.2	12.2	2.5	8.8
광산물	57.9	4.5	61.0	7.9	54.7	11.2
화학공업제품	7.3	15.2	8.1	17.7	9.1	14.5
목재 및 동 제품	6.1	5.7	5.2	6.5	7.2	6.0
섬유제품	2.2	10.3	1.9	8.8	2.1	8.5
비금속광물	5.9	2.9	5.2	3.6	5.5	3.0
기계류	6.1	27.7	5.9	20.3	8.4	28.4
수송기계	3.5	2.7	3.4	2.5	3.9	5.7
기구(시계.음향)	0.3	3.5	0.4	3.2	0.3	2.2
기 타	2.7	5.8	2.9	9.0	3.4	7.3

자료원: 일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공공부문과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금 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⁸⁾에대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8).} EBRD는 1998년중 3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이에는 치시나우 공항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건설자재

1998년 몰도바의 부동산 부문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사무실 면적의 수요가 급증하여 임차료는 20% 증가했다.(치시나우시의 중심가는 사무실의 임차료가 1 ㎡당 750불에서 1천불에 달한다) 상점, 바, 레스토랑, 창고, 자동차 수리소 등의 수요가 많고, 노후화된 아파트의 개보수 공사가 활발하여 건설자재류의 수출이 유망하다.

통신설비

몰도바는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노후화된 아날로 그형 전화시스템을 디지털형으로 교체하고, 광섬유 통신망을 건설하는 등 통신망 현대화 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화카드 사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수출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지난 1999년 3월 21일 그리스 통신설비회사 인트라콤은 몰도바 통신회사 몰드텔레콤과 턴키 베이스로 3천만불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광섬유시스템을 포함한 44천개의 새로운 디지털 회선을 18개월에 걸쳐 건설하는 것이다.

프랑스무선통신사와 몰도바무선통신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복스 텔은 몰도바내 7년간의 배타적인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1998년 10월 몰도바에 GSM-900방식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개시했고, 향후 65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화(7.7백만불), 몰도바 제철소(12.9백만불), 농업은행 지원(6.9백만불) 등이다.

발전설비

몰도바는 러시아 가스프롬에 수억불에 달하는 가스 공급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로써,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인근 우크라이나 및 루마니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부채상환 문제로 인해 전력공급을 종종 중단하기도 한다.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EBRD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부문 투자가 활발한데, 몰도바 정부(혹은 전문금융기관이 대행)가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알스톰과 SIIF에너지사는 몰도바 치니아우 근교의 부데스티 발전소 건설(300 메가와트 용량)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약 7천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몰도바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이: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0.3	1.1	1.6	2.3	0.3
수 입	0.1	0.1	0	0	0

자료원: KOTIS

사무자동화기기

몰도바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업무가 현대적 방식으로 바뀌면서 PC 등 사무자동화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예산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9가 많다. 한편 정부

^{9).} 미국 Hewlett Packard사는 몰도바의 885개 학교에 9,375대의 PC(2 천만불 규모)를 연리 6%, 5년간 대금결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바 있 다.

부처 및 유관기관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사용하여 전산 망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몰도바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급득 정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1,617	41.0	2,375	46.8	
승용차	0	-	329	-	
폴리에스텔직물	171	_	329	91.7	
기타의 직물	50	*	243	390.1	
칼라TV	136	-63.9	231	69.6	
나이론직물	44	-76.8	160	265.3	
P/C직물	82	11.9	103	25.6	
기타의 섬유제품	6	-23.9	94	*	
상용차	0	_	94	_	
기타종이 및 판지	15	291.7	89	494.9	
편직물	0	_	84	_	

자료워: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6. 투자진출 유망분야

1997년 10월 현재 몰도바에는 1,16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2억3천만불이다. 업종별로 보면 상업유통분 야가 52%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업(29%), 부동산(2%) 순 이다. 현재 루마니아 기업이 참여하여 하수 및 가스 시스템용 파이프 생산 공장이 팔레쉬티시에서 가동중이며, 독일 기업이 참가하여 사탕 무우 정제공장이 발치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EBRD의 자금 지원으로 3천만불에 달하는 치시나우 국제공항 현대화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상당한 외국자본이 식품가공산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병생산 공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농업분야로 특히 포도주 제조부문은 전략적 육성분야중의 하나인데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한다. 농업부문의 토지 사유화가 지체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몰도바 담배잎 생산수출 주요업체인 Diames사는 현재 연간 7,500톤의 생산능력을 55천톤으로 증가시키기위한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대규모 사유화 제1단계에서는 외국자본 참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유화가 진행중에 있다. 사유화 과정에서 많은 기업과 자산들이 외국인 투자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멘트 생산공장, 석고 추출, 세라믹 패널 생산, 콘크리트 생산, 의약품 생산, 샴페인과 와인병 생산, 사탕무우 가공 공장, 신발생산(조릴레 공장), 페인트 생산(파프로침 공장), 화장품 생산(비오리카 공장) 등이 외국인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7.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몰도바의 국가코드는 373번이고, 키시뇨브 도시코드는 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몰도바 정부부처

외무부

주소: 1. Piata Marii Adunari Nationale. Chisinau. 2033

전화: 22-39-40 팩스: 23-23-02

법무부

주소: 82. 31 August str. Cisinau. 2212

전화: 23-38-40 팩스: 23-47-97

국가등기소

주소: 73. Stefan cel Mare blvd. Chisinau. 2001

전화: 24-36-67

재무부

주소: 7. Cosmonautilor str. Chisinau. 2005

전화: 23-35-75 팩스: 22-86-10

경제개혁부

주소: 1. Piata Marii Adunari Nationale. Chisinau. 2033

전화: 23-32-67 팩스: 24-40-64

대외경제관계부

주소: 1. Piata Marii Adunari Nationale. Chisinau. 2033

전화: 23-35-18 팩스: 23-40-46

개발외국투자청

주소: 1. Piata Marii Adunari Nationale. Chisinau. 2033

전화: 23-36-56 팩스: 23-40-46

산업무역부

주소: 69. Stefan cel Mare blvd. Chisinau. 2001 전화: 23-35-56 팩스: 22-73-46; 22-24-73

농업식품부

주소: 162. Stefan cel Mare blvd. Chisinau. 2012

전화: 23-34-27 팩스: 23-23-68

사유화국가자산부

주소: 26. Puskin str. Chisinau. 2012 전화: 23-43-50 팩스: 23-43-36

관세청

주소: 65. Columna str. Chisinau. 2001

전화: 54-94-60 팩스: 26-30-61

통계청

주소: 24. Stefan cel Mare blvd. Chisinau. 2001

전화: 22-16-14 팩스: 26-11-19

몰도바 유관기관

몰도바 상공회의소

주소: 28 Eminescu Str. Chisinau, 277012

전화: 22-15-52 팩스: 23-38-10

몰드엑스포센타

주소: 1 Ghioceilor Str. Chisinau 208, Moldova

전화: 62-74-19 팩스: 62-74-20

나. 여행안내

비자

몰도바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비자발급시에는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및 초청장(또는 관광여행객의 경우호텔예약증)을 제출해야한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체류기간 및 비자종류에따라 40불에서 120불이며, 트랜지트 비자는 20불(1회), 40불(2회)이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1월	7일	성탄절(러시아 정교)
3월	8일	여성의 날
4월	20일	부활절
5월	1일	노동절
5월	9일	승전기념일
8월	27일	독립기념일
8월	31일	국어의 날

카자흐스탄(Kazakhstan)

수 도: 아스타나(30만명, 1997년 알마티에서 옮김) 구수도 알마티(110만명, 語義는 '사과 아버지')

면 적: 2,725천k㎡ 인구밀도: 5.7명/k㎡ 인 구: 1,549만명

화폐단위: 텐기(Tenge, 1993.11월 도입) 130.75텐기 = \$1(1999.6.6)

접경국가: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주요하천: 예르투스江(1,700km)

주요호수: 카스피해(374천㎢), 아랄해(46.6천㎢),

발트하쉬호(18.2천k㎡)

평균기온: 1월 -18℃ 7월 22℃

시 차: KST-2시간

1. 개관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중 국토가 두번째로 넓은데, 동서로는 서쪽의 카스피해로부터 동쪽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2,000 km에 달하고, 남북으로는 북쪽의 시베리아에서 남쪽의 우즈벡키스탄까지 1,300 km에 달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 면적은 가장 넓지만 인구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중 우즈벡키스탄 다음인데,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주율로 지난 10년간 인구는 큰 변동이 없었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45%는 비아시아계가 점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은 러시아인으로 1994년 기준 전체 인구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고급 기술자들로써 카자흐스탄의 독립이후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가 제2 공용어가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1996년 5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상호 국적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문제를 해소했다.

5개 중앙아시아 국가중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석유 및 석탄 매장, 그리고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구소련 당시가장 중요한 산업역할을 담당했다. 구소련은 화학, 철강 및 군수산업과 같은 특정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지만, 카자흐스탄은 노후화된산업 인프라를 물려받았다. 경제에서 비중이 큰 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러시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1996년 대부분의 경제는 여전히 국가소유로 남아있고 수년간에 걸친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사유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의 조정은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예를들어 삼성은 Zhezgazghan 비철금속제철소를 운영중이다)에의 매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려져 있지 않은 외국업체들에게 매각

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계약이 취소된 상태이다. 1996년 6월 정부는 최대 석유기업인 Shymkent, Yuzhneftegaz와 Vasilevskoye 금광(세계 최대 금광중의 하나)을 공개 입찰을 통해 외국기업에 매각했다. 이는 10억불 가량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지만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1998년 경제분야중 가장 건전한 부문은 석유, 가스 그리고 광산업이었다. 그러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수리보수작업이 지체되면서 이분야들에서 침체현상이 보이고 있다. 많은 국영기업들은 카자흐스탄북부지역에 위치해있는데 악성 부채문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8년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했는데, 아스타나는 산업중심지인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특히 러시아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를 억제하려는 의미도 있다.

외국인 투자는 카자흐스탄내의 복잡한 관료주의와 월평균 96불에 불과한 낮은 소득수준의 구매력 부족으로 좌절을 맛보고 있다. Chevron과 Mobil과 같은 서구 석유회사는 카스피해의 텐기즈 유전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오만 그리고 러시아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을 놓고 분쟁이 야기되어 좌절되고 있다. 1995년 설립된 러시아와의 관세동맹은 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연료자원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당시의 운송 시스템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운송시스템은 인구 밀 집지역을 연료자원 매장지역을 연결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 결 과 1996-1997년 겨울 알마티와 다른 대도시들은 심각한 전력과 난방부족 현상을 겪었다.

구소련이 1991년말 해체될 당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구소련의 존속을 지지하는 몇 안되는 리더중의 한명이었다. 그 이후 나자바예 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정 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조심스러운 정책을 추구해갔다. 국내문제에 대해서 그는 명목적으로는 자국내 민주주의 체제의 확장을 추진했는데, 새로운 헌법의 제정 및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대해나갔다.

1993년 및 1995년에 의회를 해산하였으며, 나자르바예프는 개혁정책에 비협조적인 각료들을 경질했다. 1995년 4월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한데 이어, 1999년 1월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2005년까지 연장했다.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초기의 구소련 공화국간의 연방체 형성 즉 느슨한 형태의 CIS간 협력체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 및 에너지 중심지는 러시아 남부 국경선과 근접해 있는데, 러시아의 연방체 창설에대한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내 러시아인의 지위가 불명확해지면서 야기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나자르베예프는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 및 키르기즈스탄과 새로운 관세동맹을 창설하였고, 1996년 6월 아케잔 카제겔딘 총리는 추가적인 CIS의 통합강화에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스탄 및 우즈벡키스탄과 중앙아시아경제동맹(Central Asian Economic Union)을 1993년 창설했다. 1997년 1월 비쉬케크 회담에서 '영원한 우정 조약'이 체결되어 상호 안보지원을 약속하였고, 3개국 화폐의 역내 태환성 확립문제도논의되었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43.0	40.0	41.2	42.8	42.8
GDP 성장	%	-18.8	-8.9	1.1	2.0	-2.5
인플레률	%	1,880	176.3	39.1	17.4	7.3
인 구	백만명	17.0	16.0	15.9	15.7	15.6
수 출	\$십억	3.3	5.2	6.3	6.8	5.7
수 입	\$십억	4.1	5.4	6.6	7.2	7.2
외환보유고	\$십억	0.8	1.1	1.3	1.7	1.7
환 율	tenge/\$1	35.5	61.0	67.3	75.4	78.6

자료원: EIU

카자흐스탄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그 중요성이 상당한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유전, 가스전과 광산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북서부의 텐기즈 유전 하나만의 확인 매장량은 9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카자흐스탄은 독립이후 지속적인 생산감소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시작했다. 1997년 인플레는 월 2% 수준으로 진정되었고 GDP는 2% 성장을 이룩했다. 중앙은행은 자국화폐 텐기화에대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며 자유롭게 달러화와 환전할 수 있도록되었다. 1997년 텐기화는 달러화 대비 2.8% 평가절하되었다. 1997년 은행부문 개혁은 1993년 200개에 달하던 은행수를 1998년 1/4분기에는 76개로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은행인 Kazkommertsbank는 Standard & Poors사로부터 B+ 신용

등급을 받았다. 1997년에는 주식시장이 설립되어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성장은 은행, 파산, 관세, 조세, 주식시장, 보험, 토지 및 천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상업부문을 다루는 새로운 법률과 각종 령의 제정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외환위기 여파로 카자흐스탄 경제는 또다시 상당한 불안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텐기화는 거의 100% 평가절하되었고, 인플레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여 1998년 또다시 2.5%의 GDP 감소를 겪었다.

석유생산의 증가는 단지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수출 루트의 제한으로 제약받고 있다. 1997년 정유량은 불충분한 러시아 원유 공급 및 공장 노후화 문제로 감소했다. 납, 티나늄, 아연과 알루미나 생산은 증가했다. 지난 2년 동안의 가뭄후 1997년 곡물 생산은 20% 증가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농업은 국가 최우선 투자분야로 남아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가스의 수출에서 획득하는 자금을 경제개발을 위한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은 이 분야에서 막대한 외국 자본, 설비, 기술 및 경영 기술을 유치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14.6억불, 1996년에는 14.6억불, 1997년에는 12.4억불에 달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최대 교역 파트너로 남아있으며, 서방국가들로는 미국, 터키, 카나다, 한국 그리고 중국이 주요 교역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석유 및 전력회사의 사유화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1993년 시작된 대규모 사유화의 결과 많은 외

국자본이 유입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각종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7년까지 사유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으나 10월 정부 교체 이후 그 속도가 느려졌다. 1998년 정부는 소위 블루칩을 증권시장에 판매함으로써 450억 텐기(5억8천7백만불)의 세수를 확보했다. 한국 대우는 카자흐텔레콤의 사유화에 참여하여 40%의 주식을 매입한적이 있으나, 비공개로 다른 투자자에게 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투자환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성

카자흐스탄은 인프라 개발, 석유개발 등에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1995년 4월 채택된 조세기본법은 CIS 국가의 유사법률과 비교해서 가장 단순하고나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7년 2월에는 직접투자촉진법을제정하여, 인프라, 경공업, 통신, 제초제, 보건, 교육, 스포츠부문과같은 "경제우선분야"에대한 내외국인 투자촉진을 꾀하고 있다.

1996년 11월에는 국가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극심한 레드 테이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률체계

1994년 12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이 기본법이며, 지하자원이용에관한 법(1996.1), 원유에 대한 법(1993.12) 등이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 합작회사는 토지를 포함한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개인은 99년간 임차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세제도

조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유가증권 거래세, 채굴업자의 특별지불금 등이 있다. 법인의 이윤세는 30%이며, 자유경제지대내 에 활동하고 있는 법인의 이윤세는 20%이다.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지불된 배당금이나 이자에대해서는 15%의 세금이 부가되며, 부동산 소득 및 로열티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가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순환시 20% 부과되는데 매달 납부해야한다.

주류, 캐비어, 귀금속제품, 모피제품, 크리스탈제품, 벤진, 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가된다. 재산세는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1.0%이며, 주택이나 기타 비생산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0.1%에서 0.3%이다.

사회보장세는 임금의 31.5%로 고용주가 납부해야하는데, 국가연금 기금에 25.5%, 국가고용기금에 1.5%, 사회보장기금에 1.5% 그리 고 의료보험기금에 3% 납부해야한다.

은행제도

카자흐스탄은 중앙은행과 약 100여개의 상업은행이 있는데, City Bank, Societe Generale 등가 같은 외국계은행도 20개 진출해 있다.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의 결과 상업은행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합작기업 설립

카자흐스탄 법무부에따르면 1998년말 현재 약 1천개의 합작기업이 등록되어있다. 합작기업은 무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일부 - 예를들면 특정 사유화 결과 -

합작기업 설립은 입찰 조건중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은행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부분의 자금을 서방 투자자에 의존한다. 1995년 채택된 법인 등록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들은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법무부에 등록되어야한다.

합작기업의 등록시에는 법무부가 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 설립계약서 3부, 기업정관 3부, 설립자본금의 은행구좌 입금증명서류, 설립자본금의 0.5%에 해당하는 법인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본국은행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노동시장

카자흐스탄에는 고학력의 노동력이 풍부하나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의 훈련이 부족하다. 1996년 채택된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유화/보상

국유화는 비차별의 원칙위에 국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상은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규정의 집행시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 부분 있다.

아직까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쟁해결

지난 수년간 외국기업이 관련된 투자분쟁 사례가 발생한바 있다. 이

러한 분쟁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측의 지불불능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분쟁심판이 국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갈 경우 중재원의 결정은 카자흐스탄법에따라 카자흐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생한다.

실제로는 많은 카자흐스탄 파트너들이 거의 파산지경에 달해 분쟁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중재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되기도 한다.

투자자 의무사항/인센티브

종종 외국투자자는 합의한 수준의 생산을 달성하거나, 공장을 개보 수해야할 것을 의무지워지기도 하며,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 업들에 대해 계약서를 철회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77.4	66.3	66.6	59.0	52.0	49.8
석유	백만톤	22.9	20.2	20.6	22.9	25.7	25.9
천연가스	백만m³	6.6	4.4	5.9	6.5	8.1	8.2
선철	천톤	3,552	2,435	2,530	2,536	3,089	2,594
납	천톤	255	137	88	67	82	91
화학비료	천톤	304	126	197	191	151	32
면사	천톤	35	19	7.9	6.2	30	
직물	백만m²	188	107	31.1	28.4	19.6	11.9
곡물	백만톤	21.6	16.4	9.5	11.2	12.3	6.4
육류	천톤	1,312	1,207	985	836	718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1996년 1월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은 특별경제구역 설치에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는데, 특별경제구역내에서는 조세 및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혜택을 주어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카자 흐스탄에는 리사코브스크, 악타우, 크줄 오르다 그리고 아스타나, 자이렌-아타수에 특별경제구역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신수도 아스타나의 건설 등과 같은 경제우선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수입되는 상품들에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4. 수입관리제도

무역장벽

구조적 장벽: 상업관련 법률시스템의 취약, 국내 자본의 부족, 계약 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사법절차의 부족, 물류비용부담의 과다 및 정부의 고질적인 관료주를 포함하다.

서비스 장벽: 외국보험회사는 카자흐스탄 기업과 합작으로 카자흐스탄내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적지않은 외국업체들이 회계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투자 장벽: 부채를 상환하기위한 자본이 부족하며, 합작기업 설립 시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다. 외국기업은 현재 토지를 매입 할 수 없으며, 카자흐스탄 파트너를 통해 최대 99년간 토지를 임차 할 수 있다.

관세제도

1998년 2월 관세위원회는 1997년중 관세수입은 목표치를 22% 초과하는 293백만불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1998년 목표치는 340백만불로 책정했다. 1997년중 관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세관원의 증원 (30%)에 주로 근거하는데, 27개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관세시스템은 종종 비즈니스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한다. 특히 세관절차가 정확하지 않고, 연속성이 없으며, 기업활동에비우호적인 경우가 많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및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을 창설하고 있으며, 이 관세동맹국간의 무역은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카자흐스탄은 수출세가 없다. 평균 수입관세율은 12%이다. 또한 모든 수입상품은 20%의 부가가치세를 통관시 납부해야하며, 세관수속료는 상품가격의 0.2%이다.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을 창설한 후 서구 수입품에대한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관세산출방식은 GATT 기준에 대체로 부합되는데, 상품분류는 WTO의 HS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투자회자의 자본금의 일부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수입 라이센스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에대해 라이센스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보건 및 안전상의 이유로 살충제, 의약품, 핵물질, 무기류, 일부 화학제품과 산업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라이센스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관리

카자흐스탄은 수출관리제도와 법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 수물자와 이중용도기술 및 전략자재에대해서는 수출관리를 강화하 고 있다.

무역서류작성

수입업체는 세관신고서, 상업송장과 선적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세관은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안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분할선적에대한 불분명함과 사본을 원본으로의 인정여부 등에 있어 불명확하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카자흐스탄 관세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시 수입

일부 임시 수입용품은 관세와 제세를 면제받는다. 이에는 운송기계, 전문 설비 및 전시용품, 컨테이너와 광고물이 포함된다. 임시 통관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업체는 매 1개월당 관세의 3%를 납부해야한다.

임시 수입하는 업체는 세관에 제품 명세와 가격을 담고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경과후 반송을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일부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품목들은 부분적 조세감면하에 2년기한으로 임시 수입될 수 있다. 제외되는 품목들은 식품, 산업폐기물과소비재이다.

라벨링/표기 요구사항

카자흐스탄 정부는 구소련의 공업규격, 테스트, 라벨링과 증명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활발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우리의 수출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입금지

1996년 3월자 대통령령에따라 마약류와 무기류/탄약류 등의 수입은 금지되었다.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무기류와 탄약류의 수출입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

표준규격

카자흐스탄은 GOST 규격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 규격과 매우 상이하다. 규격인증은 Gosstandart of Kazakhstan이 담당하고 있는데, 웹 사이트는 http://www.infs.asdc.kz이며 전화/팩스는 (7-3272)25-8550이다.

5. 수출유망품목

카자흐스탄의 수입품목구조(`97)를 보면 기계류가 전체 수입의 24.2%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연료.에너지(14.3%), 철강류 (8.5%), 운송기기(6.1%) 순이다.

석유 및 가스

99년중 시작될 거대한 석유 프로젝트들은 약 150억달러의 설비투자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건설 컨소시옴 (CPC)은 15억달러 규모의 설비구매 국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산 장비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국영석유회사 KzazkhOil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에서 정부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생산물분배합의서 및 로얄티 등에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2010년까지 매일 70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Chevron이 주도하는 외국투자자가 개발참여하고 있는 Tengiz유전은 카자흐스

탄 최대 유전이며, 최근 Kazakstancaspishelf(KCS)는 카스피해 유전지역 10만 sq. km 지역에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바 있다. 3억불을 투자하여 조사한 결과에따르면 100억톤의 석유와 2조cbm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백만불, %

꼬디버	1995		1996		1997	
품목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 계	3,806	100.0	4,241	100.0	4,275	100.0
설탕.당과류	123.8	3.3	139.0	3.3	133.4	3.1
주류	43.8	1.2	107.1	2.5	121.3	2.8
연료.석유제품	952.4	25.0	807.3	19.0	611.6	14.3
화학공업제품	88.2	2.3	102.4	2.4	102.6	2.4
고무.플라스틱	89.2	2.3	171.0	4.0	97.6	2.3
종이.판지	70.3	1.8	91.5	2.2	93.6	2.2
선철	77.6	2.0	121.6	2.9	106.3	2.5
철강제품	165.1	4.3	261.5	6.2	257.5	6.0
기계류	516.6	13.6	521.8	12.3	669.9	15.7
전기기기	237.6	6.2	292.2	6.9	333.4	7.8
수송기기	213.6	5.6	302.2	7.1	258.7	6.1

자료원: 일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카자흐스탄은 서방으로의 수출을위한 석유.가스 수송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Tengiz 유전을 러시아 노보러시스크 항으로 연결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콘소시엄이 구성되어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국국영석유회사와 중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다.

1997년 여름 국영 파이프라인 관리회사 Kazakhnefteprovod사를 운영하는 Kaztransoil사가 설립되었는데, 향후 파이프라인의 현대화 및 건설을 위해 3년간 5억불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5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오만 정부는 카스피해 파이 프라인 콘소시엄(CPC)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따르면 카스피해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러시아 노보러시스크 항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카자흐스탄은 1996년 중반부터 석유 및 가스부문 사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거대 국영석유회사의 지배주들은 카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등을 포함한 서방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다. 입찰참가 조건의 일환으로 중국국영석유회사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중국까지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1993년 774억 khw에 달했던 발전량은 연료부족, 노후화 및 부품의 부족 등으로 1998년에는 498억 kwh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발전량의 2/3는 석탄 화력발전이며, 나머지는 석유화력발전, 8개 수력발전, 1개 핵발전소로부터 나온다. 41개 화력발전소중 36개 발전소는 인근 주민들에게 온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화력발전소들은 전력 생산에 전문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 설비들은노후화되어 있어 개보수 수요가 막대하다. 카자흐스탄 가스터빈의94%, 증기 터빈의 57%, 증기 보일러의 33%는 20년 이상 노후화되었다. 기업들은 러시아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구 발전설비는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송기간중 유출되는 전력은 전체 생산량의 15.2%에 달하며 또한 소비자들의 지불 지연이 또다른 문제로 남아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력 부문에 있어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6월 현재 카자흐스탄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 이상이 사유화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전력 풀제" 를 계획하고 있다.

광업10)

카자흐스탄은 세계 크롬과 망간 매장량의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타 광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텅스텐과 납의 경우 구소 런 매장량의 50%를, 아연과 동은 40%, 보오크사이트, 은과 인은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CIS 국가중 베릴륨, 탄탈륨, 바라이트, 우라늄, 카드뮴과 비소 최대 생산국가이다.

광업관련 설비의 절반이상이 개보수해야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특히 환경친화적 기술이 부족하다. 카자흐스탄은 광산설비의 대부분을 수입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4년부터 광업부문의 사유화를 시작했으며 1997년 6월 현재 절반 이상이 사유화되었다. 광업부문 인프라 개발, 광산 및 공장의 재건, 서비스, 장비의 수출에 있어 매우 큰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

통신

카자흐스탄 국민전화회사인 Kazaktelecom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전화 뿐만아니라 TV 및 라디오 방송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5 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Kazaktelcom 주식 40%를 한국 대우에 매각 한바 있다.

^{10).} 카자흐스탄의 광산물 생산실적(1997년)을 보면, 알루미나가 1,094천 톤, 보오크사이트가 3,416천톤, 동이 302천톤, 납이 81천톤, 티타늄 이 18천톤에 달했다.

Kazaktelecom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통신서비스 회사들로는 Kazinformtelecom (KIT), Nursat, jarykh, SA Telcom, Arna 그리고 Satel과 같은 기업들이 있다. 알마티에는 2개 위성통신 수신소가 건설되었다. 모토롤라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Becet Intel은 셀룰라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며, 1992년 카자흐스탄과터키 합작으로 설립된 Vesnet는 디지탈 전화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파, 단파, 중파 및 FM 주파수로 무선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통신망 확충을 위해 1994년 트란스 아시아-유럽 광섬유케이 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제 광섬유통신 라인은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 그리고 터키를 유럽과 연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중 카자흐스탄이 점유하는 부문은 1,750 km에 달하며 비용은 8천만불이다.

의료장비 및 의약품

카자흐스탄 의료부문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영 의료서비스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 시설은 매우 열악한 사정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98%가 러시아산이며, 특히 중고 의료기기 수요가 막대하다. 1991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원조를 통해 차관을 제공받고 있 다. 그러나 정부의 부적절한 차관 사용등으로 인해 서방세계는 차관 제공을 꺼려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 수출업체들은 의료장비를 공급할 때 부품 형태로 들여와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들은 현지 디스트리뷰터를 통하거나 민간 의약품 수요업체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연간 의약품 수요는 3억달러 수준인데 이중 단지 3%만이 자국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대부분을 기타 CIS 국가, 유럽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산업을 투자우선부문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감면, 부동산 구입시 세제혜택, 관세 면제 및 기타 투자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

구소련 당시에는 카자흐스탄은 연간 1만톤의 담배잎을 생산했으나, 1996년 담배잎 생산은 2천톤으로 줄어들었고 향후에는 3천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담배속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개의 담배생산 공장이 있으며 연간 5천~7천톤의 담배속을 수입하고 있다.

1996년 9월 카자흐스탄은 114백만달러를 사용하여 630 John Deere 콤파인을 구매하였는데 앞으로도 콤바인 수입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 현재로서는 콤바인 시장에 있어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파종기, 트랙터 및 건조설비를 포함한 밀 가공 설비시장도 상당하다.

카자흐스탄의 면화 경작지는 11만 헥타에 달하며 대부분의 경우 카자흐스탄 남부지방으로써 관개수로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면화는 길이가 중간치이며 John Deere의 100 면화 수확기가 1997년 추수때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추가 면화 수확기 수요는 상당하지만 외국업체의 진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6년 카자흐스탄의 면화 생산은 183천톤에 달했다.

카자흐스탄 농산식품가공에는 1,300여 기업이 종사하고 있으나, 50 개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육류는 카자흐스탄에서 소비가 매우 많은 품목으로써 기후조건이 축산업에 적합하여 육류 생산이 많다.

특히 잠재적인 수요가 매우 큰 부문은 10만불에서 20만불에 달하는 소형 규모의 가공설비류인데, 이 부문 시장에는 독일, 터키 육류가공회사들이 진입하여 경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8개의 설탕 공장이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30만톤에 달하고 이중 20% 정도만의원료를 자국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내 기계류의 생산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설탕 산업 기계류 판매 기회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재배되는 채소의 10%, 과일의 20%만이 현지 공장에서 가공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보관하는 작업이 주요 노동의 하나이다. 1991년에는 98개의 채소 및 과일 공장이 5,5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영업업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8개 대기업이 전체 상업생산의 90%, 종업원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가공산업은 통조림 공업이며 1개의 식품 냉장공장이 있을 뿐이다. 현재 쥬스 가공 분야에서는 스웨덴 Tetrapak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52	105	92	104	14
수 입	73	124	83	30	31

자료워: KOTIS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급득성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92,123	-12.6	104,016	12.9	
승용차	7,871	0.5	32,039	307.1	
칼라TV	28,604	-44.5	19,398	-32.2	
VTR	8,142	19.7	5,755	-29.3	
에어콘	1,014	103.1	3,345	230.0	
기타 회전기기	2,430	132.7	2,308	-5.0	
온수보일러	2,028	137.9	2,114	4.2	
상용차	555	-1.5	2,054	270.0	
전자렌지	1,126	34.0	1,824	62.0	
기타 조제식료	563	-9.3	1,640	191.1	
자동차부품	939	337.1	1,636	74.3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6. 투자진출 유망분야

1997년 외국인 투자는 15억불이며, 이중 직접투자는 12억4천만불에 달한다. 주요 분야로보면 철강산업이 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철금속(19%), 석유(18%), 건설(9%), 전력(8%) 순이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까지 육성해야할 중점 5대 분야를 설정 하였으며 또한 석유 및 가스산업과 광산업 분야도 현재 활발한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인프라 확충

철도와 도로, 공항과 항공 교통 개발, 강 및 바다 항만, 다리, 전력 그리고 통신망

제조업

의류생산, 식품과 음료, 소비재, 자동차, 의약품 생산, 농산물 가공/ 저장, 비료와 식물보호, 건설자재 그리고 하이테크 기계 및 공구

아스타나 시 건설

각종 제품과 서비스, 다양한 건설. 카자흐스탄은 십억달러를 투자하여 비즈니스 센타, 국립 박물관, 스타디움과 기타 시설 건설 예정.

주택, 보건 및 교육 부문

보건, 교육, 스포츠 그리고 관광시설

농업

고부가가치 작물의 경작, 가축, 종묘와 환경친화적 시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체제하에서 중공업 분야가 중점 육성된 반면, 소비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로 인해 경공업 분야가 취약하다. 따라 서 단기적 유망분야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생산 및 농산물 가공 등이며 1996년 한카자흐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계기로 서비스 및 수송, 통신망 확충사업 등도 유망하다. 장기적으로는 여타 CIS 공화국에 대한 생산 및 판매거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

또한 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7년말 현재

민영화된 기업은 총 6,759개사에 달하며, 민영화 참여를 통한 유망기업 인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투자실적

1999년 4월 30일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이 대카자흐스탄 총투자는 22건에 1억 1,094만불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건에 763만불, 무역업이 6건에 157만불, 기타가 6건에 1억 174만불이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현재 카자흐스탄 대도시에는 서구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유통망의 불완전으로 여전히 서구 수입품을 구하기 쉽지않다. 한국제품의 품질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의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유지.개보수를 위한 서비스 및 부품과 장비를 공급해야한다. 카자흐스탄 영토는 서구유럽과 비슷한 크기로 광대하기 때문에 유통망은 상당한 거리를 커버할 수 있어야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운송비는 20 푸트 컨테이너의 경우 약 4천불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서구제품은 카자흐스탄에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주민계층은 제한되어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성을 십분 이해해야한다. 수입상품의 가격이 높은 것은 운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 수입관세는 11% 정

도이며 부가가치세는 20%이며, 가격에는 품질 및 안전증명서 발급비용도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형이다. 알마티에는 십여개의 현지 광고업체와 몇 개의 서구 광고회사들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고와 판촉활동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무역 전시회가 개최된다.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최대 전시회중 하나는 국제석유가스전시회(KIOGE)로써 매년 10월 알마티에서 개최된다. 기타 주요 전시회로는 카즈파우워(10월), 소비재전시회(4월), 카자흐스탄 건강전시회(5월), 운송전시회(5월)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제통신전시회(KITEL)(6월) 등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광고 매체는 TV와 인쇄매체이다. TV 광고는 매우비싸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간되는 러시아어 신문 "Caravan"은 효과적인 광고 매체이다. "Panorama"와 "Delovay Nedelya"와 같은러시아어 격주간지는 경제, 정치 및 비즈니스 관련 기사를 주로 게재하며 경제계 인사가 주로 구독한다. "Almaty Herald"는 외국인들이 주로 구독하는 영어판 신문이다. 기업들은 "Oil and Gas of Kazakhstan"과 같은 전문지와 잡지에 광고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수개의 국제 광고 및 회계회사들이 사무소를 갖고 있다. 라디오 방송과 빌보드 광고도 이용할 수 있다.

유통 및 판매 채널

다수의 한국 소비재 생산업체들은 이미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으며 수많은 업체들이 에이전트와 유통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유통망은 카자흐스탄에 존재하지만 아직도 발전 초기 단계이다. 한국기업

들은 유통업체에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고 그들을 효과적인 판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해야한다.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주민들은 두 개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남동부지역은 경제중심지인 알마티가 있고, 북부 및 북동부지역은 수도인 아스타나가 있고 산업.광업 중심지이다. 열악한 도로사정, 통신환경, 광대한 영토 등으로 인하여 현지 유통업체가 카자흐스탄 주요 유통센타들을 모두 커퍼하는 것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에이전트, 유통업체/ 파트너 물색

알마티에는 한국대사관이 있으며, KOTRA 무역관을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관이 개설되면 현지 에이전트, 유통업체 그리고 파트너 물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상공회의소와 같은 비즈니스 단체를 통해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를 충분히 조사해야하며,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상당한 열성을 가져야한다.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정부는 종종 서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항상 계약서대로 적기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아니라 조달시장의 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투명한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은 정부구매법을 제정하고 있고, 현재 외국 업체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다.

A/S와 고객서비스

A/S 제공을 위해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훈련된 카자흐스탄 사무소 또는 지사를 통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고객 서비스는 한국의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고객 서비스를위한 현지 인적 자원의 확보를 고려해야한다.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법률 컨설팅과 같은 실경험에 기반을 둔 전문가의 서비스를 필히 받아야한다. 카자흐스탄에는 십여개의 외국 법률회사가 있다. 숙련된 전문가에 추가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현지 법률회사의 자문을 구한다. 알마티에는 "Big Six" 컨설팅 회사들이 모두 진출해 있는데, 이들 회사들은 비즈니스 자문 뿐만아니라 조세문제, 임금문제, 사회보장세 문제 그리고 지사설치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래차이징

프랜차이징은 카자흐스탄에서 새로운 사업 유형이며, 많은 소기업인들이 자금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소비재 시장을 위해서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는 패스트 푸드, 세탁소, 호텔과 모텔 그리고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가 가장 유망한 프랜차이징 업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무소 설치

법인등록법에따르면 모든 법인들은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등록에는 15일이 소요되나 일부 외국기업들은 이 절차 에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불평한다. 등록비는 법정최저임금(약 150 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주식 을 발행할 때 자본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한 다.

서구식으로 개보수된 사무실의 월임차료는 알마티에서 월20~40불/m²이며, 지방 주요도시에서는 10~30불 수준이다. 국내전화 서비스는 매우 불량하지만, 국제전화 서비스는 매우 비싸지만 믿을만하며, 위성통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사무실 기기(팩스, 전화, 복사기)와 부품은 알마티에서 구할 수 있다.

알마티를 제외하고는 영어 구사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서 구직장 경험과 교육을 받은 현지인 매니저를 구하는 것은 알마티에 서 조차도 극히 어렵다. 교육훈련은 카자흐스탄에서 시작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알마티에 최근 도착한 한국기업들은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즈니스 상관행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상업관련 법령이 점차 정비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서구 상법에 무지한 법관들로 인해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승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좀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는 양측 비즈니스 관계의 전반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현재의 법체계상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구소련 법체계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적재산권에대한 이해와 보호가 극히 미흡하다. 상표와 특허등록법은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채택되었고 저작권 보호법은 1996년 6월에 제정되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협상과정에서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비디오 테이프의 대부분은 중국 등에서 수입된 불법 복제본들이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카자흐스탄의 국가코드는 7번(구소련의 국가코드를 계속 사용)이며, 알마티 도시코드는 3272번, 아스타나 도시코드는 3172번이다.

유용한 연락처

카자흐스탄 소재 한국기관

주카자흐스타 한국대사관

주소: Dzharkentskaya Street 2/77 Almaty, Kazakhstan

전화: 53-2660, 2989, 2691 팩스: 50-7059

한국소재 카자흐스탄 기관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2-15

전화: (02)548-1415, 516-1440 팩스: (02)548-1416

카자흐스탄 정부 부처

재무부

주소: 97 Abylay Khan Av. Astana 480091

전화: 62-4075 팩스: 62-2770

경제부

주소: 115 Zheltoksan St. Astana 480091

전화: 62-6500 팩스: 63-6605

에너지산업무역부

주소: 142 Bogenbay Batyr St. Astana 480091

전화: 62-6410 팩스: 62-6630

국가투자위원회

전화: (7-3272)62-5903 팩스: (7 3272)69-2237

국가사유화위원회

주소: 66 Kazybek bi Astana 480091

전화: 62 85 39 팩스: 62 32 80

내무부

전화: 34-3601, 34-3600 - Astana

외무부

주소: Astana, Mira str,10

전화: 32-7669

에너지산업무역부

전화: 33-7133, 33-7134 - Astana

경제무역부 통계국

주소: 125, Abai Ave. Almaty, 480008

전화: 62-1323

국가조세위원회

주소: Astana, Pushkina 166 전화: 75-0722, 75-3022

통계분석국

주소: 44, Markov St., Almaty 전화: 64-0512, 64-4930

나. 여행 안내

비자

카자흐스탄을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1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30일전에, 1개월 단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7일전에 비자발급을 신청해야한다.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장이 있어야한다. 비자발급신청 1개월 이내에 작성된 AIDS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카자흐스탄 국내를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 이상 법적으로는 국내 여행비자를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여행자들은 종종 국 내비자의 제시를 요구받고 없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등록을 할 때 10일까지 여권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국내 비즈니스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자흐스탄 내 체류시 항상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불심검문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여행자가 카자흐스탄을 출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을 시행했다. 즉 6개월 이상 카자흐스탄에 거주 하는 외국인은 출국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한다.

교통

시내 중심가는 대중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나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은 매우 열악하다. 철도의 1/3은 보수해야하는 형편에 처해있고 대중수송수단들은 부품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한다.

치아

치안사정은 별로 좋지 않으며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밤에 혼자 산책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호텔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접

근하는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야한다.

통화

카자흐스탄은 현찰결제 경제체제이다.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달러는 환전소 또는 은행에서 쉽게 현지화(텐기)로 환전할 수 있으나, 발행연도가 1990년 이후이며 상태가 좋은 지폐를 준비해야한다.

통신

카자흐스탄 전화망은 매우 낙후되어있으며 전반적으로 현대화해야 할 형편이다. 알마티 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상태이다. 국제전화 라인은 보통 수준이지만 팩스 전송은 어려운 사정이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22일	나우루즈(이슬람 신정)
5월 1일	노동절
8월 30일	제헌절
10월 25일	국경일(Republic Day)
12월 16일	독립기념일

우즈벡키스탄(Uzbekistan)

수 도: 타쉬켄트(210만명)

면 적: 447천 k㎡ 인구밀도: 53.3명/k㎡ 인 구: 2.423만명

화폐단위: 숨(Sum, 1994.6월 도입)

117.81숨 = \$1(1999.6.6)

접경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카니스탄

주요하천: 아무다라江(자국내 통과길이 1,437 km)

평균기온: 1월 -3.5℃ 7월 29℃

시 차: KST-4시간

1. 개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면적으로 3위, 인구로는 1위 (1999년 인구는 2천4백만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철저히 육지로 둘러싸여있다. 북으로 카자흐스탄, 남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으로는 키르기즈스탄과 타직스탄과 국 경을 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아랄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문제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는 2000여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상업적 발전의 중심에 위치해있었으며 특히 유럽과 중국 사이의 비단길이 발전의 축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비단길의 3개 주요 전초지점인 부카라, 히바, 싸마르칸트가 위치해있다.

면화, 야채, 곡물과 같은 농업기반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금을 비롯한 일부 귀금속 광물과 천연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경제는 여전히 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1970년대와 80년대는 관개의존 농업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주요 농작물은 면화로, 세계 4대 면화 생산국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혁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급 작스러운 체제 이행으로 인한 분열을 막는 것이었다. 시장 경제의 목표를 주창하면서 경제 계획 입안자들은 사유화나 서구적 스타일, 즉 경제적 동기 부여와 사기업 설립과 금융체계 확립에 매우 느린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전략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겪었던

체제이행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독립이후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약 20% 감소한데 비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GDP 감소는 50%에 달했다. 이는 1992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상당히 유리했던 데 원인이 있다. 면화 재배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판매가치를 갖는 상품을 보유하게 있었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교역 의존도나 수입 에너지원 의존도가 낮았던 덕분에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훨씬 덜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열기가 높다. 1995년 12월 IMF는 소비에트 시절의 군수 산업 민수화를 위해 5억달러를 재공하는데 합의했으며, 미국의 원유회사들도 원유, 가스 산업에 13억 달러의 장기 투자를 행했다. 타슈켄트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대우의 자동차공장, 텔레비젼, 비디오 카세트 공장은 가장 대표적인 외국 전자업체이다.

우즈벡키스탄의 통상정책은 동아시아 및 서방과의 경제 협정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은 벨로로시,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관세동맹에 대한 가입 의사를 표명했으나, 1999년 6월 현재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1996년에 처음으로 원유 자급자족을 달성한 우즈베키스탄은 주요한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나머지 4개국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입지는 다른 잇점(지역 최대 인구와 주요 부존자원)들과 함께 중앙 아시아의 지도국이자 잠재적 통일세력으로 각광받게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게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4개 공화국들은 우즈벡에 대한불신을 표명했다. 4개 공화국 모두 우즈벡 인이 소수 민족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든 우즈베키스탄의 패권 야욕을 느껴왔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관계는 경쟁과 의존이 혼합된 성격을 띠

고 있다. 러시아는 카리모프 정부가 신경을 쓰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카리모프가 서방 국가, 특히 독일의 비지니스 활동을 크게 장려하였으나 러시아의 상업적 이익을 양도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1994년과 1995년에 우즈베키스탄은 다양한 CIS 국가들과 경제협정을 체결했으나 이같은 관계에서 주요한 파트너는 항상러시아였다.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경 바로너머 이란, 파키스탄, 터키와 경제교류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간에는 수많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지역협력의 전망은 단지 이론 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외부세력으로 자리잡아온 러시아와의 관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긴밀하다.

2. 시장환경

풍부한 천연자원, 숙련된 고학력 인력과 정부관리 효율성의 제고 등에 의지하여 우즈벡키스탄 정부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산업생산의 증대에 역점을 둔 경제개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투자의 투명성 제고와 때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즈벡키스탄 정부는 1994년 이후 당초의 목적 달성을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동시에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에대한 정부통제를 고수하는 측면이 강한데 특히 금융부문에 있어 두드러졌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43.7	43.9	45.4	47.4	48.3
GDP 성장	%	-4.2	-0.9	1.6	2.4	1.0
인플레률	%	1,568	304.6	54.0	58.8	17.6
인 구	백만명	22.1	22.5	23.1	23.7	24.3
수 출	\$백만	2,940	3,475	3,534	3,695	3,040
수 입	\$백만	2,726	3,238	4,240	3,767	3,180
외환보유고	\$백만	676	645	616	302	200
환 율	som/\$1	11.6	30.0	40.2	66.4	94.8

자료워: EIU

독립을 선언한 직후 우즈벡정부는 러시아식 "충격요법"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지원과 인플레로부터의 소비자보호, 엄격한 가격통제와 임금인상에 노력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 우즈벡키스탄은 1991-1994년간GDP 감소를 17%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여 여타 CIS 국가들의 약40%에 달하는 감소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보수적인 접근은 1994년 러시아 루블권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산적하는 경제문제들에 휩싸이면서 우즈벡 정부는 긴축통화정책, 가격자유화,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 사유화, 외국투자유치, 완전한 자국화폐(som)의 도입 등과 같은 진정한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추진을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연간 인플레를 1994년 1,300%에서 1998년에는 17% 수준으로 진정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1994년 4.2% 감소에 달했던 GDP는 1996년부터 성장세로

반전되었다. 긴축통화정책과 무역수지흑자 더나아가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1993년 GDP의 11%-> 1995년 4.0%) 등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1996년들어 무역적자와 임금 인상 등으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우즈벡키스탄 정부는 경제가 이전보다 나아져서 구소련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부문이 GDP의 대부분을 점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역적자와 경제지표의 악화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벡키스탄은 자신의 개혁을 선택했으며, 이는 우즈벡의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1998년 8월 러시아의 경제위기 직후 카리모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에서의 위기는 우즈벡키스탄이 느리지만은 안정적인 자신의 개혁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위기는 우즈벡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러시아 위기 직후 솜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급등하였으며 우즈벡키스탄의 수출물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수입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다.

산업

농업은 GDP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발역점 부문 중의 하나이다. 특히 면화 생산이 주요 분야인데 우즈벡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이자 2위의 수출국이기도하다. 세계 면화가격의 상승으로 우즈벡키스탄은 1995년 4백만톤을 수확하여 수출하였는데, 전체 외환획득의 75%를 점유하고 재정적자를 4% 수준으로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6년들어 면화 시세가 약세를 보이면서 경제는 다소 침체에 빠져들었다.

우즈벡키스탄의 비철금속 특히 금은 주요 외환 획득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연간 70톤의 금을 생산함으로써 우즈벡키스탄은 세

계 7위의 금생산국이 되었다. 우즈벡키스탄은 상당한 수자원과 천연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천연가스 생산국에 포함된다. 우즈벡키스탄에는 160여개의 석유 및 가스전이 발견되어 개발되고 있다.

우즈벡키스탄의 제조업중 다소 발전된 부문은 섬유, 자동차와 항공산업이다. 경공업국가협회(Uzbeklegprom)은 우즈벡키스탄 직물생산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경공업국가협회는 터키, 한국, 독일, 미국 및 이태리 파트너와 합작으로 생산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개혁

우즈벡 정부의 점진적인 개혁정책 천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지를 받았다. 1995년 1월 캉드쉬총재는 우즈벡이 안정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으며 72백만불의 체제전환자금의 제공을 승인했다. 그후 추가로 73백만불의 차관이 제공되었고 1995년 12월 185백만불의 대기차관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화공급 확대와 솜화의 완전한 태환성 확립 실패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1996년 10월 외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즈벡키스탄은 사유화 부문에 있어서도 덜 공격적이었지만 일부 진전은 있었다. EBRD의 추정에 따르면 1998년 우즈벡의 민간부문 은 GDP의 약 45% 가량을 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우즈벡 정부 는 민간부문이 GDP의 50-70% 가량을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 수치상의 차이는 정부가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류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EBRD 평가에 따르면 1992년 이후 6만개의 소기업(전체의 96%) 이 사유화되었는데, 특히 소매유통, 소비자 서비스, 요식업과 지방산업체에서 사유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대형 기업과 농업부문에서의 사유화는 큰 진전이 없었다. 1997년말 기준 2,851개의 대업체(전체의 61%)가 사유화 되었으며, 14천개의 개인농장은 전체 경작지의 11%를 점유하는데 불과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국가수매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hw	49.1	47.8	47.4	45.4	46.0	45.9
석유	백만톤	3.9	5.5	7.6	7.6	7.9	8.1
천연가스	십억m³	45.0	47.2	48.6	49.0	51.2	54.8
자동차	천대	_	_	_	25.3	64.9	49.6
화학비료	백만톤	1.3	0.8	0.9	1.0	1.0	1.0
직물	백만m²	634	574	544	523	470	349
TV	천대	8.7	2.3	3.4	1.0	1.2	2.9
냉장고	천대	81.7	19.8	18.6	12.7	12.7	16.0
곡물	천톤	2,142	2,467	3,162	3,562	3,776	4,623
면화	천톤	4,234	3,938	3,934	3,350	3,700	3,200
육류	천톤	517	509	509	461	468	471

자료워: CIS 통계위워회

1995년 10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대규모 사유화에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1996년중 GDP에서 민간부문이 점유하는 비중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3천개의 국영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며 주식의 51%를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30%는 민간투자펀드에 매각하는 것이었다. 에너지, 연료와 금광등과 같은 전략부문은 여전히 정부가 지배주를 갖는 형태로 남아있

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7월 카리모프 대통령은 솜화를 2000년까지 완전한 대환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3. 투자환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성

우즈벡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수입대체산업 혹은 수출산업인 경우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통신, 광산물 개발, 섬유 및 식품가공산업이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이후 독립한 우즈벡키스탄은 광범위한 법률 정비작업을 진행중인데, 조세기본법은 1997년에 통과되었고, 1998 년 4월 30일 신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비되어 있는 법률이 많으며, 대통령령 혹은 정부령의 형태로 특혜를 제공하는 경 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에대한 차별은 없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조세감면과 우즈벡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본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준다. 또 한 외국 유명 브랜드의 현재 생산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한국 자동차 조립생산, 미국 농기계 생산, 영국 담배생산 등이 있다. 또한 항공기 제작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입계약등록, 기업등록, 라이센스 그리고 통관지연 등 관료주의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수입계약은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되어야하며, 기업등록에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

가 있고, 통관은 4개월까지 지체되는 사례가 있다.

통화/환전

속화의 환전은 극히 어려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외환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우즈벡 정부는 외환에대한 접근을 여러 정부령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당초 자국화폐의 국내 태환성을 1996년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IMF에 약속한바 있으 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전 문제로 다수 외국 인 투자자들은 상황이 호전되기를 관망하며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환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환전 라이센스를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미리 매분기별로 환전할 금액을 신고해야하며, 환전 쿼타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수출에서 획득한 외환의 30%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하는데, 이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국유화/보상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산을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유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분쟁해결

아직까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유의할 점은 국재상사중재에 가기전에 우즈벡 법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투자 인센티브/투자자 의무사항

1998년 3월 27일자 대통령령에 따르면 1) 수권자본금이 15만불이상이어야하며, 2) 수권자본의 3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어야하고, 3) 기업 설립에 외국 법인이 1명 이상 참여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7년간의 조세면제된다. 외국인 자본이 50% 이상을 점할 경우 그후 2년간 이윤세의 20%만을 납부하며, 투자금이 1백만불 이상일 경우 이윤세의 16%만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투자기업이 생산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제품의 1/4 이상이 어린이용품일 경우 이윤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법률의 투명성

우즈벡 법률 시스템은 정확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다. 일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령에 의해 규제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업체는 상당한 레드 테이프에 직면하게 된다.

노동, 보건 및 안전관련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나,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외국투자업체에게 세수확보 수단으로 즉 벌금부과 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금융시장

우즈벡 은행시스템은 발전되어 있지 못하며, 상당한 부문들이 구소 런 시스템을 답보하고 있다. 금융상품은 현금과 비현금으로 크게 구 분되며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용도와 금액은 제한적이고, 나머지 자금은 은행구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는 기업 은행구좌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부정부패

우즈벡 법률은 부정부패 방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월급 여가 매우 낮은 상태로써 `컨설팅' 등과 같은 형태로 부차적인 수입 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공무원들은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 는 사례가 있다.

노동시장

우즈벡 인력은 잘 훈련된 숙련된 노동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구소련 체제의 영향을 적게 받아 새로운 노동환경에 잘 적응하여 생산성이 높은 경우가 있다. 근로자 파업사례는 거의 없는 데 이전에 터키 건설장 근로자들의 파업사례가 있을 뿐이다.

우즈벡 정부는 1997년 외국인 투자가 11억불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억5천만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설립

우즈벡키스탄내 모든 기업은 법무부에 등록해야하는데, 기업 형태에 따라 등록비와 구비서류가 다소 다르다.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정의 신청서, 은행 추천서, 부동산(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기업 상표, 등록비 납입영수증, 공식환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합작기업의 등록비는 500불 + 최저 월급여(현재 1,100솜)의 5배금액이며, 수권자본의 30% 이상이 외국자본임을 증명하는 은행서류, 합의 의사록 및 회사정관을 제출해야하며, 파트너가 국영기업일경우 국가자산사유화부의 결정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외국기업의 지사 등은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해야하는데, 등록비는

1,170불이며, 소정 신청서, 은행추천서, 회사정관, 부동산(사무실) 임차 계약서, 위임장, 외국인 주재원 신상정보, 파트너 추천서 및 지 사운영규정을 제출해야한다.

4. 수입관리제도

관세

우즈벡의 관세구조는 HS의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 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세부과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상품분류는 일반적으로 4단위 위 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에 따른 수입관세는 3%-100% 수준까지 부과되고 있으며 그외 제세로서 부과가치세 20%, 이윤세 10%, 소비세 (10-65%)가 부과된다.

1998년 1월에 시행된 법령으로 수입품에 대한 VAT부과는 기술장비의 경우 기업의 시설 및 장비의 Upgrading, Technical Rc-Equipment일 경우 관련 은행의 확인으로 VAT가 면제된다.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의 관세율을 구분하면 합성직물의 경우 20%, 의류의 경우 30%, 비철강제품 5-20%, 통신기기 30%, TV, VCR, 카셋트 라디오 등은 30%, 차량의 경우 30%-60%, 중 고차의 경우 100% 수준이다.

비관세장벽

수입상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 또는 선적전 검사제도 없다. 그러나 의약품과 같은 특수 제품의 경우 관련 부처(의약품의 경우 국가의

약품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대외경제관계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한다.

등록할 때(의약품의 경우) 품질증명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는 증명서, 의료기기 등록증명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기술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등록비는 1천불(혹은 5000천 한도내에서제품가격의 5%)이다.

외화관리

우즈벡 정부는 1996년 11월 1일부로 새로운 외환관리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여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재국내의 모든 지불수단을 "숨" (자국화폐)으로만 하여야 한 다.
- 법인의 외환현금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한다.
- 개인의 미\$ 5,000상당 이상 반입시 총반입액의 2% 세금을 부과하고, 반출시 신고 금액과의 차액이 미\$ 2,000이상일 경우 환전 증명서 등 증명서류 첨부하도록 한다.
- 자국민의 외화 반출한도액을 미\$500 상당으로 제한한다.

한편 정부는 특정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품에 대한 환전 및 환전규모를 정하여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외환사정이 매우 어려워 환전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환전가능 품목으로 밀가루, 버너, 식용오일, 약품, 직물, 냉동고, 자동차부품 등 환전 제한 품목으로 식료품, 통조림, 과자, 껌, 담배, TV, 세탁기, 고급가구, 합성신발 등, 환전금지 품목으로 맥주, 과일주스, 캐찹, 유리, 그룻, 승용차, 카페트, 폴리에스탈 및 CD, 실크, 악세사리 및 미술제품, 자동차의 악세사리 등을 정하고 있다.

5. 수출유망품목

우즈벡키스탄의 수입품목구조(`97)를 보면 기계류가 전체 수입의 45.9%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식료품(19.3%), 화학공업제품 (12.5%), 철강류(7.5%) 순이다.

우즈벡키스탄의 수입상품구조

품목명	1995	1996
합 계	100.0	100.0
식품류	18.2	29.5
화학.플라스틱제품	9.3	12.5
철.비철금속	5.7	6.7
기계류	47.9	35.8
에너지	1.9	1.1
서비스	5.0	0.2
기타	12.0	14.3

자료원: 日本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식품 및 농업기계

우즈벡키스탄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농지개발과 관련 가공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정책에따라 낙농기계 등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의 수출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스라엘 마라토브테크놀러지사는 1999년 3/4분기중 3백만불 규모의 소형 낙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스라엘 은행이 우즈벡 중앙은행에 제공한 자금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낙농기계에는 파스튀르 우유 뿐만아니라 버터, 요구르트, 과일 트보로그, 크림 및 치즈를 생산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의료설비

정부지원이 줄어들면서 우즈벡키스탄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필요한 의약품의 40% 가량만이 충 족되고 있는 상태로써 향후 상당한 수입수요가 예상된다.

우즈벡키스탄 보건부는 소수 엘리트 국립병원에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방정부들은 자체 공공병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정 부의 지원규모가 훨씬 크다.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 보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직접 유통을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용 백신 뿐이며, 의약품 공급조건과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의료설비의 수입관세는 2%이며, 2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국가의약품위원회에 등록되어야 세관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가장 유망한 품목들로는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다.

- 외과수술용구, 봉합선(絲)
- 치과용 기기
- 연구분석설비
- 미생물학 설비
- 일회용 각종 용품
- 모니터링 시스템
- X레이 기기
- 초단파진단기기 등

통신설비

통신망 현대화 프로젝트의 추진에따라 전화교환기, 광섬유 케이블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국제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찰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식 유무선 전화기, 이동통신 설비 등의 수요도 막대하다.

우즈벡키스탄의 무선전화망은 인구 1천명당 1대꼴로 1998년말 현재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배로 증가한 26,000명에 달했으며, 금년 중에는 또다시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선전화단말기 등의 수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3월 12일 일본 미츠이사는 트란스-아시아-유럽 광섬유통 신망 건설자로 낙찰되었는데, 13.8백만불의 소요자금은 일본 수출 입은행이 융자하도록 되어있다.

1993년 알카텔사가 우즈벡 정부와 체결한 3억불에 달하는 프로그램에따르면, 1994-1996년간 알카텔은 타쉬켄트에 6개의 디지털교환소를 건설하고, 11개의 무선 통신채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1996년 지멘스는 1만 회선의 전화망을 3백만불에 샤흐리사브제에건설하였다. 또한 1996년 3월 알카텔은 이동전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750만불 상당의 GSM망 기본 스테이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알카텔은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중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즈벡 시장진출 확대 채비를 차리고 있다.

건설자재 및 건설서비스

공항, 도로 등 각종 인프라의 확충 및 현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화된 아파트의 개보수 수요가 막대하여 건설 및 건설 자재 수출이 유망하다.

1999년 5월 타쉬켄트공항은 터미널 빌딩 건설 및 필요한 모든 설비의 교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는 EBRD가 제공한 36백만불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1998년 8월 일본 마루베니사는 일본정부가 제공한 155억엔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및 우르겐치 공항현대화(터미널, 컨트롤 타워 및기타 설비)에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우즈벡키스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古可る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675,113	36.7	383,974	-43.1	
자동차부품	410,299	73.8	194,039	-52.7	
차량용 내연기관	0	_	42,326	_	
섬유기계	28,094	116.8	19,810	-29.5	
상용차	5,176	228.6	15,568	200.8	
공중통신용교환기	26,783	_	14,500	-45.9	
칼라TV	55,487	47.1	12,456	-77.5	
저밀도폴리에틸렌	1,391	_	10,367	645.5	
가구부분품	14	-54.6	8,267	*	
타이어 및 튜브	9,255	42.3	6,361	-31.3	
냉연강판	8,354	-35.4	4,457	-46.6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한국의 대우즈벡키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244	493	675	383	134
수 입	134	196	297	142	108

자료원: KOTIS

6. 투자진출 유망분야

식품 및 농업

우즈벡키스탄 GDP의 약30%를 점유하고 있는 농업식품부문은 최우선 개발분야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 농업부문에서 면화 생산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세계 제5위 생산국이자, 제2위 수출국이기도하다. 1995년 높은 세계시장가격으로 면화는 전체외환획득의 75%를 점유하고, 재정적자를 GDP의 4% 선으로 억제하는데 기였으나, 1996년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우즈벡의 무역적자는 348백만불로 확대되었고, 이전에 이룩한 발전을 왜곡시키기도 했다.

1998년 현재 면화의 대외수출은 국가독점체제로 남아있고, 대외경 제관계부가 관리하고 있다. 1997년 전체 면화생산의 80% 이상이해외로 수출되었고, 전체 외환획득의 36%를 점유했다. 그러나 면화생산은 1998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는데, 1998년에는 20년만의최저 생산량을 기록하기도했으며, 앞으로도 생산량 감소는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토지의 곡물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목표에 기인한다. 1995년 곡물재배면적은 1.3백만헥타였는데, 1996년에는 1.7백만헥타로 증가한 반면, 면화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백만 헥타에달한다. 정부는 농업부문의 개혁과 사유화를 통해 곡물생산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대한 외국인 투자는 면화, 담배 및 식품가공 부문에 집중되어있다. 미국 Case Corp.는 농기계 공급에 성공적이고, 식품가공분야에는 코카콜라, 스위스 당과류 제조업체가 투자해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 5년간 1억4천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350백만 리터의 음

료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영국 BAT사는 3억불을 투자하여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1998년 10월 터키-우즈벡 합작기업은 우즈벡 최초의 설탕공장을 건설하였는데 하루 3톤의 사탕무우를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일 본은 면화부문에 10억불을 투자했는데, 1999년 5월말 일본 수출입 은행은 46백만불의 융자제공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자금은 치 나제에 면사생산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광업

우즈벡의 비철금속, 특히 금은 수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개발되었다. 현재 연간 70톤의 금을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 7대 생산국이며 또한 제4위 매장국으로써 발견된 금광의 25%가 개발된 상태로써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외에 우라늄, 동, 아연, 텅스텐, 은, 몰리브덴과 납이 상당량 매장되어있다. 현재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으로써 1996년 미국에 수출한 우라늄농축물은 11백만불에 달한다. 타쉬켄트 인근에 위치한알마룩 광산은 연간 3억불어치의 동과 1천만불의 아연을 수출하고있다. 그러나 1998년말 시도했던 알마룩 공장의 주식 40% 매각시도는 세계 원자재가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실패했다.

에너지

우즈벡키스탄은 상당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천연 가스가 풍부하여 세계 10위권내에드는 생산국이다. 1985년 가스의 자급자족을 이루었는데, 160여개의 석유가스전이 발견되었다. 석유 가스생산은 우즈벡 국영업체인 우즈벡네프테가스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4개의 관련 조합 및 기업과 250개의 중소 업체로 구성되어있다.

미국 및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로 진행되고 있는 코크두말락 유전의 사이클링콤프레서 건설에는 우즈벡네프테가스와 합의서를 서명한 미국 Kellogg와 일본 Nissho Iwai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 ABB Lummus Global과 일본 Nissho Iwai는 수르탄 가스화학공장 에서 연간 125천톤의 폴리에틸렌과 138천톤의 액화가스 생산 프로 젝트를 추진중이다.

우즈벡은 구소련 붕괴이후 석유생산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1996년 말 우즈벡은 원유의 자급자속을 달성했는데 2000년까지 원유생산을 1천톤으로, 2010년까지는 12백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자금확보가 최대 난관으로 남아있다.

우즈벡의 가솔린 분배시스템은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88 개 분배센타와 800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중 사유화된 것은 230개에 달한다. 현재까지도 농촌지역에서는 주유차가 길거리에서 주유해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분배망을 개선시키는 것은 우즈벡 정부의 우선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CNG) 의 분배망 개설도 추진중인데, 미국 American Engineering Incorporated가 이 분야에 참하기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Texaco는 페르가나 정유공장에서 텍사코 브랜드의 윤활유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발표했는데, 페르가나 정유공장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EBRD와 일본 수출입은행이 1억8천만불의 자금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일본 Mitsui와 Toyo engineering사가 공사 시행자로 낙찰되었다. 부하라 정유공장은 프랑스 Technip와 일본 Marubeni & JGC사에 의해 현대화 건설작업이 진행중이다.

전력부문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화력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발전능력은 11천 메가와트인데 추가로 4천메가와트 발전용량을 갖춘 발전소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최대 발전소는 수르다랴와 나보이 발전소이며, 석탄을 사용한 발전

소는 안그렌 노천광 근처에 2개 발전소가 건설되어있다. 수력발전소는 25개 있는데 전체 전력공급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송전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들도 추진되고 있다. 타쉬켄트 전력배급망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우즈벡 우즈타민라쉬사와 독일 시멘스사가 합의서를 체결한 후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제조업

우즈벡의 제조업에서는 섬유, 자동차와 항공산업부문이 가장 발달해 있다. 경공업협회(Uzbeklegprom)는 전체 섬유제품 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직물생산은 1993년 700백만㎡ 에서 현재는 349백만㎡로 감소한 상태이며, 터키, 한국, 독일, 미국 및 이태리 파트너와의 합작으로 생산량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우즈벡 자동차 산업은 중점육성 전략산업으로써 독일 벤츠사와 한국 대우의 합작기업이 설립됨으로써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벤츠사는 1995년 400대의 트럭을 조립생산했고, 안디잔에 위치한 대우 합작기업(658백만불 투자)은 199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00년까지는 생산량을 연간 20만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1999년 3월말 사마르칸트 삼코차브토 합작공장(터키)의 개관식이 있었는데, 이 공장은 연간 5천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항공산업부문의 발전은 그리 빠르지 않은 편이다. Chkalov 항공기 제작소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데, 1996년 9월부터 IL-114T 화물기와 IL-114 여객기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국제항공증명소로 부터 증명서 획득을 위한 각종 테스트가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대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가전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대우는 가전제품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52백만불을 추가 투자

하여 2003년까지 생산량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관광

우즈벡은 고대 `비단길'로 알려진 4천여개의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사마르칸드, 부하라와 히바가 그 중심도시들이다. 우즈벡국영관광회사인 Uzbektourism이 주요 관광업무 담당회사인데, 1992년 1백만명에 달하던 관광객이 현재에는 10만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우즈벡내 열악한 외국인 거주여건과 역내 정세불안 등으로 관광산업은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데, 민간관광회사의 성장과 외국투자유치에 관광산업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타쉬켄트에는 Taj Babur와 호텔 인터콘티넨탈이 진출하여 호텔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있으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호텔의 객실 사용율은 30%를 훨신 밑돌고 있다. 최근(1999년 3월) 힐튼 호텔은 타쉬켄트 중심가의 신호텔 경영권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호텔업에 진출하였다.

운송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의 항공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즈벡 국영항공사를 포함해 루프트한자, 터기항공, 아시아나, 트란스아에로, PIA 등 다수 항공회사들이 런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만체스터, 아테네, 이스탄블, 델리, 방콕, 쿠알라 룸푸르, 말리, 베이징, 서울, 모스크바 등지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항공, 그루지야항공, 아에로플로트, 아제르바이잔 항공 등이 취항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즈벡 철도 현대화에 3천만불 융자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첸겔디-타쉬켄트-하바스트-드지작-사마르칸드를 연결하는 320km의 노선을 개보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통신

현재 전화망은 150만 회선에 불과하고 아날로그 교환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즈벡 통신시스템은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셀룰라 통신망과 디지탈교환기가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우즈벡 합작기업인 Uzdenrobita는 모토롤라와 카나다의 Northern Telecom의 설비를 이용하여 셀룰라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5개 회사들이 지난 2년간 셀룰라 통신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에는 Buztel(인도네시아), Coscom(러시아), Unitel(대우), Uzmakom(말레이시아), U-Tel(미국) 등이다.

독일 지멘스, 한국 대우, 알카텔, 일본 미츠이는 디지탈 통신망 개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투자프로젝트들은 일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의 1억2천만불의 융자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우즈벡키스탄 투자실적

1999년 4월 30일 누계기준으로 총 투자는 21건에 1억9,374만불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4건에 1억 9,066만불, 무역업이 2건에 88만불, 기타가 5건에 220만불이다.

7.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우즈벡키스탄의 국가코드는 998이고, 타쉬켄트의 도시코드는 71번 (전화번호가 6자리인 경우 71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우즈벡키스탄 소재 한국기관

주우즈벡키스탄 한국대사관

주소: Afrosiab 7, Tashkent, Uzbekistan

전화: 152-3151/3, 4201

팩스: 120-6248

E-mail: amb@korea.org.uz

KOTRA 타쉬켄트 무역관

주소: 7, Afrosiab Str., Tashkent, Uzbekistan

전화: 20-6734 팩스: 20-6735

E-MAIL: kotra@korea.org.uz

한국 소재 우즈벡키스탄 기관

주한 우즈벡키스탄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타 701 (137-072)

전화: 574-6554 팩스: 578-0576

우즈벡키스탄 주요 정부 부처

재무부

주소: 5 Mustaqillik Sq.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3-1943 or 139-1128

국가사유화위원회(Goskomimuschestvo)

주소: 6 Mustaqillik Sq.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9-1300

대외경제관계부

주소: 75 Buyuk Ipak Yuli Tashkent, Uzbekistan

전화: 68-9256

통신부

주소: 1 Alexey Tolstoy Street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3-6645 또는 133-6666

외무부

주소: 9 Uzbekiston Ave.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3-647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소: 29 Suleimanova Street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9-1247

거시경제통계부

주소: 45 a Uzbekiston Ave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9-8216

법무부

주소: 5 Sayilgoh Street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3-1305

외국인투자청

주소: 16a Navoii Street Tashkent, Uzbekistan

전화: 41-5541 또는 41-5752 팩스: 120-1201 또는 144-2603

중앙은행

주소: 6 Uzbekistan Ave. Tashkent, Uzbekistan

전화: 133-6829

나. 여행안내

비자

우즈벡키스탄에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주한 우즈벡키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권장되지는 않지만 타쉬켄트 공항에 도착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호텔

우즈벡키스탄내 호텔 사정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중에서 가장 우 수한 편이나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통신

우즈벡키스탄의 통신사정을 열악한 편이며 아직까지는 모스크바 통 신망을 통해 국제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치아

우즈벡키스탄의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는 절도 및 강도를 조심해야한다.

환전

우즈벡키스탄내에서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는 주요 호텔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한 여행자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찰을 준비해야한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1월 7일 성탄절(러시아 정교) 3월 8일 이드-알-피트르(이슬람, 매년 바뀜)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21일 나우루즈(이슬람 신정) 4월 7일 이드-알-주하(이슬람, 매년 바뀜) 5월 1일 노동절 5월 9일 승전기념일 9월 1일 독립기념일 12월 8일 제헌절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수 도: 아쉬하바드(50만명, 語義는 '사랑의 도시')

면 적: 491.2천 ㎢

인구밀도: 9.5명/k㎡ 인 구: 499만명

화폐단위: 마나트(Manat, 1993년 11월 도입)

5.200 마나트 = \$1 (1999.6.6)

접경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이란, 아프카니스탄

주요하천: 아무다라江(자국내 통과길이 1,415 km)

평균기온: 1월 -0.5℃, 7월 29.5℃

시 차: KST-2시간

1. 개관

인구 499만명의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독립부족들이 모인 느슨한 형태로 대부분 황무지로 이루어져있다. 이곳에는 퀴질쿰 사막이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카스피해 동쪽에 고립되어있다. 전통적인 부족간의 관계는 여전히 사회적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 세계로부터의 통신이 개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은 카자흐스탄인이나 키르기즈인처럼 19세기 중반 이후까지 유목민들이었다. 이때 러시아 정착민들이 이곳에 이 주하여 이들의 생활 터전인 광활한 유목지대를 점령했다.

농업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공화국 경작지 거의 대부분이 관개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소비자들은 정부 보조금 덕택에 고립된 구소련 체제의 붕괴로 인한 충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의해 유지되는 생활 수준마저 구소련 공화국중 가장 낮았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갔다.

1992년과 1993년, 니야조프 정부가 에너지, 교통, 농업, 통신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해 의욕적으로 사유화 정책을 펼쳤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 목표 달성은 미미했다. 상업, 은행 관련 법제의 개혁에 있어서도 진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시절 주요한 천연가스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계속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교역국이었으며, 1990년 중반에 터키 다음인 2위 자리로 밀려났다. 이란과의 철도 연결도 중요한 경제적 성과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 매장

량은 약 15조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매장량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국 영토의 거의 대부분이 잠재적인 생산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요 매장지는 카스피해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원은 원유이며, 약 60억 배럴이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정책은 서방세계의 천연가스수요에 크게 의존해있었다. 그러나 카스피해 동쪽 해안에 고립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판매는 파이프 라인에 크게 의존해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 북부-남부 축을 잇는 파이프 라인은 이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로써, 이 라인을 동서로 확대하는 새로운 파이프 라인 건설이 계획되었으나 지방 세력과 미국의 지정학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파이프라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수출국은 구소련 시절의 수출국들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모두 빈곤해진 CIS의 공화국들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왔다. 전체적인 목표는 타직스탄 내전과 같은 지역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유리한 지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었다. 1996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은 영구중립을 선언하고 어떠한 군사 혹은 공동 행동책임을 부여하는 정치군사 동맹에 대한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91년 집권한 니야조프 대통령은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2002년까지 연장했으며, 국가의 외교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특정한 그룹으로부터 동방 정책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그는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

국들과의 다자간 협정을 회피해왔다. 1994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 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결성한 중앙 아시아 관세 동맹 가입을 거부했고 주도적인 합의에서 출발한 중앙아시아 경제동맹 가입도 거부했다.

1995년 말 무렵, 우즈베키스탄과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자 투르크메니스탄은 급기야 이 지역의 모든 회담의 참가를 거부했다. 한편, 1996년 1월 양국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협정을 도출해내었고 1996년 상반기에 도로, 철도교통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논의되었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7.7	6.8	6.7	5.1	4.9
GDP 성장	%	-18.8	-8.2	-7.7	-25.9	-1.0
인플레률	%	1,748	1,005	992	84	25
인 구	백만명	4.4	4.5	4.6	4.7	4.7
수 출	\$백만	2,176	2,084	1,691	759	575
수 입	\$백만	1,690	1,644	1,532	1,004	925
외환보유고	\$백만	927	1,170	1,172	1,285	
환 율	manat/\$1	60	449	4,016	4,165	5,200

자료원: EIU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와 면화 수출을 통한 외환획득 가능성을 보

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운영 시스템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러시아 시장에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여타 CIS 국가들에대한 채권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강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GDP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은 전체 고용의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면화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 정부는 금세기 말까지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각종 낙농 및 설탕 가공공장과 설비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면화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선호하는 농작물로써 국민경제를 위한 외환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작물 다양화 정책 때문에 향후에는 면화 경작지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1995년 5월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철도가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190마일에 달하는 철도는 중앙아시아를 인도양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이란의 마쉬하드에서부터 투르크멘스탄의 테드젠시를 연결하고 있다. 이 노선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무역 특히 대규모 선적과 내구성 제품의 운송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도는 유럽과아시아 지역간의 여행시간을 1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를 통한 운송은 철도운송에 의해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의 낮은 유가는 도로운송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가능케하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3,400 km의 도로연장을 갖고 있는데 이중 13%는 비포장 도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항공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6대의 보잉기를 구매했다. 루프트한자도 투르크메니 스탄으로 취항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호텔 및 회의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인프라에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투자우선순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규모를 감안할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당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 미국 및 이란 다음으로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소련 당시 탐사자료에 따르면 매장량은 15조 cbm에 달한다. 석유는 60억배럴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또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카라 쿰 사막에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황(sulfur) 매장이 확인되었다. 또한 채굴이 가능한 인산, 소금, 염화 나트륨과 황산 나트륨을 보유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순수출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800억 cbm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중 대부분을 수출할 수 있다. 실제로 구소련 당시 수출의 1/10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석유자원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안된 상태이다.

1998년 석유생산은 630만톤에 달했다. 대부분의 석유는 첼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코투르-테페 대형 유전과 네비트-다그 유전이포함된다. 또한 카스피해 연안에서도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 앞으로의 석유개발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 부문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국의석유 및 가스전 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만큼을 외국 기업들에게 양보할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8개 유전구역 개발을 추진중에있다. 이에는 남부 카스피해 연안, 중부 카스피해 연안, 프레-코페

트다그 연안, 서부 코페트다그와 미시랸스카야 해 그리고 아무 다라 의 오른편 지역이 포함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 및 가스산업은 막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법률미비와 수출시장 제한 등 외국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 파이프라인 시스템에대한 의존도는 이 분야의 개발과 외국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을 우크라이나와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로 제한하고 있다. 경화 시장에대한 제한된 접근은 1998년 가스생산이 구소련 수준의 1/5 수준으로 감소하게 만든 원인이다.

1995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프롬간의 합의서가 서명되면서 1996년 수출여건은 개선되었다. 가스프롬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르크멘로스가스(TRAO)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가스프롬이 44%, Itera International Energy Corp.(US)가 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투르크메니스타이 우크라이나와 코카서스지역으로 수출하는 모든 가스를 가스프롬이 구매해서 운송하도록되어 있다. 이는 이들 수입국가들의 체불 문제를 가스프롬이 떠맡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nocal(US)와 Delta Oil(사우디)는 35억불을 투자하여 투르크메니스탄-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 가스프롬과 합의했다. 다른 파이프라인, 예를들면투르크메니스탄-이란-터키 라인, 투르크메니스탄-코카서스-터키라인, 투르크메니스탄-중국-일본 라인,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터키라인 등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유일한 라인은 이란으로의 라인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란에대한 미국의 엠바고로인해 국제자금 유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루트들도 재정난으로 그 실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1996년 7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석유가스산업 및 광산자원부를 조

직하고 바투르 사랴예프를 신임 장관으로 임명했다. 라야예프 장관은 사파르무라트 누리예프 부총리 산하에 있으며 직원을 거의 50% 가량 축소했다. 또한 5개의 협회는 부총리 지속으로 설립되었는데 석유생산을 담당하는 투르크멘네프트, 가스생산을 담당하는 투르크멘가스, 에너지 관련 건설을 담당하는 투르크멘네프트가스스트로이, 정유와 판매를 담당하는 투르크멘네프트가스 그리고 지질학적 탐사등을 담당하는 투르크멘지오로기가 그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다. 투르크멘바쉬 정유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550만톤에 달한다. 차르드줘우 정유소는 러시아의 서부 시베리아로부터 수입된 원유를 사용하는데 연간 6백만톤의 정유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정유공장들은 노후화되어 있어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또한 소규모의 섬유 및 화학산업체들을 갖고 있으며, 현재 비료, 요소, 황 그리고 탄산염을 생산하고 있다.

경제개혁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정부에 의해 타이트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니야조프 대통령이 배부분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가스와 면화의 수출로 어느정도 활기를 띠었다. 구소련의 붕괴후 여타 CIS 국가들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 이 기간중 국민소득은 45% 증가했다. 농산물 생산은 안정적인 반면 산업생산은 10% 정도 감소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에너지 수출가격의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 식료품과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1993년중 수차례에 걸쳐 소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CIS 국가중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3년 가을 자국화폐 마나트를 도입했 지만 극심한 평가절하를 겪었다. 지난 2년동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는 긴축정책을 고수했다. 그 결과 인플레는 급격히 진정되어 1995 년 1,005%였던 것이 1998년에는 25%에 불과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해짐에따라 1994년초 투르크메니스탄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위기를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95년과 1996년에도 반복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것에대한 러시아의 거절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주 수요처인 우크라이나는 1993년과 1994년 대금 지불을 제때에 하지 못했으나, 1994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공급 중단 위협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부채는 연리 8% 이자로 7년간 상환하기로 재조정되었다. 1995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는 경화 및 바터 형태로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가스 부채를 1998년 말까지 가스전으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가스프롬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용 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정문제는다소 완화되었다.

비록 개혁정책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취한 조치들은 기업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 1995년 12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사회경제개발 대통령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이는 IMF가 권장한 프로그램이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국제수지 문제로 IMF의 대기차관 합의를 얻어내는데실패했다. 경제개혁의 최대 목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 마나트화의 태환성 확립과 경제구조조정이다.

정부는 1996년과 1997년의 야심에찬 사유화 플랜을 발표했다. 각정부부처는 소속 자산의 15%에 해당하는 사유화 대상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국가자산 및 사유화청 청장에 따르면 800개의사유화 계획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가 330명을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유화와 사유화증서을 도입하는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현재 서비스 부문만이 완전히 사유화 되었으며, 변화가 극심한 각종 법령과 조세는 기업활동의 팽창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1992년까지 산업체의 사유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단지 10%의 공장만이 사유화 되었을 뿐이다. 1992년부터 약 6천개의 소기업의 설립이 허용되었지만 중대기업의 경매(사유화)는 연기되었다. 정부는 에너지 및 면화산업의 사유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자원의 개 발을 위해 외국투자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의하면, 개인은 농경지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민간 농장이 있을 뿐이다. 농업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장의 일부분을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농은 토지를 판매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형국영 및 협동농장들은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 및 농혼생활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국가구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적자 농장들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개인농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무문에 있어 한국 기업들은 각종 농기계와 관개시설 및 종자 등을 공급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내수요와 수출을 위한 식품가공설비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분야 기업체들에대한 통제의 끈을 늦추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1993년 5월 약 9천개의 소기업체가 등록되어 있었다. 정부는 민간업체 라이센스 및 가격제한에관한 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추가적인 비즈니스의 개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12.6	10.5	9.9	10.1	9.4	9.3
석유	백만톤	4.8	4.4	4.5	4.3	4.5	6.3
천연가스	십억m³	65.3	35.7	32.3	35.2	17.3	13.3
화학비료	천톤	127	86	68	62	•••	68
직물	백만m²	47.9	33.1	35.1	40.2	40.8	43
곡물	천톤	974	4,130	1,109	600	706	1,245
면화	천톤	1,341	1,283	1,293	450	635	707
육류	천톤	712	716	727		755	765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자자금 및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대외경제관계부는 가스, 통신, 운송, 제조업, 관개, 농업, 섬유 및 보건분야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해 1995년 11월 93개 주요 프로젝트를 리스트화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들에대해 경쟁 베이스로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빈 번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은 생소한 개념으로 남아있으며, 기업들은 상당한 레드 테이프를 경험하고 있고, 주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관련 법령

1992년 5월 19일 외국인 투자법이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투르크메니스탄 자국법을 따라야하고, 대외경제관계부에 등록해야한다.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는 법령은 3년간 적용이 면제된다.

모든 수출입 거래는 국가상품현물거래소(CRME)를 통해 해야하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하며 매 거래에는 0.2%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투자청(SAFI)에 수출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한다.

새로이 설립된 외국인투자청(SAFI)은 자국내 모든 외국인 투자활동을 관장한다. 투자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때 사업개요, 시장분석, 원재료 공급게획, 사용기술, 운영계획, 인력조달, 프로젝트 수행 스케쥴, 재무상태 등에관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외국인 투자청은 사업타당성과 경제적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심사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청의 제청으로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사업승인을 발표 하며, 승인이 나면 회사 등록(등록비는 2,000~3,000불)을 하고 투 자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관련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투자청 (T.993-12-35-0231, 35-0318, F.35-0415)에 문의하면 된 다.

조세

투르크메니스탄은 조세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25%의 이윤세와 15%의 배당금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업체가 투자자금을 완전히 회수하는 시점까지 이윤세를 면제 받는다.

금융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 11월 1일 자국화페 마나트화를 도입했다. 1994년 12월 14일자 대통령 령으로 자국내 모든 거래는 마나트화로 하도록 되었으나,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환율 차이가 점차로 좁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은 현지 은행을 통해 마나트화를 구입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상업은행들은 경화 뿐만아니라 현지화 유동성이 부 족한 실정이다.

4. 수입관리제도

관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입되는 상품중 어류, 맥주, 포도주, 주류, 담배, 귀금속,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관수수료는 0.2%이며, 20%의 부가가치세(식품류의 경우 10%)를 납부해야한다.

외국인 기업이 설립자본금 혹은 생산용도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포장, 라벨링, 증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제한이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어떠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에도 참가하지 않은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및 인디아 각국과 이란이 함께 참여한 3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WTO 가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소비세(excise taxes)

소비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주요한 무역 장벽이다. 1997년 소비세 부과대상품목을 기존의 11개에서 104개로 확대했다. 소비세는 중앙은행 공식환율로 환산하여 마나트화로 부과되는데, 주요 품목들은 다음과 같다.

품목명	소비세율
맥주	\$0.50/1리터
포도주	\$1.00/1리터
주정, 알코올	\$1.50/1리터
광천수	20%
소금	30%
우유제품	30%
토마토 소스	30%
피클	50%
토마토 쥬스	50%
수박	100%
포도	100%
채소	100%
담배	\$0.25/1갑
자동차	10~15%
면직물	50%
가스 스토브	20%
케이블	15%
시멘트	\$5/톤

정부간협정, 정부령 또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 국가차관 등에 의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을 경유하는 물품,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기술지원에의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면제된다.

한편 정부는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포한된다.

품묵명 소비세율

광처수

- 9월에서 2월사이 0%

- 3월에서 8월사이 \$0.20/리터

毛

\$200/톤 \$50-100/톤

가축 가죽

암모니아 초석 \$100/톤

통관절차

통관시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국가상품현물거래소(SCRME)에 등록된 계약서
- 선적서류
- 세관신고서

세관신고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상업회의소의 아쉬하바드-검사소로부 터 구할 수 있다. 1개 상품군에대한 세관신고서는 10.800마나트이 며, 추가 양식(3개 상품 카테고리 기재 가능)은 7,200마나트이다.

Ashgabat-Expertisa Firm

주소: 17 Baymukhamed Batyrov S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993)(12)25-1352, 35-4174

안전증명서, 안전증명서는 국가규격검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State Chief Standards Inspectorate

주소: 14 Seidi S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993)(12)51-1494, 51-1432

팩스: (993)(12)51-0498

면제품의 경우 국가면협회에서 수출용 면에대한 안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 중앙은행의 송금 증명서 또는 취소불능신용장

수출입 라이센스

1994년 11월 대통령령에따라 수출입 라이센스 대상품목은 대통령 승인사항과 각료회의 승인사항으로 구별된다.

대통령이 수출입을 통제하는 품목은

- 무기류
- 화약류
- 방사성 물질
- 귀금속류
- 마약류
- 특수용도 원료, 설비 및 기술
- 이중용도 기술 및 장비
- 해외투자
- 과학연구물의 수출
- 독극물

한편 각료회의의 수출입 통제를 받는 품목은

- 화학제품
- 독극물
- 산업 폐기물
- 문화재
- 보석류
- 오래된 그림
- 고고학 발견물
- 고대 화폐
- 예술품
- 지질학 및 생물학 재료
- 중앙아시아 양-개(sheep-dog)
- 알테케 말(馬)
- 순종혈통 가축
- 야생 동물
- 야생 식물, 화석, 뿔
- 토질, 에너지 자원과 광산물에대한 정보

무역자원부는 주류 수입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귀금속기금은 귀금속 및 보석류의 수출입에 대해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국가상품현물거래소(SCRME)는 수출입 라이센스를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거래소에서의 경매에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직접 무역계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품질증명서를 첨부한 계약서 3부(원본)와 품질증명서를 국가상품현물거래소에 제출해야한다. 이 거래소의 경매를 통한 물품은 별도 라이센스 없이 수출입 될 수 있다.

국가상품현물거래소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계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신청서에는 구매 혹은 판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원산지, 현 소재지, 운송조건, 지불조건과 판매자의 연락처를 명기해야한다.

청산계정, 크레딧 그리고 바터형태의 계약도 또한 국가상품현물거래

소에 등록되어야한다.

규격, 라벨링과 표시 요구사항

면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들은 국가표준검사소(State Chief Standards Inspectorate)가 정해 놓은 품질규격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한다. 수출용 면화는 면화검사소의 증명을 받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산 제품에대한 "국가규격"을 제정해나가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은 ISO 회원국으로써 대부분의 국가규격은 국제규격의 요구조건과 일치한다.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포장이나 라벨링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5. 수출 유망 분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입품목구조(`97)를 보면 기계류가 전체 수입의 42.4%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식품류(18.9%), 화학공업제품 (11.7%), 건설자재(2.3%) 순이다.

의료용품과 설비

투르크메니스탄의 의료용품 시장은 4천만불 규모이며, 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7%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기초 의약품을 포함 한 대부분의 의료용품의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의료용품 생산 설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95백만불을 투자하여 의료분야 시설 현대화, 새로운 병원건설, 의약품의 국내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헤르메스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이 180만불의 자금을 지원하여 1999년 2월 의료용 용제 생산공장이 건설되었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 투

르크메니스탄 보건부는 독일 비르크메이어르사로부터 의료용 붕대 생산설비를 구매하는 계약(6백만불)을 1999년 4월 체결하기도 했다.

석유 및 가스산업: 탐사, 개발, 서비스와 설비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이란 다음의 세계 제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가스 매장량은 13~21조 cbm으로 추정된다. 1992년 투르크메니스탄은 840억 cbm의 천연가스를 생산했으나 1998년에는 1/5 수준으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수출 파이프라인의제약과 최종 소비자의 지불불능 사태로 인해 가스 생산은 1998년 133억 cbm으로 감소했다. 이란으로의 가스관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20억 cbm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은 터키,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으로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60억 내지 80억톤에 달하는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1998년 투르크메니스탄은 630만톤의 석유를 생산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2개의 정유공장이 있는데 Turkmenbashi 정유공장과 Seidi 정유공장이 그것이다. Turkmenbashi 정유공장은 현재 개보수 과정에 있는데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 세이디 정유공장은 시베리아산 석유를 정유하고 있는데 가동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 및 가스 탐사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루트 개발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9개 매장지가 합작 및 생산물 분배 대상지가 되었다. 1997년 3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생산물분배계약과 합작기업 설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전력: 개발, 설비 및 서비스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1998년 전력생산은 93억 킬로와트에 달했다. 발전량의 15~17% 가량을 인근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종종 바터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이란으로의 새로운 전송라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라인을 통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그루지야로 전력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발전설비를 수입에 의존해야한다. 에너지산업부는 발전량 확충 및 발전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력 수출 기회 확충을 위해 정부는 아프카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에 이 르는 전력송신 라인 건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화학/광업: 개발, 설비 및 서비스

투르크메니스탄은 상당한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로 잘 개발되지 못했다. 광물성 비료, 요오드와 브로마이드, 탄소, 황, 석고와 기타 광산물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이 10개 있다. 대부분의 생산설비는 개보수해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요오드 생산 설비 확충, 카보마이드와 제초제 생산 확충, 폴리에틸렌 제조를 위한 가스화학단지 건설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에 우선을 두고 있다.

또한 각종 철강류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망간, 알루미늄 그리고 광산물섬유 생산과 같은 산업의 발전 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설비, 케이블, 전구 그리고 기타 제품의 생산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건설, 분배 및 서비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대규모의 항공, 철도 및 도로운송망 개선프로그램을 시작했 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수준의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국제노선에 사용될 보잉 항공기 수대를 구매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를 페르시아 만으로 연결시키는 텐젠-세라흐-메쉬드 철도 300km를 1996년 개통했으며 카잔직-키주라트렉-벤데(이란)을 연결하는 철도와 투르크멘바쉬-예라리예보(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중에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키스탄,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 정부는 흑해로의 철로를 개선시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쉬하바드-마리 그리고 아쉬하바드-투르크멘바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도 진행중이다.

1994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공택시 구형을 처분하는 경매를 실시하였고 민간 택시업체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다음은 운송업체 및 서비스업체의 사유화가 될 것이다.

통신: 설비 및 서비스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 당시의 낙후된 통신망을 물려받았다. 1994년 미국통신사는 미국 무역개발청의 자금지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 통신개발 10년 마스타 플랜을 수립했고, 이 플랜에 기초하여 EBRD는 투르크메니스탄 통신부가 디지탈 통신망 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하는데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그 완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부는 농촌지역 통신인프라 현대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리 자금 조달을 추진중이며, 위성통신망의 설치를 위한 파트너를 물색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시아를 경유하는 유럽 광통신망의 708 km를 점유하고 있다. 이 라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하여 중국 상하이까지를 연결하는 것인데, 이란 통신회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을 완공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 기술과 서비스

투르크메니스탄은 250억㎡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8%가 지상수이다. 아무 다랴강은 220억㎡의 물을 매년 공급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한 강으로는 무르가비, 텐젠 그리고 아트렉강이 있으나이들 강은 여름에는 건조하여 강바닥이 드러난다. 모든 주요 강들은 인근국과 접경에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접경국과 수자원공유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카라쿰운하는 1,300 km에 달하며 아무 다랴강을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지역과 연결하고 1백만 헥타(투르크메니스탄 총경작지는 177만 헥타)에달하는 농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관개기술의 낙후, 운송중의 높은 증발 등이 문제점이며 관개펌프 시스템과 운하는 현대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카스피해 해면의 상승, 관개시설의 환경파괴 및 아무 다랴강의 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카스피해는 약 150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왔다. 카스피해 연안의 환경오염적인 유전개발과 저수시설로인해 가까운 장래에 환경재앙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자원 개발과 폐수처리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개선을 필요로하는 분야이다.

농기계와 서비스

- 추수 수확기
- 건초장비
- 트랙터
- 낙농장비
- 축산장비

외국 기업들은 농업관련 장비, 트랙터, 콤파인 그리고 면화 수확기 공급에 있어 상당한 시장진출을 이루고 있다. 이 분야는 다가오는 장래에도 시장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프레이어

- 펌프 및 설비

4,880만 헥타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 국토중 경작지는 0.04%에 불과하고 이중 70%는 관개에 의존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관개기술과 장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작지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카라쿰 운하는 아무 다랴강을 남서부 지역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관개수로에의한 수자원 공급이 유일한 공급원이다. 카라쿰 운하에는 3개의 저수지가 건설되어있고 115개의 펌프, 댐, 수로 및 기타 시설이 있다. 대부분의 시설은 개보수해야할 형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쇼르켈쉬키 신 저수장 건설, 제이드스키 저수장내 2개 운하, 카라쿰 운하를 키줄카이 저수장으로의 연장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펌프 설비, 관개시스템 건설 및 서비스는 유망한 투자분야이다.

- 플랜트와 비료 설비
- 파종 경작기

구소련 국가중 투르크메니스탄은 농산물 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였다. 건조한 토지를 개발하고 좋은 종자를 확보하기위한 투자가 필 요한데, 현재 정부는 씨앗과 현대적 기술의 부족 그리고 민간 농장 의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새로운 면화 종자와 양질의 밀 씨앗을 필요로 한다.

식품가공과 포장설비

- 포장설비
- 가공설비

정부는 식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가공을위한 여러건의 건설

계약에 관여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대부분의 경우 완공되지 못했다. 많은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수입한 장비의 80%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SAFI는 식품가공설비의 수입을 당분간 중지하고 기존 완공되지 못한 프로젝트를 완공해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원자재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에대한 진출을 환영하고 있다:

- 낙농품의 가공과 포장
- 육류 가공과 통조림 생산
- 소시지 생산
- 치즈 생산
- 닭고기 생산과 가공
- 과일 및 채소 가공과 통조림 생산
- 조미료 생산
- 맥주 생산
- 음료수 생산
- 포도주 생산
- 농산 폐기물 가공

우리나라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0.4	1.5	3.1	8.4	7.5
수 입	2.8	1.0	0.2	0.03	0.1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투르크멘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古寺の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 계	3,127	99.8	8,476	171.0	
폴리에스텔직물	104	-	3,178	*	
제조담배	0	_	1,142	_	
착색아연도강판	0	_	1,138	_	
에어콘	0	_	414	_	
P/C직물	0	_	327	_	
승용차	347	_	311	-10.6	
상용차	78	_	282	260.0	
건설중장비	0	_	204	_	
염색	0	_	167	_	
나이론직물	0	_	98	_	

자료원: KOTIS

6. 투자 진출 유망 분야

다음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들이다.

석유 및 가스

- 총연장 1,400km 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터키-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총연장 1,500km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아프카니스탄-파키 스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 총 6,700km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중국-일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 총 1,050km에 달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이란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정유공장 현대화
- 차르조우 정유공장 현대화
- 세이디에 연간 20만톤의 폴리에틸렌 제조를 위한 가스화학 콤플렉스 건설
- 카스피해 유전 개발

에너지 및 산업

- 2,001km에 달하는 철도의 전철화
- 215메가와트 발전소 4개의 마리 발전소의 재건
- 아프카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에 이르는 1,100km의 전력송신라 인 건설
- 네비트다그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발전소 건설
- 세이디 화력발전소 용량을 80메가와트 2개짜리로 재건설
- 보야다그 요오딘과 브로마이트 생산공장 건설
- 고그란다그 요오딘과 브로마이그공장 건설
- 차르조우 카본마이드 공장 건설

통신

- 아쉬하바드에서 다쉬호우즈, 네비트다그에 이르는 농촌지역 통신 인프라 건설
- 미주지역과 직통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운송

-차르조우에서 마리, 아쉬하바드,투르크멘바쉬에 이르는 총 1,132 km에 달하는 트란스아시아 고속도로 개보수/확충

- 차르조우 근처 아무 다랴강위에 열차와 자동차를 위한 다리 건설
- 투르크멘바쉬 및 툴리솔과 우프라에 항만 재건
- 국제화물운송망 개발
- 투르크메니스탄 덤프트럭 확충
- 자동차 서비스 시설의 건설
- 가솔린 자동차의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전환
- 2백만개에달하는 타이어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타이어 재생설 비 건설
- 축전지 제조설비 확충
- 자동차 부품 생산 확충

섬유

- 아쉬하바드 면직물공장 확충
- 아쉬하바드 견직물생산 확충
- 아쉬하바드 신발공장 재건
- 베즈메인 카페트 공장 확충
- 네비트다그 양말공장 생산 확충
- 차르조우 니트의류 공장 확충
- 세이디 면직물 공장 건설 완공
- 욜로탄 면직물 공장 건설 완공
- 가죽가공공장 건설 완공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 자체는 인내, 끈기 그리고 개인적 유대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 비즈니스 규범에 적합 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비즈니스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 관료들은 서구 상관행에 친숙해 있지 못하며 비즈니스는 개인적 영향력과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마케팅 방법들은 이곳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은 현 지 사무소 또는 반복된 방문을 통해 형성된 정부관료와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좀더 중소규모 기업들은 고위층과 만나 기까지 선의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

대규모 계약은 대통령 수주에서 결정되어지며 이를 위해 계약 체결이 가까워지면 회사 최고 책임자가 아쉬하바드를 방문하게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추후 팔오우 압을 위한 방문과 접촉이 필수이다. 통신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접촉을 대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지의 유통업체와 컨설팅 업체들을 통해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내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합작계약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각 합의서 문구를 놓고 일일이 협상을 전개해야하는데, 장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유통 및 판매 채널

투르크메니스탄 구소련 스타일의 중앙집중화된 분배망, 국가 주문 및 정부가격통제 체제를 물려 받았다. 정부는 소비재 가격을 자유화하고 있지만, 육류, 설탕, 밀가루, 소금, 빵 등과 같은 기초 식품류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된 고정 가격에 국영상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1994년 8월 현물거래소(SCRME)가 설립되었으며 국내외 상거래를 관장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외국 경쟁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SCRME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에따르면 대외교역은 청산계정, 무역금융, 바터계약, 합작자본 수출입, 자선활동 그리고 기타 SCRME에 등록된 형태로 해야한다. SCRME는 자선활동에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해 0.2%의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규모가 1천만 마나트(약 1,900불) 이하인 무역계약은 등록이 면제되며 바터계약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계약등록 이외에 SCRME는 소비재 및 원자재에대한 경매를 주관한다. SCRME는 증권시장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없지만 증권경매를 실시할 권한도 갖고 있다.

SCRME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자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SCRME는 내수시장 목적으로 생산된 소비재의 분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품들은 국영 도매유통망 또는 직접 거래에의해 분배된다.

무역자원부는 수출제한 정책을 결정하고 SCRME는 세부 조치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제한 조치는 투르크메니스탄내 공급이 부족한 상품에대해 적용된다.

에이전트와 디스트리뷰터의 활용, 프랜차이징

터키,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의 디스트리뷰터들은 도매 및 소매업체를 투르크메니스탄(특히 아쉬하바드)에 설립하고, 이전에 구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현지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트리뷰터의 숫자가 제한되어있어 가격은 매우 높은 편이다.

주민들의 낮은 구매력과 정부의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에따라 투르 크메니스탄에서 외국 디스트리뷰터의 수는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프 랜차이징 비즈니스는 찾아볼 수 없다. 사무소 등록 또는 합작기업 설립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는데 관심있는 외국투자자들은 먼저 외국투자청(SAFI)에 특정 투자프로젝트를 등록해야한다. 등록은 대부분의 경우 SAFI의 우호적인 추천에 달려있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한다.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SAFI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다:

- 프로젝트에대한 일반정보
- 시장분석
- 원자재 공급분석
- 설비의 위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용될 기술
- 운영 계획
- 사용될 노동력
- 프로젝트 실현 스케쥴
- 재무분석과 투자 평가

만약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외국 무역업체와 투자자들은 기업등 록 절차를 시작한다.

등록하기 위해, 외국업체는 투르크메니스탄내에 사무소, 지사 또는 법인을 위한 기업 재산을 공급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 야한다:

- 소정의 등록 양식
- 본국에 등록된 기업정관 사본(공증된 것)
- 정부기관(예를들면 영사관)으로부터의 공식 레터
- 기업의 재무능력을 증명하는 은행서류 원본
- 위임장
- 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운영규정
- 지사의 경우 지사의 운영규정과 타당성 조사서

- 지방사무소의 경우 지방사무소 정관과 타당성 조사서
- 합작기업의 경우 합작기업설립 합의서 사본, 합작기업 정관과 타 당성 조사서

서류들은 러시아어와 투르크메니스탄어로 번역되어야하며 번역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현지 기업(예를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 소)에의해 공증되어야한다. 요금은 1페이지당 5달러 수준이다.

SAFI는 기업형태에따라 차별적인 등록비를 부과하는데 원자재, 소비재 및 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은 2천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3천불,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사무소는 3천불의 등록비를 납부해야한다. 등록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하는데는 1,500불을 내야한다.

광고와 마케팅

투르크메니스탄내 상업광고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중매체는 매우 제한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3개의 신문과 TV 그리고라디오 방송이 고작이다. 시정부는 빌보드, 네온사인 그리고 기타옥외광고물 설치에대해 허가를 발급한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모든 주류와 담배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아쉬하바드 키오스트 등지에서는 담배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국기업들은 투르크메니스탄내 교육 또는 의료부문에 종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광고하는데 있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다.

국영 TV.라디오방송사(NTRC)는 자국기업 및 외국기업에대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 외국기업에대한 광고 제작비는 1분에 608 달러이고, 비거주 외국기업에대한 제작비는 1분당 1,216달러이다. 이 가격은 제품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 광고 방송비는 거주 외국 기업의 경우 1분당 243달러이고 비거주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486 달러이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외국 거주기업의 경우 48달러이고 비거주 외국기업은 97달러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구독자수가 많은 신문은 투르크메니스탄 어의 투르크메니스탄紙와 러시아어의 뉴추럴 투르크메니스탄紙이다. 각각 18천부와 40천부를 발간하는 일간지로써 반면 광고는 150만 마나트, 1/4면 광고는 90만 마나트, 1/8 광고는 50만 마나트, 1/16 광고는 30만 마나트이다.

정부 조달시장 진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여전히 정부에의해 소유되고 경영된다. 석유와 가스, 전력, 통신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미래 수요까지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사유화가 전진되면서 민간기업들이 점차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주요한 구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업체들은 정부에대한 판매에 중점을 두어왔다. 외국기 업들은 식품, 설비, 철강, 운송기기, 컴퓨터, 의료용품, 화학제품, 가 구 등을 투르크메니스탄에 공급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외 국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1996년 4월 국가투자청이 설립되어 외국투자 프로젝트와 무역금융에 관련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투자청은 대외교역 및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현재 검토중인 프로젝트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제 입찰을 실시하고, 외국 무역 및 투자업체를 등록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을 감시한다. 또한 국가개발기금이설립되어 석유 및 가스산업, 농업, 운송 및 통신분야에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코드는 993이고, 아쉬하바드 도시코드는 12 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무역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한국내에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정부부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주소: 24 Karl Marx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팩스: 35-45-34, 35-43-88

각료회의 부의장(무역,비즈니스개발,공공서비스,경공업 담당) 주소: 24 Karl Marx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59-15 팩스: 35-12-51

각료회의 부의장(석유 및 가스, 광산자원개발 담당) 주소: 24 Karl Marx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저항: 35-65-61 패스: 35-51-12 또는 35-30-96

전화: 35-65-61 팩스: 35-51-12 또는 35-30-96

각료회의 부의장(농업,식품가공, 농업건설, 면화생산 담당) 주소: 17 Neutral Turkmenistan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팩스: 35-11-34

각료회의 부의장(에너지 및 산업, 건설 담당) 주소: 6 Nurberdy Pomma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51-08-82 팩스: 39-06-82

각료회의 부의장(경제 및 행정담당)

주소: 17 Neutral Turkmenistan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36-04 팩스: 35-12-51

각료회의 부의장(외무장관 겸)

주소: 17 Neutral Turkmenistan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49-18 팩스: 35-12-51

각료회의 부의장(대외경제은행총재, 외국인투자청장 겸)

주소: 22 Zhitnikov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팩스: 51-10-70

각료회의 부의장(운송 및 통신담당)

주소: 17 Neutral Turkmenistan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00-40 팩스: 35-12-51

대외경제관계부

주소: 92 Kemine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9-75-11 팩스: 39-75-24

국가현물원자재거래소(CRME)

주소: 111 Makhtumkuli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43-21 팩스: 51-03-04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주소: 17 Karryev Street Ashgabat, Turkmenistan 744000

전화: 35-41-74, 35-45-94, 35-55-94

팩스: 35-53-81

E-mail: ccitm@cat.glasnet.ru

나. 여행 안내

비자

투르크메니스탄 입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스템프가 찍힌 초청장이 있어야한다. 보통 외무부는 5일내에 초청장을 발급해 주는데 수수료는 15불이다. 비자는 해외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쉬하바드 공항에 도착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쉬하바드 공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데는 25불이 소요되며 체류기간은 10일이다. 비자 기간은 외무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15불이다.

통화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찰 경제이며, 신용카드는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 는 사용되지 않는다. 달러의 경우 90년도 이후 깨끗한 신화폐권을 준비해야한다. 일부 현지 은행과 주요 호텔들에는 환전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환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호텔과 레스토랑들은 달러를 받 지만 모든 상거래는 마나트화로 결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호텔

아쉬하바드에는 20개의 일급 호텔과 영빈관이 있다. 많은 호텔들은 달러만을 받고 있으며, 아쉬하바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Emperyal Grand Turkmen과 Regal Ak Altyn Plaza Hotel은 국 제 예약을 접수하는 호텔이다.

교통

민을만한 현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현지 운전수를 고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운전수들은 일반적으로 그리 비싸지 않다. 아쉬하바드에서 택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통신

장거리 국제전화는 가능하지만 분당 4달러로 매우 비싸다. 교환원을 통한 국제전화 신청이 가능한데 079번을 돌리면 된다. 교환원을 통한 국제전화는 분당 7.8달러이며, 주요호텔에서의 국제전화요금은 분당 14달러이다.

공휴일

신정
지진피해자 추모일(1948년 발생)
라마잔(이슬람, 매년 바뀜)
國旗의 날
여성의 날
나우르즈
쿠반(이슬람, 매년 바뀜)
승전기념일
제헌절
추모의 날
독립기념일
중립선포일

타직스탄(Tajikistan)

수 도: 두산베(50만명, 語義는 '월요일')

면 적: 143천 k㎡ 인구밀도: 42.4명/k㎡ 인 구: 616만명

화폐단위: 타직스탄 루블(1995년 5월 도입)

접경국가: 우즈벡키스탄, 아프카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주요하천: 아무다라-판즈江(380 km)

주요호수: 카라쿨湖(380km²)

평균기온: 1월 -10.8℃, 7월 27.6℃

시 차: KST-4시간

1. 개관

파미르 산맥 서쪽에 위치한 타직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고 지정학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다. 타직스탄은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키르기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타직스탄은 이란의 문화와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문화적 배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소련이 인위적인 국경설정을 하기 전까지 타직인들과 우즈벡인들은 서로를 구분하지 않았다. (1929년까지 타직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일부였다.)

소련 시대에 타직스탄은 1917년의 미개했던 상황과 비교해볼 때교육, 산업, 인프라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타직스탄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중 가장 뒤처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의 개발 정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있었던 탓도 있고, 부존자원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험준한 지형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당시 타직스탄은 면화, 알미늄, 그리고 우라늄과 금을 포함한 다른 몇몇 광물을 생산하도록 지시받았다. 공화국 전역에 걸친 전쟁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그리고 지속적인 타격을 입혔다. 1994년에 산업 손실은 대략 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에 경제개혁을 향한 몇가지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1996년 초, 빵 가격 규제가 해제되었고 이후 일부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이는 시장 개혁이 실행되고 있다는 징조로 해석되었다. 정부는 1996년 재정적자 최고치를 GDP의 6%로 잡았다. 1996년 중반, 세계은행은 5천만불 차관 공여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IMF는 외환과 다른 상황들이 호전될 때까지 지원을 보류했다.

타직스탄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 기구에 대한 가입을 시도했다.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러시아가 결성한 관세동맹은 타직스탄의 회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경제동맹은 타직스탄의 가입 제의를 거부했으나, 결국 1997년 가입에성공했다.

1991년 이래로 다른 공화국들의 체제가 안정되어있었던데 비해 타직스탄의 정치권은 독립이 된 그 날 이후로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국민의 대다수가 회교를 신봉하고 있는 타직스탄은 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 1991년 8월 31일 국영을 타직스탄공화국으로 개칭하였으며, 9월 9일자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고르바초프 개혁 이후 민주개혁 및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반정부 이슬람세력의 폭력시위가 잇따르고 독립 이후에는 더욱 과격.대규모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정정불안을 겪어오 고 있다.

과거 정부측과 이슬람반군측간의 대립양상은 현정부가 전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한 가운데 현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를 비롯한 카자흐, 우즈벡 등으로 구성된 CIS 평화유지군의 역할과 반정부군의 상대적인 군사력 약화, 양측간의 평화협상 진전 등에 따라 다소 진정되고있는 반면, 현 라흐모노프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군벌세력간 알력이 심해 상호간 잦은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정국은 향후 상당기간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GD	Р	\$십억	5.2	4.5	4.1	4.0	4.1	
GDP	성장	%	-27.6	-15.0	-12.4	-4.4	2.2	5.3
인플리	네 를	%	5,995	249.8	630.1	418.1	87.8	
인	구	백만명	5.6	5.8	5.9	6.0	6.1	
수	출	\$백만	456	559	839	770	727	604
수	입	\$백만	660	707	880	808	732	771
외환보	유고	\$백만	2	1	4	14	30	
환	율	TR/\$1	_	_	135	298	564	

자료워: EIU

주) 타직스탄 루블은 1995.5.11일 도입됨.

타직스탄에서는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매우더기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무역루트의 붕괴, 내전, 자연재해 그리고 지난 70여년간 이루어졌던 모스크바로부터의 지원중단 등으로어러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뉴밀레니엄을 준비하는 3단계 경제개혁플랜을 작성하였다. 첫단계는 농업부문의 개혁, 사유화, 통화정책, 국가재정, 소멸해가고 있는 산업부문의 재건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혁의 진전은 느리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 IMF와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은 타직스탄에 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유통 및 지불 시스템의 붕괴, 교역조건의 왜곡과 모스크바의 재정지원의 중단은 타직스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구소련체제하의 계획경제로부터 좀더 개방된 시장지향적인 경제로의 전환은 어려운 과제로서, 법률상의, 체제상의 그리고 문화적인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내전과 자연재해로 더욱 가중되었다. 정치적 불안의 결과 타직스탄은 국제사회의 지원과 외국투자유치에 있어 여타 구소련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타 직스탄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주민생활수준은 내전발발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타직스탄 정부는 경제개혁을 실천하기위한 계획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에 필요한 법적 기초를 설립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통과가 필요하다. 사유화, 재정개혁, 가격 자유화와 은행부문은 정부 의 경제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부문들이다.

경제실적

정부발표에 따르면 1997년 GDP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41억불에 달했다. 그러나 타직스탄의 정부통계는 CIS 국가들중 가장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즉 정부통계에는 민간부문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계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93년 무려 60배에 달했던 인플레는 1996년에는 4.2배로, 1997년에는 88% 수준으로 진정되었다.

경제개혁의 기초전략

경제개혁플랜의 기초전략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

써 경제성장 및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경제체제의 변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안정화와 경제성장으로 나아가 는 탈출구를 찾기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제1단계

경제개혁의 제1단계는 각종 법률의 정비작업이 포함된다. 금융보험법, 통화유통법, 정부예산안, 저작권법과 중소기업지원령, 사기업 보호법 등이 1995-1996년간 채택되었다.

사유화

타직스탄 정부는 사유화를 가속화시키기고 증권시장의 형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이미 사유화 되었지만 중대기업의 사유화는 11%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사유화 기업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권력을 이용한 매수가 사유화에 있어 보편화되었고, 사유화 프로그램은 많은 부패로 점철되었다. 중대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새로운 플랜은 1997년 9월 1일로 시작되었다. 1999년 3월 현재 사유화된 소기업은 1,400여개사에 달하나 중대기업은 12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정도이다. 민간부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에는 신규업체의 진출 및 퇴출의어려움, 자금부족, 정보에대한 제한된 접근, 엄격한 노동법규와 불완전한 법률체제가 포함된다.

1991년부터 시작된 기업구조조정은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중 단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여세가 이어지고 있다. 1992년 6월 파산법 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파산절차를 밟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1995년 파산기업의 분별에관한 령이 발표되어 구조조정 및 비효율 적 기업의 폐쇄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개혁

농업부문 개혁에 있어 정부목표는 충분한 토지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농산물 생산확대를 꾀하고 좀더 많은 상업적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부문은 대부분 거대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들에의해 통제되고 있다.

개혁추진의 결과 모든 협동농장들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소유주가 되는 형태로 임대권의 상속을 허용될 것이다.이러한 개혁에 있어 어 려움중의 하나는 토지사용에대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고 토지를 상실한 농업종사자들에대한 적합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 의 보조금없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민간농 장은 3천개에 달한다.

정부는 주요 면화산업체인 Glavkhlopkoprom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라브흘롭코프롬은 조면과 부분적으로는 판매를 관장하고 있다. 글라브흘롭코프롬 또는 농업부 산하로 남아있는 전체 23개조면공장중 9개의 조면공장은 사유화될 예정인데, 1997년에 10개, 1998년에 7개를 사유화할 예정이었다. 농장주들에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생산확대를 위해 정부는 면화의 최저구매가격을 톤당 34천 타직루블로 책정했다. 이는 세계 시장가격의 약 38% 수준이다.

여타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부수매를 줄여 시장시스템에의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개혁하고 있다.

재정개혁

재정개혁프로그램의 목적은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IMF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1996년 4월 1일부로 타직스탄 정부는 수출세에 대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월 152만불로 책정했다. 1996년 2월 1일부터 면화에 대해서는 월 2.7백만불로 책정했고 면화 거래에 대해 25%의 매출세를 도입했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17.7	17.0	14.8	15.0	14.0	14.4
석유	백만톤	0.04	0.03	0.03	0.03	0.03	0.02
천연가스	십억m³	0.05	0.03	0.04	0.05	0.04	0.02
직물	백만m²	114	65.4	44.8	27.5	13.6	15.1
냉장고	천대	18.0	3.2	0.05	0.9	1.5	0.9
곡물	천톤	273	229	249	548	545	494
면화	천톤	524	531	412	318	358	•••
육류	천톤	59	62	56	46	30	30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타직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어려가지 위험요 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경제위기와 지정학적 불리점 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며, 법령의 잦은 개폐와 조 세부담, 관료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6년중 229개이 합작기업이 금융시장 불안정과 관료주의 문제로 문을 닫았고, 1998년 1월 10일 현재 175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국업체로는 갑을방적이 있 다. 외국인 투자업체들은 원자재 공급지인 북쪽에 많이 위치해있다.

외국인 투자 이윤과 자금의 대외송금이 제한되어있고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임차 형태만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조달시장에 있어 자국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1996년 대외경제관계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분야를 발표했는데, 이에는 수력발전소, 가축약품, 농업개발, 누에고치알, 폴리에틸렌 병 제조, 레몬가공, 어린이 식품, 역청탄 가공, 의치공장, 면화붕대 생 산, 벤토나이트토 가공과 석재가공이 포함되어있다.

기업등록절차

합작기업을 등록하는데는 약 3주가 소요되는데, 등록과정에서 많은 관료주의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국영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1997년 5월 15일자 `국가공증소'법에 따라, 기업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은 소재지 국가공증소에 등록해야한다. 등록신청시에는 신청서, 회사정관(2부), 타직스탄 법무부의 등기결정, 통계코드, 소재지 증명서, 수수료납부 영수증 그리고합작기업의 경우 재무부가 발행하는 타당성조사 및 재무결의서를제출해야한다.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법인형태, 소재지, 활동영역, 조직, 자금조달 과 이윤분배, 회사청산 등에관한 내용을 명기해야한다. 등록신청은 서류의 비미 혹은 법률위반을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회사 소재지는 사무실 임차서류로 증명하거나 기존 법인의 동의하에 동 법인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1997년 12월 12일자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지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정부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해 주거지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등록비는 100불-600불에 달한다.등록기간을 연장하는데는 등록비의 절반을 납부해야한다.(문의처: 국가공증소 T.7-3772-27-9349)

조세

부가가치세는 20%이며, 이윤세는 1998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기존의 40%에서 30%로 인하되었다.

1996년초에 통과된 법에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규모별로 상이한 조세혜택이 주어진다. 투자금액이 5만불에서 10만불에 해당할 경우 1년간 조세면제, 10만불에서 30만불에는 2년간, 30만불에서 50만불은 3년간, 50만불에서 1백만불은 4년간, 1백만불 이상일경우에는 5년간 세금을 면제받는다.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합작기업의 경우 2년간 조세를 면제받으며, 추가로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수입관리제도

수입제한

수입에 있어 수량제한제도는 없으나 일부 품목들은 경제.대외경제관계부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품목들로는 트럭, 석유 및 석유제품, 비료, 밀, 밀가루, 쌀, 차, 설탕과 식물성 기름이 포함된다. 또한 천연가스, 우라늄과 기타방사성 물질, 마약류와 향정신제품, 무기류, 탄약, 암호설비 및 전력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관세

1995년 6월 27일자 각료회의 결정으로 타직스탄은 수입관세를 도입했다. 수입관세는 개인을 포한한 모든 법인이 납부해야한다. 세관수속비는 상품가격의 0.15%이다.

대부분의 상품들에 대한 수입관세는 5%이다. 일부 품목들에 있어 관세는 25%까지 품목별로 상이한데, 물고기, 비스켓, 소시지, 캔디 등은 10%이고, 와인, 샴페인 등은 15%이며, 소금, 직물, 자동차 등은 20%이고, 담배와 보드카는 25%이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20%이며, 이외에 사치품 등에대한 소비세와 특별세 (3%)를 납부해야한다. 소비세는 10%에서 2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사치품에대해 부과된다. 이와같은 제반 세금은 화물의 도착전 또는 통관시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산정 기준가격은 상품가격 + 관세 + 소비세이다. 소비세는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세를 면제해준다.

- 외교관 용품의 반입
- 인도주의적 워조
- 장애자용 자동차, 의료기기
- 식료품(소비세 대상은 제외)
- 노트, 학용품
- 알루미늄 생산원료
- 합작기업 자본금으로 반입되는 설비
- 장애인용 특수용품
- 농산물

부가가치세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데, 세관의확인후 조세기관이 환급해준다.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및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및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판매를 위해 반출할 때에 납부해야한다. 면제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와 특별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 수입

일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운송장비, 외국인 소유의 전문 설비, 전시용품, 비상업용도의 설비와 원재료, 포장재료, 샘플 등이 포함되다.

수출 관리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및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수출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세관 신고이후 통상 6개월 이내에 재수출 되어야한다.

수입되었던 상품을 재수출 할 경우 부가가가치세와 소비세 및 특별 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수입후 2년 이내에 수입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수입 승인

수입상품의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은 수입 상품별로 상이하다. 타직스탄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아래 제품의 수입시에는 안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 어린이 용품
- 식료품
- 의약품
- 소비재
- 연료
- 가정용 화학공업제품
- 향수, 화장품

- 가전용품
- 농업기계
- 건설자재
- 통신설비
- 항공기
- 자동차
- 광산설비
- 폭발물질 등

세관 신고서에는 화주(신고자와 수출업체), 운송(운송수단), 상품정보(원산지, 수량 등), 세금산출액, 운송서류, 위생증명과 인보이스 (사본 2개)를 제출해야한다.

5.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품목

타직스탄의 수입품목구조(`98)를 보면, 광산물이 전체 수입의 54.6%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8.2%), 식품류 (5.5%) 순이다.

수출이 유망한 분야는 식품류, 광산 관련 설비, 의료장비 및 의약품, 섬유기계, 통신장비, 석유/가스 추출장비와 관광업이다.

타직스탄은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교환소, 케이블 등의 교환 수요가 있고, 1999년 5월 현재 국가 GSM 통신망개발을 입찰을 발표하였고, 지멘스, 말레이시아통신, 투르크셀(터키)가 참여하고 있다.

타직스탄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

품목명	19	96	19	97	1998	
급득 경	CIS	비CIS	CIS	비CIS	CIS	비CIS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식물제품	11.0	5.3	5.6	1.0	8.1	1.8
유지.식용유	0.5	0.4	1.1	1.6	0.7	0.9
조제식품.음료	14.1	12.4	3.3	8.7	1.5	9.5
광산물	61.0	44.3	58.3	53.7	56.3	53.0
화학공업제품	2.4	7.5	6.8	6.2	6.6	9.8
목재.목제품	0.8	1.0	0.8	0.4	5.6	0.8
섬유제품	0.7	0.8	1.2	0.4	1.4	0.7
비금속광물	4.2	1.0	2.1	1.3	2.4	2.3
기계류	2.7	24.7	4.1	15.6	2.2	14.0
수송기계	2.2	0.9	4.3	1.7	4.2	3.3
기구(시계.음향)	0.0	0.0	0.1	0.3	0.1	1.8
기타	0.4	1.7	12.4	9.1	10.9	2.1

자료원: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통조림/식품 가공설비, 곡물/밀가루, 비료(타직스탄은 비료 사용을 통한 면화 생산 확충을 시도) 그리고 농장기계류(조면기, 수확기 및 트랙터)의 수요가 있다. 면화는 타직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중의 하나로 1999년 6월 16개의 면화가공공장을 국제입찰에 부치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식품가공 및 포장산업 특히 토마토 졸임물과 건과류의 포장 및 쥬스와 와인의 바틀링(bottling)에 있어 매우 좋은기회가 있다. 현재 추수된 과일과 채소류의 40-50%는 방부제 및보관시설의 부족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소규모 포장물의 생산기술이부족하다.

광업분야에 있어서, 희토류, 비철금속과 은 및 동의 상당한 매장량

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서구 기술이 필요 한 상황이며, 타직스탄은 금광 개발을 위해 외국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타직스탄 정부는 수력발전에대한 외국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미 몇 개 프로젝트는 건설중이다.

광업분야에대한 외국투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9월 귀금속 국가위원회(Tajikdragmetsamotzvety)를 설치하였는데, 이 위원회 는 귀금속의 생산 및 가공에대한 국가정책을 수립.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직스탄 대통령 령으로 123백만불을 사용하여 아무다라강에 철도다리 건설을 우크 라이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금을 가스 공급으로 결제할 예정이다.

1998년 12월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3백만불 규모의 이란산 도로 건설중장비를 조만간 수입하게 되는데 유럽산에 비해 이란산이 경 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장비류의 시장기회 도 포착되고 있다.

1996년초 경제.대외경제관계부는 타직스탄내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 분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력발전
- 가축 의약품 생산
- 농업분야 연구개발
- 누에고치알 가공
- 폴리에틸렌 병 생산
- 레몬 가공
- 어린이 식품 생산
- 역청탄 가공
- 의치술 용품 생산
- 면화붕대 생산

- 벤토라이트 가공
- 석재 생산

우리나라의 대타직스탄 투자실적

1999년 4월 30일 현재 1건, 29백만불인데, 갑을방적이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의 대타직스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五十号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441	45.0	2,624	-59.3
제조담배	3,168	854.3	1,319	-58.4
섬유피혁가공기계	1,196	-34.2	276	-76.9
시안화나트륨	0	_	192	_
섬유기계	464	91.5	177	-61.9
승용차	0	_	165	_
기타 곡분	71	133.7	86	22.6
아크릴산에틸	28	114.1	54	92.4
단추	0	_	53	_
베어링	0	_	49	_
기타종이 및 판지	939	-39.8	35	-96.2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우리나라의 대타직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12.8	4.4	6.4	2.6	0.4
수 입	1.5	6.1	1.1	1.9	0.8

자료워: KOTIS

6.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타직스탄의 국가코드는 7번(구소련)이며, 두반세 도시코드는 3773 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타직스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타직스탄 대사관도 한국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타직스탄 주요 정 부부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경제대외경제관계부

주소: 42 Rudaki Street Dushanbe 734025 전화1:23-29-44, 21-64-00 팩스: 21-69-14

재무부

주소: 3 Kuibyshev Street Dushanbe 734025

전화: 22-33-53

외무부

전화: 23-29-71; 팩스: 23-29-64

유통자재부

전화: 27-34-34

중앙은행

주소: 23/2, Rudagi Ave. Dushanbe 734025

전화: 21-26-28 팩스: 21-25-02

중앙국세청

주소: 34 Rudaki Avenue Dushanbe 734025

전화: 23-19-34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49 Negmat Karabaev Street Dushanbe 734018 전화: 33-01-33 또는 33-92-08; 팩스: 34-87-19

국가통계위원회

주소: 17 Bokhtar Street Dushanbe 734025

전화: 27-68-82; 팩스: 27-32-51

나. 여행 안내

비자

타직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한다. 비자가 없으면 호텔에 숙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출국 명령을 당하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여타 CIS 국가들의 비자로 3일간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타직스탄 외무부에 신청해야한다.

통화

타직스탄은 현찰경제 시스템이다. 국제적인 은행 서비스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치아

1992년 촉발된 내전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 특히 외국인은 납치.인질의 대상이 되기도하며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타직스탄 국내 여행은 매우 불안정하다. 항공기편은 종종 취소되거나 출발이 지연되기도 한다. 챠터 항공편의 경우 과적으로 위험할수 있다. 열차여행은 범죄 등으로 위험하다.

도로 여행은 경비소의 체크로 어려움이 많다. 만약 정지 명령을 듣지 않으면 무장경찰이 발포하기도 하며, 민간 수비대가 맡고 있는 경비소는 외국인을 타겟으로 갈취하기도 하며, 특히 동부 지역으로의 여행은 삼가야한다.

야간에는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및 내전 상태로 인해 범죄 발생이 매우 많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5월 9일 승전기념일

9월 9일 독립기념일

11월 6일 제헌절

12월 31일 라마잔(이슬람, 매년 바뀜)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수 도: 비쉬케크(60만명)

면 적: 200천 k㎡ 인구밀도: 23.3명/k㎡ 인 구: 473만명

화폐단위: 솜(Som, 1993년 5월 도입)

43.08솜 = \$1(1999.6.6)

접경국가: 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직스탄, 중국

주요하천: 나룬江(535km) 주요호수: 이숙쿨湖(6.2천k㎡)

평균기온: 1월 -16.5℃, 7월 25℃

시 차: KST-2시간

1. 개관

200천㎢ 면적의 키르기즈스탄은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남동쪽으로 중국이라는 두 대국 사이에 위치해있다. 여타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인은 소수 민족에 속한다. (1992년에 22%) 러시아인들의 이민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기술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주변국들에 비해 부존 자원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다. 구소련 시절, 키르기즈스탄은 모스크바 경제계획을 위해 안티몬, 금, 수은 등 특별한 광물의 공급지 역할을 했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는 이 세가지 중에서 오직 금만이 가치를 갖게 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의 석탄 및 석유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주요 에너지 원은 물살이 빠른 강의 수력이다. 정부가 수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키르기즈스탄은 에너지 상당 부분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의 군사복합단지를 위해 특화되었던 키르기 즈스탄의 산업은 수요가 사라진 이후로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 민수 화 과정도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독립 이후 다른 독립국가연합의 국가들보다 더 빨리 개혁에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면에서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통계에 따르면 사유화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유화 이후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부실 기업들이 계속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와 재계의 부패 또한 경제 개혁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며, 외자도입은 계속되었으나 키르기즈 스탄은 이미 러시아와 터키에 대한 부채 상환을 이행하지 못했다. 해외 차관의 상환은 불가피하게 국가부채를 증가시켰으며, 부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패로 인해 키르기즈스탄은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키르기즈스탄은 고용 창출과 실업방지, 사회보험과 연금제도의 개편, 교육, 보건 분야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공식 실업율은 3.1%로 감소했으나, 인구의 거의 1/3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1990년대에 키르기즈스탄의 외교정책은 자국 방위를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1997년 초 아카예프는 나토의 유럽 팽창을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1996 -1997년에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 경제동맹 하에 조직된 중앙아시아 평화 유지군에 참여하는 등 자국의 국방정책을 다양화시켰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다당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집권을 시작했으나 강력한 야당이 그의 개혁 정책을 방해했으며 아카예프는 점차 주변 4개국 중앙아시아국의 원수들과 같은 독재자 스타일에 가까워져갔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 싸움은 아카예프의 권력 확대를 부추겼다. 1990년대 중반에 두 번의 선거는(1995년 12월에 아카예프가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1996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 강화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95%의 찬성을 얻어냈다) 비록 야당의 평가는 달랐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공정하고 자유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GD	Р	\$십억	8.3	6.3	6.0	6.5	7.3	7.4
GDP	성장	%	-16.3	-20.1	-5.4	5.6	6.2	1.8
인플리	게률	%	772.4	228.7	52.5	30.6	25.6	12.0
인	구	백만명	4.5	4.5	4.5	4.6	4.7	4.7
수	출	\$백만	339.6	339.9	408.9	531.1	603.8	630
수	입	\$백만	501.2	458.9	588.0	893.8	709.3	670
외환보	유고	\$백만	46	96	123	129	200	•••
환	율	som/\$1	8.0	10.8	10.8	13.1	17.4	29.2

자료워: EIU

키르기즈스탄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주의깊게 고안된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긴축통화정책, 경제 구조조정, 금융부문의 제도개혁, 사유화의 추진결과 최근들어 GDP 성장을 이룩하고, 자국화폐 솜화의 환율은 안정되었으며, 재정적자가 대폭 축소되고 인플레는 진정되었다.

1997년 공업생산은 전년대비 46.8%의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카나다 Cameco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쿰토르 금광개발에 기인한다. 한편 농업생산도 10.7% 증가를 기록했다.

농업은 키르기즈스탄 GDP의 43%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90%는 개인농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 및 사용권의 판매를 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은 제한적이다. 씨앗과 가축 종자를 양육하는 부문은 여전

히 국영기업으로 남아있다. 육류, 모, 가죽, 면, 견, 담배, 사료, 채소, 과일 및 곡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 포도주는 상당히 유명하지만, 품질좋은 포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조업은 GDP의 16%, 고용의 1/4을 점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경공업(면 및 모가공, 의류 등), 식품(식품가공과 농기계) 및 중공업(발전, 광업, 철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98년 쿰토르의 금생산 확충은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제조업체들은 비쉬케크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소련 시장의 상실 및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으로 대부분의 경우 가동율이 극히 낮은 상태이다.

개혁정책

키르기즈스탄의 은행부문은 중앙은행과 20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일부 저축회사, 15개 투자펀드, 37개 보험회사(1개 국영, 36개 민간회사), 주식거래소, 2개 연금펀드와 422개의 기타 금융회사들이 있다. 1998년 1월 1일부로 모든 금융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에 상응하는 형태로 운영토록 되었다. 외국은행들은 외무부의 동의를 얻어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키르기즈스탄 주식거래소는 1995년 창설되었으며, 1997년 115억 솜의 채권이 발행되었고, 1996년 주가는 20배 상승했다.

대규모 사유화는 3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제1단계(1992-93)에 97.2%의 소매업체와 식품업체 그리고 일상 서비스업체(100%)가 사유화되었고, 제2단계(1994-1995)에는 중대형 산업체(80.2%), 운송(47.8%)와 건설(56.6%)가 사유화 되었다. 1997년 6월 현재 중앙은행 보고에 의하면 사유화를 통해 획득한 세수는 5백만불에 달하며 전체 사유화 수준은 60-61%에 달한다. 최종 단계(1998-2000)에는 거대 기업들의 사유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주로 광업, 연료.에너지, 통신, 민간항공, 인쇄분야 업체들이며, 건별로 사유화가 진행된다.

1997년 자본투자는 38억 솜이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는 24억 솜으로 전체 투자의 63.3%를 점유했다. 외국인 투자는 구조조정, 현물차관, 투자 융자, 민간기업 지원 및 직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진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1998년 5월 현재 8천만불에 달하며, 러시아가 19.3%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터키 (13.8%), 중국(11.4%) 및 카자흐스탄(9.1%) 순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지속적으로 수출 촉진 및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해 와서 1998년 무역적자는 4천만불에 불과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 탄(22.8%), 전력(19%), 식품(17%), 면 및 모제품(13%) 등 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여타 CIS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경 제로의 이행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IMF와 World Bank, 아시아 개 발은행, EBRD 및 개별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차관과 원조을 제공받 고 있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 kwh	12.3	13.8	12.6	11.6
석유	천톤	88.5	84.0	84.8	78.3
천연가스	백만m³	35.7	25.9	23.7	18.0
직물	천 m²	23.2	29.3	25.7	
세탁기	천대	3.9	3.3	1.8	0.15
곡물	천톤	981	1,423	1,734	1,619
면화	천톤	74.5	73.1	62.4	77.8
육류	천톤	302	315	358	329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외국투자에대한 개방성

일반적으로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외국투자에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자원개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키르기즈스탄 파트너와의 합작이 필수적이며 이 경우 키르기즈스탄측이 다수 지분을 갖는 것이 보통 이다. 토지의 외국인 소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통상 49 년 혹은 99년 임차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외국투자에대해 감시를 하지 않으며,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유화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대한 차별이 없으며, 일부 사유화에 있어서는 외국 투자유치에 관심이 높다. 사유화 쿠폰이 매매되고 있는데, 이론상으로 외국 투자자는 초기 쿠폰 경매 혹은 다음의 현금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제 입찰이 실시되기도 했다

초기 투자 시한 또는 그 후의 투자 시기에대한 외국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키르기즈스탄은 연구 개발활동에대한 보조금을 지불할여력이 없다. 비자,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가 필요하지만 성가실 정도는 아니다. 외국투자를 방해하는 수입 및 수출입 정책에 있어 특혜나 차별적인 조치는 없다.

환전 및 통화관리 정책

투자와 관련하여 환전 및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키르기즈스탄은 환전 및 송금을 보장하는 IMF 조약에 가입했다.

외환을 획득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 과실송금을 제한하는 사례는 발견된바 없으며, 은행 시스템 및 통신상의 문제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의 유입과 대외 반출에대한 제한은 없다.

화폐는 연간 10~15% 정도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때 자국의 금 생산에 힘입어 화폐가치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화/보상

헌법상 재산의 몰수는 의회의 특별법에 의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현재까지 의회는 주류 생산의 국유 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국유화가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담 배시장을 국유화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 자가 주민의 생명 혹은 건강에 침해를 가져오고, 외국 투자가가 이 를 고치기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몰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분쟁해결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키르기즈 스탄 파트너는 외국 투자가가 상당한 자산을 투자한수 이들을 내쫓 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쟁은 통상 비엔나 국제중재 협약을 통해 해결을 한다.

외국 업체들은 종종 계약이 무시되는 것을 불평하는데, 종종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협상을 하게 된다. 계약 내용을 집행하는데 어려움 이 많으며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특히 파트너가 정부기관일 경우 계약 실행을 강행하는데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키르기즈스탄 법률시스템은 전환과정에 있다. 신민법은 96년 통과 되었는데 상업 및 계약관련 많은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새로운 상 사중재법이 제정되었으며, 상거래 관련 사항을 관할한다. 재산권법, 저당법 및 파산법 등은 제정과정에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상사중재법은 모호한 점이 많은데, 분쟁은 국가중재기관, 키르기즈스탄 법원 또는 양자가 합의한 중재법원을 통해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해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외국투자가에게 변상토록 정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ICSID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의 의무사항/인센티브

제조업 또는 건설업의 경우 등록후 5년간 이윤세가 면제되며, 광업, 운송, 통신 및 농업체인 경우 3년간, 유통, 관광, 금융업의 경우 2년간 이윤세가 면제된다. 한편 조세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키르기즈스탄에 재투자한 이윤에 대해서는 50% 이윤세가 감면된다.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할 경우 25% 감면받으며, 국내 원자재를 50% 이상 사용할 경우에도 25% 감면받으며, 이윤의 20% 이상을 교육.훈련에 사용할 경우에도 25%의 감면을 받는다.

투자목적으로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투자기간중 관세가 면제되지만, 20%의 부가가치세와 0.15%의 통관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 이와같은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법에 명기되어 있다.

한편 투자 시행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은 없다. 천연자원의 개발과 같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키르기즈스탄 파트너와 합작을 해야하며이 경우 지분의 다수를 키르기즈스탄측이 갖게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인 기업활동 보장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및 자국인 모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업체의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할수 있으며, 종종 정치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경쟁력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많은 법령들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나, 지적 재산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국 제 지적재산권 보호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법률 시스템

법률시스템은 구소련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동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법과 신조세법이 제정되기도했지만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문화된 법규도 다수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만연화된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문제이다.

금융시장

정부정책은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융자는 시장 경제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실질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으며 장기 융자는 제공받기 어렵다. 외국투자자는 현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이자율이 높아 외부 금융 조 달을 선호하고 있다.

민간분야는 자금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회계시스템과 법률체계가 완전히 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개혁이 진전중이며 국제적 규범이도입되고 있다.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게될 것이다.

키르기즈스탄 은행시스템은 극히 취약한데 은행 자산의 80-90%가 유동성이 없는 형편이다. 현재까지는 외국투자를 제한하는 상호 지 분보유 혹은 안정주주조정과 같은 제도는 없다. 많은 기업 매니저들 은 자사주식이 주식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별로 원치않고 있 는데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대해 공개성을 높이는 법규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정치적 고려

현재까지는 정치적 요인에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시민 폭동 등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1990년 남부 오쉬 지역에서 우즈벡인과 키르기즈인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수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또한 남쪽으로 국경를 맞대고 있는 타직스탄에서는 내전이 발생한바 있다.

부패정도

키르기즈스탄에는 부패를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법률시스템과 처벌 및 관리규정이 없다. 관리자의 부정부패는 문제중의 하나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은 아니다. 부패문제는 조세와 관세수집 분야에서 특히 많은 편이며, 무역과 건설부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4. 수입관리제도

키르기즈스탄은 모든 수입상품에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담배, 주류, 귀금속, 석유, 카페트, TV와 오디오, 가구 및 보석류에 대해서는 10-140%의 소비세를 부과하며, 모든 수입품(관세동맹국은 제외)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관세산정

키르기즈스탄이 사용하고 있는 관세산정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

데

- 종가세, 제품가격에대한 %로 산출
- 유사제품의 가격기준 정액세
- 위의 두가지 방법의 공동 사용

수입 라이센스

수입 라이센스가 필요한 물품들은

- 무기류
- 핵물질과 기술
- 화약류
- 독극물
- 마약류
- 예술품, 골동품
- 비철 귀금속
- 희귀 동물
- 희귀 물질(동식물성)

라이센스 발급시에는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수입금지

- 무기류/타약류
- 독극물
- 마약류와 항정신 약품
- 포르노

표준규격

키르기즈스탄은 독자적인 규격의 제정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자유무역지대

나룬, 이식 쿨과 비쉬켁/마나스 3개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5. 수출유망품목

키르기즈스탄의 수입품목구조(`97)를 보면 기계류가 전체 수입의 25.2%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식품 및 농산물(21.3%), 석유가 스(20.4%)를 점유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수입상품구조(1996년)

단위: %

품목명	CIS	нJCIS
합 계	100.0	100.0
동식물제품	4.5	7.6
유지.식용유	0.6	0.7
조제식품.음료	9.1	25.5
광산물	50.1	1.2
화학공업제품	9.3	6.7
목재 및 동 제품	3.7	0.8
섬유제품	2.4	1.7
비금속광물	6.4	4.1
기계류	8.5	34.1
수송기계	3.1	8.8
기구(시계.음향)	0.3	5.1
기 타	2.0	3.7

자료원: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낙후되어있는 통신, 도로, 보건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시아 개발은행, 일본 등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국제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찰에 참여하여 각종 설비 등의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

1999년 11월에는 1999-2003년 국가 의료분야 현대화를 위한 의료장비 국제입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아시아개발은행 차관 40백만불을 이용하여 관개수로 시스템 건설을 추진중이며, BK 그룹과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320백만불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의 대키르기즈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품목명	19	997 19		98	
古子号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7,917	123.5	29,034	266.7	
승용차	147	-94.9	9,144	*	
의료용기기	3,842	*	2,663	-30.7	
상용차	43	_	1,654	*	
제조담배	72	_	1,095	*	
별게이외의 기계	0	_	1,042	_	
여성바지.스커트	67	-45.9	993	*	
기타 합성수지	0	_	895	_	
편직물	0	_	851	_	
바지.스커트	0	_	594	_	
브라우스	0	_	578	_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식품류의 공급도 부족한데, 지난 1999년 5월에는 밀가루, 밀 등 곡

물 부족현상이 극심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있고,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임시 방편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키르기즈스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2.1	3.5	7.9	29.0	10.5
수 입	0.9	2.5	0.1	0.1	0.002

자료원: KOTIS

6. 투자진출 유망분야

국제금융기관 혹은 키르기즈스탄내 자금이던지 간에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한다.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키르기즈스탄은 농업부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아시아개발은행 융자 4천만불을 이용하여 통신부문의 개발을 추진중인데,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중 인터넷 사용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다.

키르기즈스탄이 역점을 두고 있는 투자유치 희망분야는 운송,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 보건, 교육 등 사회부문과 농업부문이다. 이 부문의 전략적 기업들은 사유화될 예정이다. 특히 수력발전, 석탄 및 광산, 전기 및 기계, 극소전자, 목재가공과 직물, 식품가공 및 관 광분야는 상당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운송

키르기즈스탄의 철도연장은 450 km이며, 철도화물 운송은 1997년 13.6% 증가했다. 23개 공항의 화물운송 또한 39% 증가했으며, 34천 km의 도로를 이용한 운송도 21.3% 증가했다. 1995년 7백만톤에 불과했던 화물운송 물량은 1997년 35백만톤으로 증가했다. 마나스 공항은 일본기업의 참여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중이며, 상당수의 도로와 철로 개보수 프로젝트가 논의중이다.

통신

키르기즈스탄은 전화망 현대화 제1단계로 미국 Intelsat사의 지원으로 위성통신 시스템과 디지털 및 광전송 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셀룰라 서비스는 키르기즈-미국 합작인 Katel사에 이해 AMPS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스탠더스 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탈 무선통신 및 전화교환국과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3단계에서는 키르기즈스탄의 위성통신망의 독립성, 품질과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립통신청(NCA)이 설치되어,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편 및 전송 통신회사들을 감독하고 있다.

에너지

키르기즈스탄은 수력발전의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룬 강 유역의 여러개의 수력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연간 140억 킬로와트의 발전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송시스템 부족, 제한된 재원 및 불합리한가격 등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 42백만불이소요되는 타쉬-쿠무르 및 샤말디-사이 수력발전소는 건설중이며, 나룬강에 추가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키르기즈스탄은 전력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국가들이 국 제시세로 전력을 수입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키르기즈스탄은 할인가 격에 제공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광업

광업은 키르기즈스탄 산업생산의 11%를 점유하고 있다. 아카예브 대통령은 금광의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천명하였는데, 쿰토르 금 광은 카나다 Cameco사의 5억불 투자로 금생산이 연간 25톤으로 증가하였다. 키르기즈스탄 Kyrgyzaltyn은 제로요 금광 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한편 안티몬, 수은, 몰리브덴, 우라늄과 희토류 등 광산물이 매장되어있으나, 구소련 공화국들의 독립이후 이들 제품에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은 대폭 줄어든 상태이다.

첨단기술산업

키르기즈스탄은 구소련 당시 기계공업, 극소전자공업 및 컴퓨터 산업이 발달되었다. 아직까지 항공기용 공구를 공급하기위한 전문디자인연구소가 다수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및 말레이시아의 지원으로 극소전자공학산업이 개발을 위한 플랜이 시작되고 있다.

반도체 칩 생산

키르기즈스탄은 다결정질의 실리콘을 생산하기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구소련 공화국중 최대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이미 실리콘을 일본 및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다결정질의 실리콘 생산을 2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단계로 일본 및 미국기업과 합작으로 반도체 완성품의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키르기즈스탄의 숙련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을 대 상으로 소형모터,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등의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 다.

농업

자체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농업 및 가공분야에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국제사회의 융자를 사용하여 토지개혁프로그램을 거의 완료하였는데, 농장의 90%는 이미 사유화된 상태이다. 개인농은 전체 우유생산의 71.7%, 육류의 75.3%, 毛의 68.5%를 점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스탄-독일 합작기업은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농업가공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버터 및 양조공장을 건설중이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논의되고 있다.

관광

키르기즈스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땟목타기, 말타기, 산악자전거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단길이 통 과했던 지역으로 고대도시유적, 隊商의 흔적 등의 유적이 있다. 207개의 여행사들이 등록되어있는데, 특히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필요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키르기즈스탄 투자

1999년 4월 30일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키르기즈스탄 총투자는 3건에 743만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건에 425천불, 무역업이 1건에 7백만불이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유통 및 판매 채널/파트너 발굴

구소련 당시의 유통 및 판매망은 붕괴되었고, 민간업체들이 이 진공 부문을 채우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비공식적이며 소규모 형태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서구제품들은 터키, 러시아 또는 유럽을 통해 들어온다.

현지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기업들의 대부분이 경륜이 일천하며, 잠재적인 파트너에대한 믿을 만한 정보원이 없다.

어느정도의 운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의 대부분은 활동영역이 지극히 다양하여 종종 무역, 금융, 운송, 제조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상업 조사나 정보제공에 전문화된 현지 컨설팅 업체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 업체로부터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프랜차이징과 직접 마케팅은 키르기즈스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다.

키르기즈스탄에서 활동중인 외국업체들은 합작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믿을만한 에이전트는 고스콤인베스트로 알려져 있는 국가투자위원회이다. 합작기업의 등록은 매우 쉽고 간편한데, 러시아어로 작성된 기업의 정관을 제출하면 된다.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단순하다. 등록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현지 직원을 구하는 이 모든 절차는 간단한 작업이다. 정상적인 사무실 면적은 부족하지만 많은 단체들은 아파트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광고 및 마케팅

인쇄물, 라디오 방송, TV, 광고판 또는 행사의 스폰서 등 폭넓은 광고 기회를 갖을 수 있다. 이와같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현지광고 에이전트들이 있다.

애프터 서비스/고객 지원

애프터 서비스와 고객 지원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새로운 개념이지만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에이 전트나 디스트리뷰터들은 이와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부 조달시장

상당한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 예산을 사용한 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구매는 국제사회 또는 기부가들이 재정지원하는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쟁에 입각한 국제입찰 형태로 이루어지나, 정확한 절차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자금 제공자가 전체 입찰과정을 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키르기즈스탄은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제정중에 있다.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에대한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법령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 으로 볼 때 키르기즈스탄은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큰 시장이 되지 못한다. 현지 번호사의 필요성

현지 변호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 작성 등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키르기즈스탄의 국가코드는 996번이며, 비쉬케크 도시코드는 331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키르기즈스탄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무역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키르기즈스탄의 대사관도 한국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키르기즈스탄의 주요 정부부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주소: 205 Chui Prospect, Dom Pravitelstva, Bishkek 720003, Kyrgyzstan

전화: 21-4846, 21-8853, 팩스: 21-8627

총리실

주소: 205 Chui Avenue, Dom Pravitelstva, Bishkek 720003,

Kyrgyzstan 팩스: 62-1382

무역산업부

주소: 106 Chui Avenue, Bishkek 720002, Kyrgyzstan

전화: 26-4676, 22-3866, 26-4868

팩스: 22-0793, 26-2747

E-Mail: Elena@Msp.Bishkek.Su

내무부

주소: 169 Frunze Street, Bishkek 720011, Kyrgyzstan,

전화: 28-8778, 22-5490 팩스: 22-3278, 22-8420

보건부

주소: 148 Moskovskaya Street, Bishkek, 720005, Kyrgyzstan

전화: 22-8697, 26-8848, 팩스: 26-3365, 22-8424

외무부

주소: 205 Abdumomunov Street, Bishkek 720003, Kyrgyzstan

전화: 22-0545, 22-0688, 팩스: 22-5735

국가안전부

주소: 70 Erkindik Bvld., Bishkek 720000, Kyrgyzstan

전화: 22-3929, 팩스: 22-6953

국방부

주소: 26 Logvinenko Street, Bishkek 720001, Kyrgyzstan

전화/팩스: 26-8714

교육과학문화부

주소: 257 Tynystanov Street, Bishkek 720040, Kyrgyzstan

전화: 26-3152, 22-8786, 팩스: 22-8604

환경보호부

주소: 131 Isanov Street, Bishkek 720033, Kyrgyzstan

전화: 21-4845, 21-9737, 팩스: 26-2321

민방위부

주소: 2/1 Dushanbinskaya Street, Bishkek 720055, Kyrgyzstan

전화: 21-2227, 21-0857, 팩스: 42-7280

농업수자워부

주소: 96-A Kievskaya Street, Bishkek 720300, Kyrgyzstan

전화: 22-1435; 팩스: 22-6784

교통통신부

주소: 42 Isanov Street, Bishkek 720079, Kyrgyz Republic,

전화: 21-6672, 팩스: 21-3667

노동사회보장부

주소: 42 Mederov Street, Bishkek 720031, Kyrgyzstan

전화: 26-1239, 22-6587 팩스: 22-2726, 44-1488

재무부

주소: 58 Erkindik Prospect, Bishkek 720874, Kyrgyzstan

전화: 26-4653, 26-7039, 팩스: 22-2659

법무부

주소: 37 Orozbekova Street, Bishkek 720040, Kyrgyzstan

전화: 22-8297, 22-8489, 팩스: 26-1115, 26-5352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4-A Sovetskaya Street, Bishkek 720020, Kyrgyzstan

전화: 47-0602, 47-8721, 47-9602, 47-8750;

팩스: 47-8500, 47-9112

국가자산기금

주소: 57 Erkindik Prospect, Bishkek 720040, Kyrgyzstan

전화: 22-7706, 22-3596, 팩스: 62-0136, 26-1752

국가지질광산자워청

주소: 2 Erkindik Bvld., Bishkek 720739, Kyrgyzstan 전화: 22-6336, 22-6332, 26-4626, 팩스: 26-8690

국가조달청

주소: 114 Chui Avenue, Bishkek 720000, Kyrgyzstan

전화: 26-3478, 26-3509, 팩스: 26-3547

국가표준화검사소(Kyrgyzstandard)

주소: 197 Panfilov Street, Bishkek 720040, Kyrgyzstan

전화: 26-4862, 22-2734, 팩스: 26-4708

E-Mail: Kmc@Infotel.Bishkek.Su

외국인투자청

주소: 58-A Erkindik Blvd., Bishkek 720874, Kyrgyz Republic

전화: 22-3292, 팩스: 22-0363 E-Mail: Satc@Imfiko.Bishkek.Su 나. 여행 안내

비자

키르기즈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여행자는 해외의 키르기즈스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루지 야와 타직스탄을 제외한 러시아 및 여타 CIS 국가들의 비자가 있을 경우 3일간 키르기즈스탄 체류가 가능하다.

통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여행자는 여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찰을 준비해야한다. 여행관련 시설은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일부 호텔과 은행은 여행자 수표를 받기도 하는데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출입국시 외환 보유에대한 제한은 없으나 세관 신고서에 정확하게 명기해야한다. 개인은 중앙은행으로 부터 외환취급 허가를 받은 Maksaat, Mercury 그리고 Kurlush은 행과 같은 상업은행이나 환전소에서 외환을 사거나 팔수 있다.

교통

주요 입국경로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알마티에 도착해서는 항공기 챠터기편을 사용하거나 자동차로 비쉬 켘까지 도로로 간다. 열차를 사용해 키르기즈스탄으로 입국하는 것 은 권장할만하지 못한다.

호텔

비쉬케크에는 Dostuk, Issyk-Kul, Ak Keme과 같은 호텔들이 있다.

치안

키르기즈스탄의 치안사정은 크게 나쁘지는 않으나, 밤에는 강도 및 절도에 주의해야한다. 개인 외국인은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 에 그룹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1월	7일	성탄절(러시아 정교)
3월	8일	여성의 날
3월	21일	나우르즈
5월	1일	노동절
5월	5일	제헌절
5월	9일	승전기념일
8월	31일	독립기념일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수 도: 바쿠 (110만명, 語義는 '바람의 마을') 면 적: 86.6천k㎡ 인구밀도: 88.1명/k㎡ 인 구: 770만명 화폐단위: 마나트 (Manat,1994.1월 도입) 3,975 마나트 = \$1(1999.6.6) 접경국가: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러시아, 이란, 터키 주요하천: 쿠라江

(1,515km) 주요호수: 카스피해(375천 sq.km), 사라수湖(67k㎡)

평균기온: 1월 2℃, 7월 26.5℃

시 차: KST-5시간

1. 개관

카프카스의 동쪽에 위치한 86.6km 면적의 아제르바이잔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그루지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터키,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해 있다. 수도인 바쿠는 카스피해의 주요 항구중의 하나이다.

이란, 터키 및 아르메니아에 둘러싸여 있는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은 인구의 90%가 아제르바이잔인이다. 아제르바이잔내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 아르메니아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1988년 이래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분쟁과이주민들이 발생했다. 현재 아르메니아가 점령한 상태로써 이후 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 국가중 가장 산업발달이 안된 지역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이며, 높은 구조적인 실업율과 낮은 생활수 준을 겪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를 주도하는 상품은 면화, 석 유 그리고 가스이다. 카스피해 유전에서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은 지 난 수년간 생산감소를 겪었으나,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생산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여타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은 아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경제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보를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거 내지 해소되어야할 구경제 체제를 다분히 보유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8월 30일 독립을 선언했다. 91년 10월 독립 이후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제1서기 무탈리보브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아르메니아와의 내전중에 계속되는 패전과 수도 바쿠에

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실각하고 92년 6월 대선결과 국민 전선 지도자 엘치베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93년 6월 군 부 쿠테타가 발생 국회의장인 알리예브가 임시 대통령직을 승계하 고 곧이어 실시된 93년 10월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분쟁¹¹⁾에 따른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재개를 우려한 여야세력이 극단적인 정쟁보다는 상호협력을 우선시하고 있 으며, 알리예브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여 국 민적 신인도 저하에도 불구하고 정정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 다.

2. 시장환경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미래는 정부의 경제개혁 실천과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획득한 자금의 유효적절한 활용에 달려있다. 풍부한 석유자원과 유통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느린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96년 12월 IMF와 합의한 3개년 계획에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진정되어 1997년의 경우 5월에서 8월간 소매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자국화폐 마나트화는 평가절상되

^{11).}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영토분쟁. 1988년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지역을 아르메니아로 귀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전으로 비화되었다.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내 아르메니아인 집단거주지로 아르메니아인이 전체 주민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수년간의 영토분쟁으로 현재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상당 부분 점령한 상태이며, 1995년 5월 러시아의 중재로 정전에 합의했으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영토분쟁외에 종교분쟁(아제르바이잔-회교, 아르메니아-기독교) 소지도 남아 있어 현재의 정전사태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도 했다. 1996년 1%의 GDP 성장을 실현한 이후 1997년에는 5.8%, 1998년에는 8.0%의 GDP 성장을 지속했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8.7	7.4	7.6	8.2	8.9
GDP 성장	%	-19.7	-12.0	1.3	5.8	8.0
인플레률	%	_	1,664	411.8	19.8	3.7
인 구	백만명	7.4	7.5	7.6	7.6	7.6
수 출	\$백만	684	612	644	808	720
수 입	\$백만	845	985	1,338	1,375	1,640
외환보유고	\$백만	2	121	211	466	430
환 율	manat/\$1	1,570	4,414	4,301	3,985	3,868

자료원: EIU

1997년말 현재 약 1만개의 소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중대기업의 사유화는 1997년 5월 경매가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성공적인 대기업의 사유화는 새로운 자본투자, 현대식 경영방식 그리고 양호한 기업환경 조성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을 더한층 촉진하게될 것이다. 농업분야도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농장들의 사유화는 1996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99년 5월말 현재 농민의 95%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토지의 44%는 여전히 국가소유로 남아있다. 사유화된 농장들과 신규 투자 및마케팅 기술의 도입으로 농산물 생산은 급격히 증가할 수있다. 인구 110만명의 바쿠시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운송 및 통신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석유자원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석유

판매로부터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수년간은 긴축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은 정부와 생산물분배합의에 서명한 외국 석유업체들의 활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생산은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日産 1.5백만 내지 2백만 배릴로 최대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유개발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전망이 밝은 것은 석유산업을 지원하기위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이다.바쿠시내의 이주민 사회의 성장과 현금보유계층의 증가에따라 레크리에이션, 오락과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당시 석유관련 설비의 70%를 생산했고, 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 설비들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할수 있다. 농업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자국 시장규모가 작고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19.0	17.6	17.0	17.0	16.8	17.9
석유	백만톤	10.3	9.6	9.2	9.1	9.0	11.4
천연가스	십억m³	6.8	6.4	6.6	6.3	6.0	5.6
화학비료	천톤	30	5	2	2	5	1
직물	백만m²	117	84	59	25	17	7
냉장고	천대	229	96	25	7	0.1	3.4
세탁기	천대	_	4.8	2.9	_	0.01	-
곡물	천톤	1,100	1,039	921	1,018	1,117	947
육류	천톤	93	84	82	86	91	96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국가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 대부분 구소련 당시 건설된 것인데, 독립을 쟁취한 이후 공공 인프라 부문에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로들은 상태가 좋지 않으며, 발전 설비와 전송 시스템은 열악한 상태이다. 농경지의 8%가 관개수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개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 바쿠는 가스, 수자원과 전력의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 전반적으로 전력의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며, 가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부문들은 수요층의 지불불능사태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3. 투자환경

외국인투자에대한 개방성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제르바이잔 정부정책이다. 1992년 외국인투자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이 채택되었고, 계약서의 집행에대한 보장도 이루어졌으며, 계약서 조항의 변경을 가져오는 어떠한 입법도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되었다. 외국인 참여는 지사설치, 합작기업 설치 혹은 100% 단독소유 기업의 설립형태로 가능하다.

1995년 9월 29일 통과된 사유화법에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제르바이잔 국유자산의 사유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1996년 7월 16일 토지법이 통과되어 토지의 개인소유권이 확립되었으며, 외국인(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조만간 외국인에게도 토지소유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입찰에 외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나, 자국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낙찰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한편 노동허가, 거주허가 및 비자취득 등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소유권의 확립

아제르바이잔 법률에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합작기업의 설립, 100% 외국인 소유기업의 설립, 기업주식의 매입,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자산의 취득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현재 토지소유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이 참여한 합작기 업은 토지를 무제한으로 임차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은 아 파트를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다.

1997년 3월 1일 사유화증서의 배포가 시작되었고, 대기업의 사유화는 1997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투자자의 의무사항/인센티브

어떠한 투자자의 의무사항도 없다. 즉 기술도입 혹은 수출의무, 일 정기간한 투자시행 등과 같은 제약은 없다.

1997년 1월 18일 대통령에 의해, 이전에 주어졌던 대부분의 특혜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의회가 비준한 생산물분배합의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자유스럽게 원료, 서비스 및 노동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는 합작기업은 자사제품을 어떠한 라이센 스도 없이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라 이센스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법령의 투명성

아제르바이잔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신생국가이다. 법률체제는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점차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는 법령의 집행력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많은 필요한 법이 채택되었지만 때로는 애매모호하고, 시행령을 위한 단순한 지침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식신문(정부기관지)은 없으며 대부분의 법령들은 주요 일간지에 개재되지만, 일간지에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령들이 있고, 시차를 보이기가 일쑤이다. 아제르바이잔 주민들의 소득세는 외국인 기업주가 월급 급여줄 때 미리 남겨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정부패

아마도 부정부패는 아제르바이잔에 투자한 외국인이 겪는 주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국가 지도자들은 수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 하였지만, 여전히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 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된다.

노동시장

대부분의 노조들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파업권이 보장되며, 때때로 산업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최저 임금은 월 2불에 불과하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은 41시간이다. 건 강 및 안전관련 규범은 존재하지만 사문화되어있다.

금융시장

은행부문은 규모가 작고 취약하며, 실물경제에 있어 그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1997년 7월 현재 4개 국영은행, 93개의 민간은행, 6개의 외국인 은행이 있다. 대부분의 서구 기업인들은 아제르바이잔국 제은행과 영국은행 바쿠 지점을 이용한다. 서구 기업인들이 현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결제할 때 주로 이용한다. 4개 국영은행중 국제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은행은 기술적으로 파산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은행설립 최소자본금은 80만불로 상향조정되었다.

바쿠은행간외환거래소에서는 외환의 경매가 이루어지며,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에대한 경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은 활발 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환전/송금

법정환율로 자유롭게 환전 및 송금할 수 있다. 외환을 획득하는데에 도 별 어려움은 없다. 마나트화는 바쿠시내의 600여개 환전소에서 자유롭게 환전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자유롭게 과실을 송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대외송금에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한편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자금의 15-25%를 은행구좌에 `유보자금'으로 남겨두어야하는데, 이는 국외로 송금할 수 없으며, 각종 조세납부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좌가 동결될 수 있다.

국유화/보상

국익을 침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도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현재까지 국유화된 사례는 발견 되지 않고 있다.

분쟁해결

소유권과 계약서의 이행을 보장할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법원시스템에 간여하지 않지만, 실제로 법원들의 독립성은 취약한 편이다. 상거래 분쟁을 담당하는 경제법원은 취약하고 부정부패가 많다. 파산법이 새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워싱턴협약(투자자의 분쟁해결)과 뉴욕협약(상사중 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써, 외국법원(및 기관)의 판결은 아

제르바이잔내에서 효력이 없다.

사무소 설치

아제르바이잔 시장을 개발코자하는 한국기업들은 전문가 또는 현지 인 직원을 사용하여 자체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사 무소의 등록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외국투자자들은 100% 외국인소유 기업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합작기업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던지를 결정해야하며,기업들은 법무부에 등록해야한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기업등록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잦은 지연과 본국 문서작성을 요구받게 된다. 사무소는 그 활동분야에따라 조세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제출하고 연간세금을 정산해야한다. 100% 외국인 보유 기업들은 3월 15일까지 재무재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한다. 아제르바이잔정부는 제조업 및 정유업분야 외국투자자들에게 2년간 세금면제혜택을 줄 수 있으며, 생산설비 재투자에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을 준다.

4. 수입관리제도

관세와 제반 조세

대부분의 품목은 1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은 5%와 무관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일치한다.(물고기 제외). CIS 국가들(카자흐

스탄 제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에서 VAT가 부과된다.

5%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은

- 산 동물
- 곡물
- 광석
-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 폭발물질
- 나무 및 나무제품
- 종이 및 종이제품
- 섬유제품
- 면직물과 합성직물
- 비철금속류, 동, 니켈, 납, 아연, 주석과 그 제품
- 핵워자로
- 일부 설비류
- 기계류 및 전기제품
- 전동차와 객차
- 일부 운송기기, 비행기와 우주 장비, 선박
- 일부 의료기기

다음 품목들은 무관세이다.

- 씨앗, 비료, 가축 사료, 의약품, 유아 식품, 주사기와 의약품
- 외교관 용품
- 인도주의적 워조물품
- 불구자 치료 혹은 예방용 장비 및 원료
- 몰수, 소유권 분쟁 또는 상속분쟁의 결과 국고로 귀속되는 물품
- 외국 투자자의 설립 자본금의 일부로 수입되는 물품
- 일정 기간 임시 반입되는 물품(VAT는 통관시 예치하였다가 물 품의 수출시 화급 받음)
- 통과 화물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 외국투자기업 종업원의 개인용도로 수입되는 물품
- 화폐, 증권 등(중앙은행 및 재무부 승인 필요)
- 재수출 또는 가공용으로 임시 수입하는 물품(VAT는 통관시 예 치하였다가 물품의 수출시 환급)
- 국고로 수입되는 물품(재무부 승인 필요)
- 카스피해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쿼타로 어획되는 물고기와 그 제품

수입 라이센스

동물성 식품들은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수의학위원회(State Veterinary Committee)는 이러한 품목에대한 라이센스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관리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무기류, 폭발물질,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 마약류와 항정신 약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략원자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현재 전략원자재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석유제품, 면화, 전력과 비철금속이다. 이러한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업체는 대외경제활동감시위원회(State Commission on Supervision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현재 수출업체는 획득한 외화의 30%를 외환시장(interbank currency market)을 통해 강제 매각하도록 되어있다

수출입 서류작성

수입업체가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서명된 수입계약서
- 세관 신고서
- 인보이스
- 관련 부처 승인서(살충제, 의약품, 무기류 등 해당품목)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품질증명서 이다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수출할 경우 업체가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법인 등록 증명서류
- 국가통계위원회가 부여한 법인 코드번호
- 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선불 혹은 L/C개설 은행 서류
- 각료회의 승인서(무기류, 화약류, 핵 기술 등 수출시)
- 세관 신고서

임시 수입

물품들은 특정 기간으로 임시 수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세를 면제 받는다.

라벨링, 표기 요구사항

현재 특별한 라벨링 혹은 표기 의무사항이 없다.

수입 금지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 마약류와 항정신 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기류, 화약류와 방사성 설비류의 수입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표준 규격

국가수의학위원회(SVC)는 수입 식품과 동물 제품에대한 기초적인 보건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국가식물검역소(State Plant Quarantine Inspection)은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식물, 식품, 나무 및 가죽류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대해 규격을 담당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보세창고

현재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는 없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pcial Economic Zone)을 숨가이트와 나치반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다.

특별 수입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일부 품목에 있어 정부간협정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입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 수출유망품목

아제르바이잔의 수입품목구조(`98)를 보면, 식품류가 전체 수입 (808백만불)의 22%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계류(21%), 철 강류(14%), 석유제품(10%), 화학공업제품(10%) 순이다.

아제르바이잔에는 상품들에대한 상당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구매력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성공적인 비즈니 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자금지원조건을 제시해야하며 단 순히 현찰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성사되기 쉽지 않다.

건설자재 및 중장비/건설업

503 km에 달하는 대비단길 고속도로(바쿠-알리아트-카지마고메드-예브라흐-그루지야 접경) 건설 프로젝트중 제1단계인 바쿠-알리아트 구간(70km)은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이용중에 있으며, 알

리아트-카지마고메드 구간(44km)은 1999년 4월 국제입찰이 실시되었는데, 11개의 외국 건설회사가 참여하였으며, 배정된 예산은 30.5백만불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

품목명	19	97	1998		
	CIS	нJCIS	CIS	申CIS	
합 계	100.0	100.0	100.0	100.0	
동식물제품	11.3	18.0	16.3	8.9	
유지.식용유	0.1	0.1	1.4	0.8	
조제식료품.음료	6.2	3.6	7.4	4.7	
광산물	20.8	14.9	5.5	4.7	
화학공업제품	10.0	8.6	9.8	12.3	
목재 및 동 제품	7.3	10.2	5.8	1.7	
섬유제품	0.8	0.7	2.1	2.0	
비금속광물	21.7	18.2	7.5	7.8	
기계류	12.7	18.2	7.5	7.8	
수송기계	5.4	7.1	6.9	7.6	
기구(시계.음향)	0.4	1.0	0.9	2.9	
기 타	3.3	3.7	6.6	7.5	

자료원: 日本 러시아동구무역회 CIS정보 파일 1999 주) 1998년은 추정치임.

이와같은 도로건설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스팔트 등 관련 재료와 건설중장비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 건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가스 분야 설비

AIOC, CIPCO, Shahdeniz, NAOC와 Lenkoran Deniz는 향후 10년간 180억달러 가량을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된 석유의 수출을 위해 바쿠-세우한간 파이프 라인 건설을 추진중인데, 알리예프 대통령은 1999년 말부터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파이프 등 제품의 공급과 건설부문에 참여할수 있을 것이다.

통신 설비 및 통신서비스

이는 가장 유망한 분야중의 하나이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전화통신을 아날로그형에서 디지털 형으로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999년 4월에는 바쿠시의 에니 야사말리구 주민을 위해 디지털자동전화교환소를 2000년 초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통신 수요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인터넷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품질 서비스에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통신부의 참여로 설립된 아제르바이잔-미국 합작기업인 카스피안-아메리칸 텔레콤은 1999년 4월 무선자동전화교환소의 개소식을 시작으로 무선통신망 부문에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 회선수를 15만 회선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박셀-모토롤라는 1998년 12월 GSM 2000 방식의 신위성통신시스템을 선보였다. 이회사의 고객은 1996년 5천여명이었으나 1998년 말에는 4만명으로증가하여 무선통신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발전 설비

아제르바이잔은 발전 설비를 개보수해야할 형편이다. 이 프로젝트에

는 3억불에서 5억불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외부 차관을 필요로 한다. 유럽 국가들의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펌프. 밸브/콤프레서

제2의 석유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작업이 진행중이며 주요 석유 수출 루트를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과 EBRD¹²)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시의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에대해 자금을 공여하고 있다.

식품 가공 및 포장설비

아제르바이잔은 CIS 지역에대한 거대한 잠재적인 과일 및 채소 공급자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같은 설비에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현대화와 토지 개혁에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아제르바이잔 농업 생산성향상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

아제르바이잔은 기초의약품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1996 년 아제르바이잔의 의약품 수입은 1천만불을 상회했으며, 인도주의 적 국제기관과 개인 사업가들은 1998년에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아제르바이잔은 상당한 규모의 컴퓨터를 수입하고 있다. 사유화 및

^{12).} EBRD는 1998년중 1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시라그 유전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유전개발에는 AMOCO사 등 5개 국제기업 곤소시움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16억불의 투자자금중 EBRD가 지원하는 규모는 86.3백만불이다.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이 진전되면서 컴퓨터와 주변기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아제르바이잔은 공공교통부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크라이슬러 사는 최근 아제르바이잔에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많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바쿠시에서는 대우, 기아, 현대 자 동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산 자동차의 진출이 활 발하다.

각종 계측기기

가스 및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계측기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태로써, 상수도, 가스 및 전력관련 계측기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장 등 상점에서도 디지털 중량측정기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제르바이잔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4.3	8.7	15.5	29.4	5.4
수 입	2.7	2.6	1.8	0.03	0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아제르바이잔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98		
古千号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15,580	78.2	29,490	89.3	
승용차	7,699	50.5	8,018	4.1	
공중통신용교환기	О	_	5,510	_	
칼라TV	3,142	89.9	4,244	35.1	
교환기용부분품	0	_	4,231	_	
상용차	895	217.3	1,979	121.1	
VTR	804	531.3	1,080	34.4	
타이어 및 튜브	606	170.3	814	34.2	
자동차부품	428	87.2	705	64.6	
광케이블	О	_	584	_	
바닥깔개 및 벽피	287	_	414	44.5	

자료원: KOTIS

6. 투자진출 유망분야

1998년말 현재 등록된 합작기업수는 1,800여개에 달하며, 투자는 석유개발에 66%가 집중되어있고, 다음으로 제조업(13%), 건설(10%), 유통(6%) 순이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석유개발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향후 수년간 수십억불의 외국인 투자가 석유 부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류/농업

아제르바이잔은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써, 정부는 외국 투자자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투자유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특히 한국업체의 진출이유망한 분야는 면화 가공, 설탕, 소시지, 닭고기, 쥬스 등이다.

화학공업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를 생산.수출하고 있는데 석유화학부문 예를들어 세제. 유활유. 접착제 등의 생산투자도 유망하다.

운송인프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바쿠 지하철 개발프로젝트를 국제입찰에 부칠 예정인데, 이에는 플라스틱 카운터를 전자 카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현대적인 환기시스템과 전력공급 시스템, 열차 개보수를 포함하는데, 자금은 낙찰회사가 조달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회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통신인프라

터키와의 합작회사인 아제르셀은 19995년 5월 현재 5천만불을 투자하여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바쿠와 간자를 연결하는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유통 및 판매채널

아제르바이잔이 독립한 이래 5년 이상이 흘렀다. 매우 원시적인 시장시스템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상태이며, 구사회주의 당시의 중앙집중구매는 사라졌다. 국영기업은 한국 제품을위한 시장을 제공할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들 국영업체들은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구매계약에 있어 정부보증을 받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수입품을 판매하고 있는 민간 무역업체들과 소형 상점들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때문에 번창하고 있으며, 거래는 대부분 현찰결제이다.

에이전트와 유통업체의 사용

현재 바쿠에 진출한 한국업체는 ㈜대우 1개사 뿐이다.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은 아제르바이잔 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협정을체결한 바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상공회의소는 한국 기업들의 에이전트나유통업체가 될 수 있는 기업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무역업체들은 서구업체들과 같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서구형 은행시스템의 부재는 협력 파트너들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업체들은 직접 아제 르바이잔을 방문하여 개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현지 판매망을 설치하거나 현지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 다.

프랜차이징

아제르바이잔에 영업중인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없다. Chrysler

사는 최근 바쿠에 최초의 매장을 개설했다. 현지 패스트푸드 상점과 카페들이 매우 성황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제적인 체인점들 은 등장하지 않았다. Baku 최초의 코카콜라 병 공장은 1996년 여 름에 오픈되었는데, 턴키 라이센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 합작 식료품점은 바쿠에 미니상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마케팅 요인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개인적 접촉과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개별 면담은 장거리 통신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기업인들은 모두 러시아 어와 아제르바이잔어 2개국어를 구사하며, 공식언어는 아제르바이잔 어이다. 따라서 공식문서들은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할 필요가 가끔 있고, 비즈니스는 통역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 신용제 도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American Express와 Master Card 신용 카드는 일부 서구상점과 아제르바이잔 국제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나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현금베이스로 이루어진다. 민간은행들도 존재 하지만 전체 상업은행 저축금의 15% 정도만을 점유하고 있고, 국 영은행인 아제르바이잔 국제은행이 금융계를 주도하고 있다.

광고 및 판촉활동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일간지들은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들 주요 일간지들로는 Avrasiya(12,404부수 발간), Ayna/Zerkalo(22,900, 8,600-아제르바이잔어, 14,300-러시아어), Azadliq(11,904), Azerbaijan(8,694), Azerbaijan Muallimi(5,504) 등이 있다. TV 광고는 2개 국영 TV방송사를 통해 가능하며, 민간 TV방송사는 하 루중 아침 8시에서 11시사이와 저녁 8시에서 새벽 1시까지 방송한 다. 추가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2개 러시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터키 TV도 들을 수 있다. 국영 라디오방송사는 FM방송을 하는데 광고를 접수하고 있다.

가격정책

아제르바이잔에서 빵, 우유제품과 가솔린에대해서는 가격통제를 받지만, 이러한 제품들에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로 표기되고 팔릴 때 대금결제는 마나트화로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만날 수 있다. 저장설비는 극히 제한되어있고 가격은 선적 스케쥴에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최근 정부는 수입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는 국내산업 보호측면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으며, 여타 수입상품들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애프터 서비스/고객 지원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좋은 소비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아제르 바이잔 소비자들은 이러한 고객 서비스 부재에 익숙해 있다. 제품 품질보증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시장에서 활동중인 한국 기업들은 강력한 소비자 서비스 센타를 설치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부조달시장 진출

중앙정부 또는 국영기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데, 정부 기금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외로 World Bank와 EBRD가 자금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들이 유망하다. 석유 수익은 1998년전까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국고로 들어갈 것 같지 않다. 과제는 다가오는 세기에 주요 석유자원의 개발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내부채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간 부채는 줄어들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영 기업체들은 근로자 임금지불을 2~3개월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제르바이 잔 정부에 납품코자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해야하는데 특히 20%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해야한

다.

지적재산권 보호

이론적으로는 아제르자이잔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국제 지적재산권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적재산권 보장을위한 법규의 집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지 변호사 활용

아제르바이잔 법률체계는 매우 불투명하다. 한국기업들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업들은 Ernst & Young(1994년부터), Price Waterhouse(1995), CKL International 등이 바쿠시에 영업하고 있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코드는 994번이고, 바쿠 도시코드는 12번, 숨가이트 도시코드는 164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아제르바이잔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에도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부처

농업식품부

주소: 4 Shykhali Gurbanov Street, 370079

전화: 94-53-55, 94-34-06, 94-39-52 팩스: 94-53-90

통신부

주소: 33 Azerbaijan Avenue, 370139

전화: 93-00-04, 93-43-27 팩스: 98-42-85

경제부

주소: Government House, Baku 370016

전화: 93-69-20, 93-64-90 팩스: 93-20-25

재무부

주소: 6 Samad Vurgun Street, 370000

전화: 93-30-12, 93-05-62 팩스: 93-07-43

무역부

주소: 23 Niyazi Street, 370066

전화: 92-94-92 팩스: 98-00-11

법무부

주소: 13 Bulbul Avenue, 370601

전화: 98-49-41, 98-80-04 팩스: 93-41-67

국가지질학광산자원위원회

주소: 100a Agayev Street, 370073

전화: 38-54-54; 38-04-81 팩스: 39-84-32

국가반독점비즈니스지원위원회

주소: 83 Salatyn Askerova Street, 370002

전화: 95-79-72; 94-80-82 팩스: 94-69-51

국가통계위원회

주소: 24 Inshaatchilar Avenue, 370136 전화: 38-11-71; 38-77-25 팩스: 38-05-77

국가관세위원회

주소: 2 Inshaatchilar Avenue, 370073 전화: 38-80-80 팩스: 93-40-68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주소: 19 Bulbul Avenue, 370070

전화: 98-71-67; 93-02-31 팩스: 93-55-41; 93-13-25;

93-73-74

국세청

주소: A. Nobel Avenue 23, 370025

전화: 66-00-62; 66-00-37; 67-23-49 팩스: 98-33-71

아제르바이잔 유관기관

아제르바이잔 상공회의소

주소: 31/33 Istiglaliyat Street, 370000

전화: 92-89-12 팩스: 98-93-24

투자진흥공사(SIPA)

주소: Azerbaijan Ave. 9 373200 Sumgait, Azerbaijan

전화: 200-74 (Sumgait) 928-378 (Baku)

바쿠 상업회의소

주소: 4 Samad Vurgun Street, 370022

전화: 95-63-36, 95-68-48

아제르바이잔국가석유공사

주소: 73 Neftchiler Avenue, 370601

전화: 92-06-85; 92-23-12 팩스: 92-32-04; 93-64-92

나. 여행 안내

비자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는 모스크바 등에 소재해있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는 대사관이 없음), 제출서류는 비자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매, 초청장(비즈니스 여행자의 경우) 또는 호텔의 예약완료 텔렉스통지서(관광 여행자의 경우)가 있어야한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40불에서 250불이다. 비자 없이 입국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을 압류당하며 다음날 외무부에 여권 반환을 청구해야한다. 그루지야 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 5일간 아제르바이잔에 체류할 수 있다.

치안

바쿠에서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현찰을 많이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 다. 밤에 혼자 밖을 다니는 것은 위험하며 공항에는 파트너가 꼭 마 중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택시비는 약 20불 정도 지불하면 된다.

비즈니스 인프라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아제르바이잔어, 터키어 또는 러시아어가 사용된다. 근무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보통 아침 10 이전에는 미팅 약속을 하지 않는다. GSM을 포함한 셀룰러 통신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바쿠시의 지하철은 최근 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내 버스들은 지나치게 혼잡하다. 택시는 비싸지 않으며 사용할만 하다. 현재 바쿠에 있는 가장 좋은 호텔은 Hyatt Regency이다. 전압은 220볼트이며 60헤르츠이다.

바쿠 시내에는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몇개 있다. 주의할 점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카페트를 살 경우 문화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캐비어도 살 수 있는데 600g까지 반출이 가능하다. 식수는 병에 든 생수를 사용해야하며 상수도는 끓여서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3월 21일	나우르즈
5월 6일	아수라(이슬람, 매년 바뀜)
5월 28일	국경일(Republican Day)
6월 15일	민족구원의 날
10월 9일	국군이 날
10월 18일	독립기념일
11월 12일	제헌절
11월 17일	재활의 날
12월 31일	라마단(이슬람, 매년 바뀜)
12월 31일	화합의날

아르메니아(Armenia)

수 도: 예레반

(120만명)

면 적: 29.8천㎢

인구밀도: 127.2명/㎢

인 구: 379만명 화폐단위: 드람(Dram,

1993년 11월 도입)

543.58 드람 = \$1

(1999.6.6)

접경국가: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이란, 터키

주요하천: 아락스江

(158km) 주요호수:

세반湖(1,256㎢)

평균기온: 1월 -6℃, 7월 25℃

시 차: KST-6시간

1. 개관

산악지대의 아르메니아는 카프카스의 남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9.8천㎢이다. 서쪽으로는 터키와, 북쪽으로는 그루지야와,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남쪽으로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1920년 11월 29일 성립되어 1992년 12월 30일 구소련의 일부가 되었다. 1991년 9월 23일 국명을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90년 5월 260명 의석의 단원제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수도는 예레반이다.

아르메니아는 전체 인구의 93.3%가 아르메니아인이고, 아제르바이 잔인과 러시아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산업을 볼 때 아르메니아는 구소련 공화국중 일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공화국이었다. 모든 구소련 공화국중 고학력의 전문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또한 아르메니아인은 인구 1만명당 과학자가 70명으로 여타 CIS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53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아르메니아인이 75% 정도이지만 아제르바이잔내에 위치한 나고르 노-카라바흐는 양국간의 분쟁과 대규모 이주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경제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파이프라인과 철도교통을 차단했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는 지속적인 에너지의 부족과 천연가스의 공급부족을 겪었을 뿐만아니라, 일반 소비재의 부족을 겪었다.

1994년 경제는 바닥권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융 및 재정부문에서 질서를 확립해 나갔고 연간 인플레를 1998년에는 8.9%로 완전히 진정시켰다.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관건으로 남아있다.

91년 10월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비공산계 민족운동 당의 테르 페트로샨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된 개혁정책, 적극적인 실리외교를 전개해왔으나, 전인구의 25%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1998년 3월 실시된 대선에서는로베르트 코차리안 후보가 당선되었다.

재정적자는 긴축재정정책의 실시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세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수기반 이 취약하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제기구의 신용 및 미국을 중심으 로한 서방의 원조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수입의 안정도가 낮으며, 이 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환경

구소련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아르메니아는 복잡한 산업설비분야가 발달해 기계설비, 군수용품, 항공전자 및 광학, 화학제품, 직물과 기 타 완제품들을 구소련과 외국시장에 공급하였고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했다. 아르메니아는 현재 식품류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 며, 동, 석탄, 몰리부덴과 금과 같은 자원이 소량 매장되어 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991-1994년 특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었는데 이는 아제르바이 잔내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르메니아인 거주지에대한 전쟁의 발발로 격화된 것이었다.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는 파이프라인과 철도를 봉쇄했고,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 거주 아르메니아인에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루지야는 천연가스를 아르메니아에 공급했다.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가동율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정부는 다수의 제조업체들을 군수용품 생산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IMF의 지원으로 아르메니아 경제는 1993-1995 년 안정화 조짐을 보였다. 인플레는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진정되었고,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0.6	1.3	1.6	1.6	1.8
GDP 성장	%	5.4	6.9	5.8	3.1	6.0
인플레률	%	4,964	175.5	18.7	13.9	8.9
인 구	백만명	3.8	3.8	3.8	3.8	3.8
수 출	\$백만	216	271	290	232	232
수 입	\$백만	344	625	758	793	796
외환보유고	\$백만	32	100	156	229	290
환 율	dram/\$1	288.65	405.91	414.04	490.85	505.04

자료원: EIU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와 기타 수단들을 이용하여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수출촉진책을 펴고 있다. 1995년말 아르메니아는 자국내 전력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메드자모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했다. 1997년 5월 아르메니아와 이란은 전력 송전시스템을 연결했다. 아르메니아는 전체 통신시스템의 현대화를 시작했으며 예레반에는 현대식 교환기가 설치되고 있다. World Bank의지원으로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어 은행 및 에너지분야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는 에너지분야 및 기타 분야의 재건, 무역자유화, 외국인 투자유치, 서구 회계시스템 도입 및 민간재산권 보장을위한 각종 개혁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인접 그루지야와 이란으로의 도로 운송루트를 개선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

를 제치고 아르메니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등장했다.

1991년 토지 사유화이후 산업체의 사유화는 1994년 시작되었다. 사유화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가속화되고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르메니아는 CIS 국가중 최초로 1994년 GDP 성장을 실현했다. 1996년 GDP는 5.8%, 1997년에는 3.1%, 1998년에는 6.0% 성장했다. 이와같은 성과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IMF, World Bank, EBRD 및 기타 금융기관들과 서방국가들 상당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1993-1997년간 제공된 차관은 580백만불을 초과한다. 이 차관들은 재정적자 보전, 자국화폐 가치안정, 민간분야 발전, 에너지 개발, 농업, 식품가공, 운송, 사회 및 1988년지진피해 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는 인도주의적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EU가 주로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르메니아 경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을 해결하고 인접국가인 터키 및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엠바고를 푸는데 달려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분쟁의 해결은 아르메니아의 기존 산업 및 농업 잠재력과 숙련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제르바이잔, 터키 및 중동지역과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1998년 구조적인 요인으로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수입은 0.4% 증가한 796백만불, 수출은 전년도 수준인 232백만불로 564백만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산업은 금속절단기계, 프레스기,전동 모터, 타이어, 니트웨어, 양말류, 신발, 견직물, 세탁기, 화학제품, 트럭, 시계, 공구, 컴퓨터 프레임과 정밀전자(주로 군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

게 발전했다. 한편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국토의 17%만이 경작 가능한 토지인데, 아르메니아의 과일은 높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제품 생산실적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십억kwh	6.3	5.7	5.6	6.2	6.0	6.2
천대	1.6	0.7	0.4	0.5	0.5	0.4
천톤	0.05	0.07	0.2	0.4	_	_
백만톤	5.4	1.7	0.8	1.3	0.4	0.6
천대	0.2	0.3	0.5	_	_	_
천톤	316	229	263	328	258	•••
천톤	46	46	48	48	49	•••
	천대 천톤 백만톤 천대 천토	십억kwh 6.3 천대 1.6 천톤 0.05 백만톤 5.4 천대 0.2 천톤 316	십억kwh 6.3 5.7 천대 1.6 0.7 천톤 0.05 0.07 백만톤 5.4 1.7 천대 0.2 0.3 천톤 316 229	십억kwh 6.3 5.7 5.6 천대 1.6 0.7 0.4 천톤 0.05 0.07 0.2 백만톤 5.4 1.7 0.8 천대 0.2 0.3 0.5 천톤 316 229 263	십억kwh 6.3 5.7 5.6 6.2 천대 1.6 0.7 0.4 0.5 천톤 0.05 0.07 0.2 0.4 백만톤 5.4 1.7 0.8 1.3 천대 0.2 0.3 0.5 - 천톤 316 229 263 328	십억kwh 6.3 5.7 5.6 6.2 6.0 천대 1.6 0.7 0.4 0.5 0.5 천톤 0.05 0.07 0.2 0.4 - 백만톤 5.4 1.7 0.8 1.3 0.4 천대 0.2 0.3 0.5 천톤 316 229 263 328 258

자료원: CIS 통계위원회

3. 투자환경

아르메니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대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100% 외국인 소유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합작기업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분참여에대한 제한은 없다.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며, 토지의 개인소유도 가능하나, 외국 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천연자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양허합의 서를 정부부처와 체결해야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화될 수 없으며, 국가비상사태 등과 같은 경

우에 충분한 보상을 한 이후에 징발될 수 있다.

조세

1997년 5월 12일 新조세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9월 30일 제정된 이윤세법은 서구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소유형태 등에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내국법인의 경우이윤세는 15%와 25%(이윤이 7백만 드람 이상인 경우)로 구분되어 있고, 예외규정으로 도박업의 경우 세율은 70%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가 5억 드람(약 1백만불) 이상인 경우 투자후 2년간 이 윤세가 면제되며 그후 10년까지 50% 감면받는다. 그러나 조세감면 기간중 회사를 청산하게될 경우 이전에 감면한 이윤세까지 소급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외국인이 획득하는 이자, 배당금에대한 세율은 15%이며, 보험료, 로얄티, 임대소득 등에대한 세율은 5%이다.

1997년 5월 14일 新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율은 20%이다. 수입시 관세를 면제받는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받는다. 아르메니아 국내에서 상품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대외반출시 환급받을 수 있다.

1997년 5월 30일 新소비세법이 제정되었는데, 일부 사치성 상품에 대해 통상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캐비어는 200%, 맥주는 50%, 담배는 100%, 천연가죽의류는 25%, 모피의류는 25%, 크리스탈 및 도자제품은 25%, 보석류는 15% 그리고 승용차는 15%이다.

이외에 재산세, 토지세(토지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의 15% 또는 토지가격의 0.5%에서 1.0%), 사회보장세(급여수준에따라 32%에서 120%까지 다양함)를 납부해야한다.

법제/투명성

아제르바이잔의 법률시스템은 CIS 국가중 가장 발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 반독점법과 같은 일부 법안은 미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하경제가 활발하다.

부정부패

아르메니아는 구소련 당시의 부패관습을 물려받았다. 1989-1993 년간의 전쟁, 경기침체와 주민소득감소,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 현찰경제, 법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1991년 독립 이후 이러한 악습은 지속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구소련 당시의 형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공무원들은 직간접으로 비즈니스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기업체의 보호, 경쟁업체의 제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제정될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비즈니스 참여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민간 기업인들은 탈세, 등록하지 않은 채로 비즈니스 영위를 하는 등 편법운영이 퍼져있다. 1997년 6월 현재 지하경제는 전체 GDP의 40-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시장

1992년 제정된 노동법에따르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노조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강제 노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당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간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 출산휴가는 140일이며, 임신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다.

금융시장

현재 은행융자는 고율의 시장금리로 제공되고 있는데, 단기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레반증권시장은 형성 초기단계에 있고, 상장된 기업수도 몇 개 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했으나, 1997년 4월 23일 정부령에따라 주주가 50인을 초과할 경우 국가주주등기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상업은행도 발전 초기에 있는데, 최소설립 자본금은 1백만불이다. 1998년 7월 1일 현재 전체상업은행들의 총자산은 252백만불에 불과하며, 약 90여개에 달하는 상업은행들에대한 구조조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환전/송금

1994-1995년간 아르메니아는 사실상 환전 및 송금에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2-4일이면 서방으로의 송금이이루어지며, 기업들은 제한없이 외환구좌를 개설하여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유일한 제한은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현찰은 1만불로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유화/보상

투자환경의 악화를 가져오는 법규의 변경은 기존의 외국인 투자업체들에대해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충분한 보상을 한후 징발(국유화)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분쟁해결

상거래 분쟁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분쟁 당사자가 정부기관일 경우 분쟁심판은 아르메니아 법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분쟁당사자가모두 법인일 경우 경제법원에서 심사하게 되며, 양자의 합의가 있을경우 상사중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상사중재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일방이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합작기업 설립

합작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진출 방식이다.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자본의 지분참여가 30% 이상일 경우 특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국가등기소에 등록해야하며 약 25일 소요된다. 등록시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서, 기업 설립 문서들, 라이센스(필요한 경우) 및 기타 서류이다. 자세한 정보는 통계청 등기소 (T.52-4506)에 문의하면 된다.

아르메니아 법은 개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별한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는 개인 사업가, 가족회사, 합자회사, 생산조합,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공공서비스 회사, 합작기업, 자회사 등이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1997년말 현재 외국인 투자업체수는 1,042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70%는 무역.유통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1997년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51백만불에 달했으며, 1998년에는 170백만불로 전년대비 2.3배 증가했다. 1998년말 누계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265백만불이다.

4. 수입관리제도

관세

아르메니아의 수입관세는 0% 또는 10%이다. 10% 수입관세는 주로 소비재와 사치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로 CIF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모든 수출은 무관세이며, 아르메니아는 HS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이다.

- 관세동맹국가로부터의 수입
- 임시 수입
- 정부간 협정에의한 건설프로젝트용 자재
- 정부 차관에의한 수입

경화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수출입 세관 수속비는 상품가격의 0.3%이다. 정부 차관에의한 수입, 국제협정에 근거한 구상무역 및 인도주의적 원조에의한 경우에는 세관 수속비도 면제받는다. 또한 입국자는 500불 한도내에서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용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여야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아르메니아는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소비세는 주류, 담배 및 사치품에대해 15%~200%까지 부과하고 있다.

관세 산출

아르메니아는 CIF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데 기준가격은 외국 수출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된다. 언더밸류에 의한 관세포탈이 심해지자 1996년부터 유사품목의 가격 리스트를 가지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있다.

수입 라이센스

대부분의 상품들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들로는 무기류, 폭발물질, 핵물질, 독극물, 마약류, 항정 신 물질, 포르노 매체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은 보건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농화학제품은 농업식품부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수출관리

아르메니아 정부는 일부 품목에 있어 수출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로는 비철금속, 철강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용품과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출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있다.

무역서류 작성

프로포마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품질/안전 증명서와 함께 세관신고 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비타민과 의약품은 보건부의 증명을 구비 해야한다. 1997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식품류는 안전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

안전증명서를 발급받는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되며, 실험실의 테스트가 필요하게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는 GATT 규정에 적합한데, 수량제한 품목, 특혜무역 관계 국가, 환경보호, 보건 및 국가안보에 사용될 품목 등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아르메니아에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아르메니아 의약품기술국(Drug and Medical Technology Agency)에 등록(증명)되어야한다. 등록은 제조업체가 신청해야하는데 몇일에서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등록은 10년간 유효하다.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600불에서 2천불까지 품목별로, 종류별로 상이하다.

임시 수입

적합한 세관절차에따라 임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 제된다. 아르메니아에 임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자동차 1대를 무관세 도 반입할 수 있으며, 출국시 반송해야한다.

무기류, 폭발물 및 핵물질을 통과수송할 경우 아르메니아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한다.

라벨링, 표기 요구사항과 규격

1997년 아르메니아는 측량,증명 및 표준화에관한 법을 통과시켰으며, 아직까지 라벨링 의무사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현지어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법 등을 현지어로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

1997년 1월 아르메니아는 ISO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CIS 공동규격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수입 제한

무기류, 폭발물, 군수용품, 마약류, 항정신 물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특별규정에 따라야한다.

5. 수출유망품목

아르메니아의 수입상품구조(`98)를 보면 광산물이 22.1%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동식물제품(19.5%), 조제식품류(12.8%), 화학 공업제품(11.9%), 기계류(7.4%) 순이다.

아르메니아의 수입상품구조

단위: %

품목명	1996	1997	1998
합계	100.0	100.0	100.0
동식물제품	20.7	18.4	19.5
유지.식용유	3.1	2.8	2.2
조제식품.음료	8.6	9.6	12.8
광산물	21.7	23.4	22.1
화학공업제품	7.5	12.2	11.9
목재 및 동 제품	1.5	2.1	3.0
섬유제품	1.5	3.8	3.6
비금속광물	1.0	2.8	2.4
기계.설비류	8.4	11.4	7.4
수송기계	1.3	1.8	4.2
기구(시계.음향)	1.2	1.6	1.5
기 타	23.5	10.1	3.4

자료원: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주) 1998년은 추정치임.

식품류

식품류는 아르메니아 전체 수입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식품의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육류

및 우유제품은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식품들은 주로 이란, 터키, 러시아, 아랍 에미레이트, 유럽 및 미국 등지로부터 수 입되고 있다. 육류, 달걀, 설탕, 밀가루, 소프트 드링크와 주류는 상 당한 틈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운송기기/승용차와 부품

독일 BMW사는 1999년 6월 예레반에 서비스센타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승용차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 미츠비시사는 1998년말 85대의 소형 버스를 공급하였는데, 시내 대중교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타이어사에 따르면, 현재 카나다, 한국 등으로부터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는데, 1998년의 경우 19만개의 품질이 좋지 않은 중고 타이어가 편법 통관되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998년 8월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가 철폐되었으며, 관세 10%와 부가가치세 20%만 납부하면 되어, 승용차에 대한 가격인하 및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무자동화 기기/PC

이전에는 전체 PC 수요의 대부분을 기관 및 단체가 차지했으나, 현재는 개인 구매자가 전체 PC 구매의 60-7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9년에도 PC 판매는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아르메니아에서는 약 5만대의 PC가 사용중에 있으며, PC를 공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러시아, 아랍 에미레이트, 독일 및 네델란드이다. PC 등 사무자동화 기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설비

아르메니아 에너지 분야는 변화 과정에 있으며 외국 공급업체들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경제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주로 World Bank나 E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30개 이상의 수력발전소가 사유화 과정에 있으며 1997년초 현재 7 개 수력발전소는 완전히 사유화 되었다. 새로운 발전소 소유자들은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소형 수력 터빈과 관련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BRD는 1997년 약 9천만불 상당의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World Bank는 전력 수송 프로그램을 위해 9천만불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전력 전송망을 현대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요식업

1995년부터 아르메니아의 요식업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카페, 레스토랑 및 음식점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르메니아내 독자적인 체인점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패스트 푸트 개념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식, 프랑스식, 이태리식레스토랑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고품질이지만 비싸지않은 음식점 혹은 바용 설비들을 수출할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인테리어 설비와 자재들은 이태리, 터키, 이란및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도소매 설비

1996년 소매 상점수와 도매회사는 40% 증가한 14,950개에 달했

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상점 소유자들은 인테리어 및 설비를 개보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냉장설비 등과 같은 상점용 설비들의 수출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금등록기, 중량측정기 등 상거래 현대화에 필요한 장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안전증명, 사용허가 등) 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진출 확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대아르메니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품목명	19	97	19	98
古马马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1,149	7.7	1,684	46.6
승용차	6	-99.3	321	*
상용차	257	_	301	17.0
폴리에스텔직물	97	_	278	186.5
염색	99	60.5	128	29.2
파스너 및 부품	71	_	106	50.3
기타의 직물	56	_	101	81.4
아크릴단섬유직물	0	_	90	_
편직물	273	_	79	-71.0
혼방재생단섬유직물	0	_	69	_
P/C직물	182	_	43	-76.4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우리나라의 대아르메니아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1.8	1.0	1.1	1.6	0.2
수 입	0.4	0.4	0.07	0.02	0.04

자료원: KOTIS

6. 투자진출 유망분야

건설

1998년 지진으로 아르메니아 서북부 지방이 크게 파괴되었으며, 정부는 이 지방의 복구를 우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주로세계은행 등의 차관지원으로 국제입찰 형태로 이루어지는 복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또한 총연장 7,700 km의 도로중 40% 이상이 긴급보수를 요할 정도로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통신시설 역시낡은 장비와 잦은 단전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 부문의 투자기회가 많다.

항공

항공운송은 아르메니아를 세계와 연결하는 주요 운송수단중의 하나이며, 1997년 항공발전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즈바르트노츠 공항 현대화, 아르메니아 항공사와의 협력 부문이다. 아르메니아 항공사는서구 항공기의 구매 및 임차를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전자

1991년 이전에 아르메니아는 구소련의 군수산업 및 우주항공부문을 위한 전자장비의 30%를 생산공급해왔다. 수많은 관련 연구소와 제조공장이 있지만 구소련의 붕괴이후 거의 가동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원, 엔지니어 및 노동력을 활용하여 TV, VCR,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유망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기회중의 하나이다. 이미 성 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미국 등 서방기업들에 고용되어 활동하고 있 는 상태이다.

현재 UNDP의 지원 프로그램에따라 인터넷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르메니아 프리넷사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요금이 미국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 인터넷의 확산속도는 매우 더디며, 전체 PC의 6%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써 수요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가공 및 포장

아르메니아는 고품질의 과일과 채소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화학비료의 부족으로 생산은 감소하였지만, 현대적 가공 및 포장기술을 도입할 경우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서구기업들이 진출하여 토마토소스와 쥬스¹³⁾를 생산하고 있다.

^{13).} 미국과 합작회사인 아라라트-노바사는 1997년 설립되어, OPIC가 지원한 자금 3백만불을 투자하여 주스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경공업

아르메니아는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1998년 면사(144톤), 니트웨어(913천벌), 재켓(1백만벌), 면직물(289천 sq.m)를 생산했다. 현재 경공업 분야에는 154개의 대기업과 180개의 소기업이 활동중인데 가동되는 기업은 60-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루마니아, 러시아 등 인근국을 대 상으로한 생산기지로 활용할만 하다.

화학공업

특히 인조고무의 경우 구소련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로 군수용으로 공급했다. 나이리트와 폴리비닐아세테잍 공장 등은 국제입찰을 통해 사유화될 예정이다.

광업

아르메니아에는 동과 몰리브덴이 상당량 매장되어있는데, 구소련의 붕괴이후 광산들은 거의 문닫은 상태이다. 그러나 광산의 현대화 및 재건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중이다. 1998년 2월 설립된 카나다와의 합작기업인 아라라트사는 스크랩을 생산하고 있는데, 부산물로 1999년 6월 현재 600kg의 금을 생산하기도 했다고 한다.

관광

아르메니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반 호수의 경우 해발 2,000 m에 위치하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잠정적으로 해결되면서 역내 정세가 안정되었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관광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태로써, 호텔과 레스토랑 등의 상태는 극히 열악한 형편이다. 1995년 4월 아르메니아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산업자원부는 UN의 지원하에 관광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요식업

아직까지 서구형 패스트 푸드 체인점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1995년말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피자, 샌드위치 등 패스트 푸드에 대한 수요는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써 역시 매력적인 투자유망분야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아르메니아는 경제난으로 건설이 중단된 각종 건물들을 매각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을 통해 비즈니스 센터, 호텔 등의 사유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부문은 외국투자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 다.

7. 유통구조 및 마케팅 방안

유통 및 판매 채널

현재 아르메니아에는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통 및 판매 메카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민간업체들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마케팅 원칙이나 기술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국영기업들은 구시대의 중앙집권하된 구매 및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에이전트의 이용, 파트너 발굴

1995년 이후 유통부문은 투자 인기가 높은 부문으로 등장했다. 많은 현지 민간업체들은 Procter & Gamble, Mars, LG, Sony와 같은 외국업체의 에이전트 혹은 공식 딜러로써 활동하고 있다.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 상공회의소, 상인 연맹, 산업가연맹 등의 단체를 접촉하는 것이 유망하다.

프랜차이징

아르메니아에는 비교적 최근에 프랜차이징이 선보이고 있지만 그리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이다. 조만간 프랜차이징 성공 사례가 알려지 게 되면 프랜차이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마케팅(DM)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마케팅 요소

현 아르메니아의 소매산업은 대부분 민간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영 상점과 백하점들은 줄어들고 있다. 1997년 1월 1일 현재 29,836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0.1%는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에레반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3명에서 10명 이내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위탁판매 베이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는 현찰로 이루어진다.

예레반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들에는 노천 시장이 있는데 값싼 의류, 식품, 가정용품과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노점상들도 매우 많다. 노점상중 상당수는 중국, 아랍 에미레이트, 터키, 이란 등지로 보따리 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노점상들은 달러를 받기도 한다.

광고 및 마케팅

광고는 아르메니아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996년 광고법이 제정되어 기본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광고에 사용하는 공식언어는 아르메니아어이어야하며 하단에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주류 및 담배 광고는 금지되었으며,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기관의 광고에는 엄격한 제한규정이 있다. 불공정한 광고는 금지되며 이에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TV 광고가 전체 광고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제작된 광고는 조잡한 편이다. 또한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2개 채널이 있으며 일부 민간 TV 채널과 FM 라디오 방송사도 생겼다.

가격 정책

민간분야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여전히 가격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요인들로는 낮은 구매력, 높은 운송비용, 낮은 경쟁, 제2 조세(뇌물성 수수료 등) 등을 고려해야한다.

국영부문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나,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은 여전히 국가가 가격을 통제한다. 설탕, 우유, 성냥, 비누 등과 같이 기초 생필품들에대해서는 여전히 국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극빈층에게 물건을 배급하고 있다.

애프터 서비스/고객 서비스

구소련의 붕괴이후 워런티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대부분의 민간업체들은 이와같은 품질보장 내지 고객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다국적 업체들에의해 워런티 서비스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조달시장

아르메니아 정부는 낮은 자금동원 능력으로 인해 대규모 조달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구매는 국제금융기관의 융자 내지 자금공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재를 구매하지는 않고 주로 연료, 에너지 설비, 원자재 및 건설자재 등과 제한된 범위내에서 기계류를 구매하고 있다. 2만5천불 이상의 정부구매는 입찰에 의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광범위하게 도서, 비디오, 오디오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지 변호사 이용

아르메니아내 비즈니스 관련 법령은 매우 불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많은 법규들에는 수많은 하부 규정들이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모두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관료주의 성향이 극히 강하여 가장 사소한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는 현지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 하다.

8.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아르메니아의 국가코드는 374번이고, 예레반의 도시코드는 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아르메니아 정부 부처

대통령실

주소: 26 Marshall Baghramyan St., Yerevan 375012

전화: 520-204, 팩스: 151-152

부통령실

주소: 26 Marshall Baghramyan St., Yerevan 375012

전화: 588-578, 팩스: 151-152

총리실

주소: 1 Government Bldg., Republic Square, Yerevan 375010

전화: 520-360, 528-250, 팩스: 151-036

농업부

주소: 2 Government Bldg, Republic Square, Yerevan 375010

전화: 520-321, 524-641; 팩스: 523-793

우편통신부

주소: Republic Sqaure, Yerevan 375010

전화: 526-632; 팩스: 151-555

문화청소년체육부

주소: 5 Tumanyan St., Yerevan 375001

전화: 529-349; 팩스: 523-922

국방부

주소: Ashtarak Highway, Yerevan 전화: 357-830; 팩스: 357-881

교육과학부

주소: 13 Movses Khorenatsy St., Yerevan 375010

전화: 524-749; 팩스: 567-164

에너지부

주소: 2 Government Bldg., Republic Square, Yerevan 375010

전화: 521-964; 팩스: 151-687

환경보호부

주소: 37 Moskovyan St., Yerevan 375002 전화: 530-741; 팩스: 534-902, 538-613

재정경제부

주소: I Melik Adamyan St., Yerevan 375010 전화: 527-082; 팩스: 151-154, 523-745

외무부

주소: 10 Marshall Baghramyan St., Yerevan 375012 전화: 523-531, 588-829; 팩스: 151-042, 527-022

보건부

주소: 8 Tumanyan Street, Yerevan 375001 전화: 582-413; 팩스: 151-097, 562-923

산업통상부

주소: 2 Government Bldg., Republic Square, Yerevan 375010

전화: 521-877, 520-579; 팩스: 151-084, 523-564

내무보안부

주소: 130 Nalbandyan St., Yerevan 375015

전화: 560-908; 팩스: 529-388

법무부

주소: 8 Khorhrdaranayin St., Yerevan 375010

전화: 582-157; 팩스: 582-449

사회안전부

주소: 18 Isahakyan St., Yerevan 375025

전화: 565-321; 팩스: 562-075

교통부

주소: 10 Zakyan St., Yerevan 375015

전화: 563-391, 팩스: 523-200

도시개발부

주소: 3 Government Bldg., Republic Square, Yerevan 375010

전화: 589-080; 팩스: 523-200

관세청

주소: 4 Kochar St., 375033 Yerevan 375010 Armenia

전화: 225-636

국세청

주소: 3 Movses Khorenatsy Street Yerevan 375015 Armenia

전화: 538-101 팩스: 151-967

국가중재법원(경제법원)

주소: 18 Paronyan St., Yerevan 375015

전화: 532-411

유관기관/단체

아르메니아 상공회의소

주소: 39 Hanrapetutyan St., Yerevan 375010, Armenia

전화: 565-438, 팩스: 564-695

아르메니아 산업가연맹

주소: 41 Arshakunyants Ave., Yerevan 375026, Armenia;

전화: 560-188, 팩스: 151-705

아르메니아 상인조합

주소: 12 Vagharshyan St., Yerevan, Armenia;

전화: 273-603, 277-623, 570-321, 팩스: 273-540

아르메니아 은행연합회

주소: 23/1 Amiryan St., Yerevan-02;

전화: 533-343 팩스: 528-811

나. 여행안내

비자

아르메니아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입국비자를 해외의 아르메니아 대 사관에서 받거나 아르메니아 도착 즉시 아르메니아 외무부에서 발 급받아야한다. 비자 종류는 관광, 외교, 공용 및 일반비자가 있다. 유효기간별로 비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단수 통과비자(3일): 20불, 7일 소요 더블 통과비자(3일): 25불, 7일 소요 관광비자(21일): 60불, 7일 소요 공식 초청에의한 단수비자(90일까지): 35불, 7일 소요 공식 초청에의한 복수비자(90일까지):70불, 7일 소요

비자 발급 수수료는 비자 종류에따라 20불에서 200불까지 달한다.

공휴일

1월 1~2일신년1월 6~7일크리스마스4월 7일어머니의 날4월 24일집단학살희생자 추모의 날5월 9일승전기념일5월 28일국가재건기념일7월 5일제헌절9월 21일독립기념일12월 7일지진피해 추모일(1988년 발생)12월 31일신년전야휴일

그루지야(Georgia)

수 도: 트빌리시(120만명, 語義는 '따뜻하다')

면 적: 69천㎢ 인구밀도: 78.0명/㎢ 인 구: 544만명

화폐단위: 라리(Lari, 1995년 9월 도입)

1.98라리 = \$1 (1999.6.6)

접경국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

주요하천: 쿠라江(134km) 주요호수: 파라바니湖(37.5k㎡) 평균기온: 1월 1℃, 7월 24℃

시 차: KST-5시간

1. 개관

그루지야는 카프카스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산안 국가이다. 면적은 69.7k㎡이며, 남서쪽으로는 터키 및 아르메니아와, 남동쪽으로는 아 제르바이잔과,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흑해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 기후는 따뜻하고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그루지야는 1991년 4월 9일 독립을 선언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흑해 관광업과 연관이 깊으며, 과일, 차 그리고 포도의 재배, 동광 그리고 와인, 금속, 기계, 화학제품과 직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루지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에너지는 수력발전이 일부 있다.

독립이후 압하지야내의 독립움직임과 관련한 인종적 분쟁은 국내 정세의 불안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제조업체의 가동율은 20%를 밑돌고 있고, 농작물 생산과 관광업은 1993년에서 1994년까지 상당한 침체를 겪었다. 그루지야는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재건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흑해를 통한 해상운송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91년 4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91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 후보가 대통령으로당선되었으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인숭배성향으로 국민의 저항을 초래했고, 92년 1월 반정부 무장세력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었다. 92년 11월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결과 구소련시절 그루지야공산당 서기장과 소련 외무장관 등의 요직을 역임한바 있는에두아르드 쉐바르드나제 후보가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취임초기 반정부 무장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권력기반이 위협당하기도 했으나, 95년 이들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권력기

반이 강화되었고, 95년 11월 대선에서 재선되었다.

2. 시장환경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
GDP	\$십억	1.0	1.0	1.2	1.3	1.4
GDP 성장	%	-11.0	2.4	11.4	11.3	2.9
인플레률	%	15,606	162.7	39.4	7.1	3.5
인 구	백만명	5.36	5.35	5.35	5.35	5.35
수 출	\$백만	381	290	372	230	194
수 입	\$백만	744	711	686	931	1,048
외환보유고	\$백만	41	157	158	173	
환 율	lari/\$1	1.40	1.29	1.26	1.30	1.40

자료원: EIU

구소련 시절 비행기, 자동차 등 중공업제품에서 식료품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었으나, 구소련 해체이후 심각한 에너지, 원부자재 부족현상과 구소련 시장의 상실로 산업생산이 급감하였다.

또한 구소련 시절 농업을 감귤류와 차 재배에 특화시킴으로써 식량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미국, EU 등 서방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도도 낮은 편이다.

채무의 50% 이상은 CIS국가에 대한 것으로 구소련 채무의 1.6%를 승계하였으나 이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스공급을 중단당하기도 하였다.

체제전환에 따라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압하지야사태¹⁴⁾로 더욱 악화됨에 따라, 94년말 IMF, World Bank의 지원하에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품목별 생산실적

품목명	단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력	십억kwh	10.2	7.0	7.1	7.2	7.1	8.1
석유	천톤	100	70	40	100	100	100
화학비료	천톤	60	30	40	70	80	100
화학섬유	천톤	8.0	0.9	0.2	0.9	0.6	0.3
직물	백만m²	15.9	3.5	2.0	1.2	0.5	0.2
TV	천대	0.9	0.1	0.5	1.9	2.0	1.1
곡물	천톤	409	481	485	652	902	604
육류	천톤	103	108	124	118	121	108

자료워: CIS 통계위워회

최근 민영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과 낙후된 산업설비로 제조업의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외채문제도 단기간에

^{14). 1992}년 8월 압하즈 자치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그루지야군이 공격함으로써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11월압하즈군은 자치 공화국 수도인 수후미시를 점령하였으며, 1993년 7월 러시아의 압력하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1993년 9월 압하즈의 대그루지야 공격이 재개되었고, 압하즈는 자치공화국내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다. 1994년 5월 러시아의 중재하에 휴전협정이 서명되었으나, 향후 유혈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투자환경

1996년 11월 제정된 `투자 활성화와 보장에 관한'법과 기업법은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법령이다. 신법률에따르면 많은 외국인투자에대한 라이센스가 폐지되었고, 좀더 자동적인 등록절차로 대채되었다. 사유화 프로그램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루지야 정부는 좀더 좋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법 규를 정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에대한 차별은 없다. 예 외적으로 토지의 외국인 소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49년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일부 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데, 특히 인프라 부문이 그러하다. 정부는 인프라(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통신, 발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은행권 및 증권 인쇄, 위험한 질병의 치료, 주정생산 등에 있어 지배주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국방 및 안보부문에 있어 외국인 투자는 금지된다.

기업법은 독일법을 모델로한 것인데, 경제활동을 위한 양호한 틀을 제공하나 투명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외국인 투자가 10만불을 초과할 경우 대외경제관계부 산하 외국인 투자청에 등록해야하며, 그후 추가로 1년마다 투자진행(추가 투자등) 상황을 보고해야한다. 등록시에는 투자프로젝트명, 투자활동내용, 기업등록 확인문서 사본, 투자금액확인 및 특별허가서(필요한경우)를 제출해야한다.

투자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문은 도박, 추첨, 카지노, 의약품 생산, 무기류와 폭발물 생산, 천연자원 개발, 셀룰러 통신 서비스, TV와 라디오 방송, 은행, 보험, 증권발행 등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법원에 기업을 등록해야하는데, 등록시 설립자(이름, 생년월일 및 장소, 직업, 거주지)와 기업(설립문서, 활동영역, 자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이 정보는 등록카드에 명기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료주의가 문제로 남아있으며, 개인적 유대관계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수적이다.

황폐한 인프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또다른 문제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체적인 발전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갑작스런 정전에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조세 정책

1997년 6월 조세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조세법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이 모든 세무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세율은 변화가 심한 편이어서 투자자들의 골치거리중의 하나 이다.

법인세는 20%이며, 각종 배당금에대한 소득세는 10%이다. 부가가 치세는 20%(예외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소형차 수입시 부가세는 5%임)이다. 소비세는 포도주, 주류, 보석, 소형차, 타이어, 연료, 캐비어 등에 부과되며 품목별로 상이한데 15%에서 100%에 달한다.

고용주세는 영리기관인 경우 29%, 비영리 기관은 26%, 주재 외국 대사관 근무 그루지야인 직원의 경우 15%이다.

부정부패

부패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루지야 및 외국 기업인들은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여러가지 법령이 제정되어있고, 검찰, 내무부와 보안부가책임을 지는데, 이들 기관원들이 부패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재산몰수와 함께 최고 15년까지 징영혁을 선고할 수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부정부패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환전/송금

1995년 10월 그루지야 정부는 자국화폐 라리(lari)화를 도입했으며, 1998년 12월 7일 정부는 자국화폐 가치안정 정책을 포기했다. 1998년 10월초 달러대비 환율은 1.37에 달했었는데, 1999년 6월 현재는 1.98라리로까지 상승한 상태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자유롭게 환전 및 송금할 수 있으며, 수권은행에 경화 구좌를 개설.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세금을 납부한후 이윤, 부채 상환, 수입대금결제 등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으나, 은행부문의 발 달지연으로 대외송금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루지야는 여전히 현찰경제이며, 여행자 수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신용카드는 주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은행부문은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데, 1995년 247개에 달하던 상업 은행은 현재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이며, 3개 거대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54%인 133.7백만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실적

1998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252백만불에 달했으며, 1998년말 누계기준 외국인 투자총액은 512백만불이다.

4. 수입관리제도

그루지야는 어느정도 수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장벽은 거 의 없는 셈이다.

무절제한 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위험한 일부 품목에대해 수입 라이 센스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공업품, 산업폐기물, 무기류 등이 포함된다. 라이센스는 대외경제관계부가 발급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것은 별로 성가신 일이 아 니다.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12%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1997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관세법에따르면, 기업 생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본재, 부품과 제품들에대해서는 5%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20%의 부가가치세와 다양한 세관수속료를 납부해야한다.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세(excise tax)를 납부해야한다.

밀, 어린이 식품, 당노병환자용 식품과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간 협정에 의해 수입되는 품목들과 일부 의약품, 통과화물, 생산용 원자재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설립문서에따라 수입되는 자본재와 개인용품은 제세를 면제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대해 적용되는데,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는 있다. 수입상품에대한 부가가치세는 통관시 관세 등 여타 세금과 함께 납부해야한다.

5. 수출유망품목

그루지야의 수입품목구조(`98)를 보면, 광산물이 전체 수입의 31.0%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식품류(17.9%), 기계류(16.5%) 순이다.

그루지야의 수입상품구조(%)

품목명	1997	1998
합 계	100.0	100.0
동식물제품	14.5	10.3
유지.식용유	0.4	1.1
조제식품 및 음료	19.8	7.6
광산물	28.5	31.0
화학공업제품	10.2	9.6
목재 및 동 제품	1.7	1.6
섬유제품	1.1	0.9
비금속광물	4.1	6.4
기계.설비류	10.7	16.5
수송기계	6.0	10.3
기구(시계,음향)	0.7	1.4
기 타	2.3	3.3

자료원: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CIS 정보화일 1999 주) 1998년은 추정치임.

그루지야는 자국 군 및 경찰 등이 사용하는 의류, 식품 등을 입찰을

통해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는데, 지난 1999년 5월 3일에는 총 240만불 규모의 입찰실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트빌리시시를 비롯한 전국의 의료기관은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일본 등 각국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부문 현대화에 참여하여 관련 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및 관공서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PC, 복사기 등 사무용품의 수요가 일고 있다. 일례로 제록스사는 1991년 이후 2천대의 복사기를 판매하였는데 그루지야내 딜러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루지야는 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정부의 380만엔 지원프로 그램에 따라 모터, 트랙터 수리소, 농업훈련소 및 농기계 구매를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미츠비시사가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그루지야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연 도	1995	1996	1997	1998	99(1-4)
수 출	1.2	10.5	3.0	5.0	0.8
수 입	0.07	1.8	0.9	0.4	0.1

자료원: KOTIS

우리나라의 대그루지야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불, %

꼬모머	19	97	1998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179	-69.7	5,092	60.2
승용차	231	14.6	1,511	555.3
상용차	603	_	986	63.5
스텐레스강와이어	0	_	281	_
혁제가방	0	_	252	_
볼링용구	0	_	174	_
PCB	15	_	154	914.7
밸브	0	_	136	_
고무,프라스틱 제품	0	_	116	_
머리장식품	130	_	109	-15.8
폴리에스텔섬유	75	-63.7	108	44.2

자료원: KOTIS

주) 품목분류는 MTI 6단위 기준임.

6. 투자진출 유망분야

그루지야 기업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망한 공장의 인수기 회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그루지야 농민협회는 해즐넛(개암나무 열매) 생산을 현행 2천 톤에서 11천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5백만불의 투자를 유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며, 코노코사는 향후 3년간 3천만불을 투자하여 바투미 액화가스공장 현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 마루베니사는 250백만불을 투자하여 바투미 정유소 재건을 추진하고 있

는데, 연간 250만톤의 석유를 가공할 계획이다.

7. 유용한 연락처 및 여행안내

그루지야의 국가코드는 995번이고, 트빌리시의 도시코드는 32번이다.

가. 유용한 연락처

그루지야 정부 부처

외무부

주소: 4 Nine April Street 380018 Tbilisi, Georgia

전화: 98-93-77 / 98-93-88 팩스: 98-72-49

경제부

주소: 12. Chanturia Street 380062 Tbilisi, Georgia

전화: 23-58-82 팩스: 29-00-63

재무부

주소: 170 Barnov Street 380062 Tbilisi, Georgia

전화: 29-20-77 팩스: 29-23-68

국가자산관리부

주소: 64, Chavchavadze Ave. 380062 Tbilisi, Georgia

전화: 22-48-75 팩스: 29-27-86

내무부

주소: 1, Didi Kheivani St. 380018 Tbilisi, Georgia

전화: 99-62-96 팩스: 98-60-91

무역대외경제관계부

주소: 42 Kazbegi Street 380077 Tbilisi, Georgia

전화: 38-96-52 팩스: 39-80-82

중앙은행

주소: 3/5 Leonidze 380027 Tbilisi, Georgia

전화: 99-65-05 팩스: 99-98-85

국세청

주소: 380005 Tbilisi. Georgia

전화: 98-85-78 / 93-89-32 팩스: 93-63-24

나. 여행 안내

비자

그루지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한다. 비자는 해외 그루지야 대사관이나 도착 공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르메니아 혹은 아제르바이잔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3일 한도내에서 그루지야에 체류할 수 있다. 입국시 세관 신고서를 써야하며 이신고서는 보관했다가 출국시 제출해야한다.

교통

트빌리시 공항은 간혹 전력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과 그루지야간의 직항로는 없다. 도로사정은 매우 열악하며, 차선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오토바이 운행자를 조심해야한다.

안전

분리독립주의자들의 통제하에 있는 아브하지아 지역 여행은 삼가야

한다. 갈리아 주그디디에서 테러 사태가 발생한바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인질극 또는 폭탄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강도와 절도가 가장 빈번한데, 특히 트빌리시 지하철 이용시 절도에 주의해야한다.

통화

그루지야는 현찰경제이다. 라리화가 유일한 법화이며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극히 일부 호텔에서 신용카 드를 받기도 하다.

공휴일

1월 1일	신정
3월 3일	어머니의 날
5월 2일	故人 회고의 날
5월 26일	독립기념일
8월 15일	민족화합의날
8월 28일	성모승천축일
10월 14일	므츠케토바(종교축일)
11월 23일	기오르고바(성 조오지 축일)

[참고문헌]

- 1. E.I.U Country Report 1/4분기, 1999 CIS 12개국 각국편
- 2. CIS 정보화일 1999,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 3. Exporters's Encyclopaedia 1997/98, Dun & Bradstreet
- 4. 동구.CIS 편람, 1997.12, 한국수출보험공사

[주요 정보제공 웹사이트]

- 1. 미국 상무성 CIS 정보제공 전문 사이트 주소: http://www.mac.doc.gov/bisnis/bisnis.html
- 2. CIS 통계위원회 주소: http://www.unece.org/stats/cisstat/macro0.htm
-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주소: http://www.ebrd.org/english/index.htm
- 4. 미국 CIA 국가기초정보 주소: http://www.odci.gov/cia/publications/factbook/country.html
- 5. 한국-러시아 정보서비스 주소: http://www.kotra.or.kr/~kwpark